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일러두기

01 이 책의 각종 통계와 지표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정부 각 기관과 기타 주요 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각 통계표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처를 표기하였음

»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

- 자료 : 발행처, 「책제목」 (발행연도)
- 발행연도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제목에 표기 된 연도가 발행연도임

»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한 경우**

- 자료 : 통계청, 「자료명」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이후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 이에 자료 출처에 전수부분(행정자료)과 표본부분(표본조사)을 구분하여 표기함

» **관련기관에서 문서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자료를 받은 경우**

- 자료 : 관련기관 내부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서비스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웹 시스템에서 자료를 활용한 경우**

- 자료 생산 기관, 「자료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의 성인지 통계시스템」 에서 재인용)

» **원자료를 재분석한 경우**

- 자료 : 자료생산기관, 자료명(조사 당해연도 등) 원자료 분석

.....
02 모든 자료수치 및 비율은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03 통계표 중 사용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 미상 및 해당 없음
0 또는 0.0 : 단위 미만
.....

04 지표에 따라 별도의 주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에 표기하였음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CONTENTS

I. 개 요

- 08 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배경 및 목적
- 09 2 202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와 방법
- 12 3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http://gs.jewfri.kr>) 소개 및 이용 방법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 | | | | |
|-----|--------|-----|------------|
| 21 | 1 인구 | 125 | 7 복지 |
| 41 | 2 가족 | 143 | 8 정치와 사회참여 |
| 65 | 3 보육 | 153 | 9 문화 |
| 73 | 4 교육 | 163 | 10 안전과 환경 |
| 91 | 5 경제활동 | 181 | 11 시도 비교 |
| 111 | 6 건강 | | |

※ 표, 그림 찾아보기

I. 개 요

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배경 및 목적	8
2 202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와 방법	9
가. 작성의 법적 근거	9
나. 작성 방법	11
3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http://gs.jewfri.kr) 소개 및 이용 방법	12
가.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이란?	12
나.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주요 서비스	13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1 인구

가. 성별 인구	22
나. 인구구성	25
다. 출생과 사망	32
라. 인구이동	36

2 가족

가. 가족구성	42
나. 가족형성	50
다. 가족생활	58
라. 가족가치관	59

3 보육

가. 보육현황	66
나. 보육지원	70

7 복지

가. 사회보험	126
나. 공공부조	131
다. 사회복지서비스	133
라. 사회복지인식	139

8 정치와 사회참여

가. 행정참여	144
나. 사회참여	149

9 문화

가. 문화 및 여가활동	154
나. 정보화	159

4 교육

가. 교육기회	74
나. 교육여건	83
다. 교육효과	86

10 안전과 환경

가. 안전인식	164
나. 안전실태	169
다. 환경	176

5 경제활동

가. 경제활동 인구	92
나. 경력단절 여성	94
다. 취업현황	96
라. 근로조건	104
마. 사업체	107

11 시도 비교

6 건강

가. 건강상태	112
나. 건강행태	116
다. 출산, 유병, 사망	120
라. 건강증진서비스	122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

개 요

❶ 성인지 통계 작성의 배경 및 목적

❷ 202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와 방법

❸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http://gs.jewfri.kr>) 소개 및 이용 방법

0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배경 및 목적

- » 성인지 통계(Gender-Sensitive Statistics)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존재하는 차이와 불평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통계를 의미함(UN, 2006)
- » 성인지 통계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와 함께 국가정책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3대 도구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음. 특히 성인지 통계는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항목임(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
- »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기 시작하였음. 「여성통계연보」는 2008년부터 「한국의 성인지통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발간되어 오고 있음(송치선·임연규·박송이, 2020)
- »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제주여성통계연보」 발간을 시작으로 격년으로 성인지 통계집을 발간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를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음
- »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는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를 토대로 기존의 지표 체계와 시계열을 유지하고 최근 생산된 통계를 갱신할 뿐 아니라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수행했음. 그동안 발간해온 책자 형태의 통계 자료집은 많은 정보를 담기에는 제한적이고 활용도에도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제주도민이 주요 성인지 통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여성·가족관련 통계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 향후, 지속적인 성인지 통계자료의 주기적인 수집과 축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과 남성의 현실적 삶에 대한 인식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진단하여, 관련 여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유하고자 함

02 2021 성인지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와 방법¹⁾

가. 작성의 법적 근거

- » 성인지 통계 작성의 법적 근거는 법령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통계법」 및 시행령을 들 수 있으며, 조례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들 수 있음
- »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 전면 개정되면서 제17조에 성인지 통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보급을 의무로서 규정하여 성인지 통계의 생산과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 「성별영향평가법」은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를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 「통계법」에서는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시행령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사항)에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의 사무를 통계책임관의 사무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각종 통계청 승인통계 작성 시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1)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관련 법	관련 조항
「양성평등 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성별영향 평가법」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해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 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양성평등담당관의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담당관 및 양성평등담당의 운영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인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은 성인지 정책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 2. 성인지예산 및 결산 3. 성별분리통계 관리 4.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6조(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공개 등)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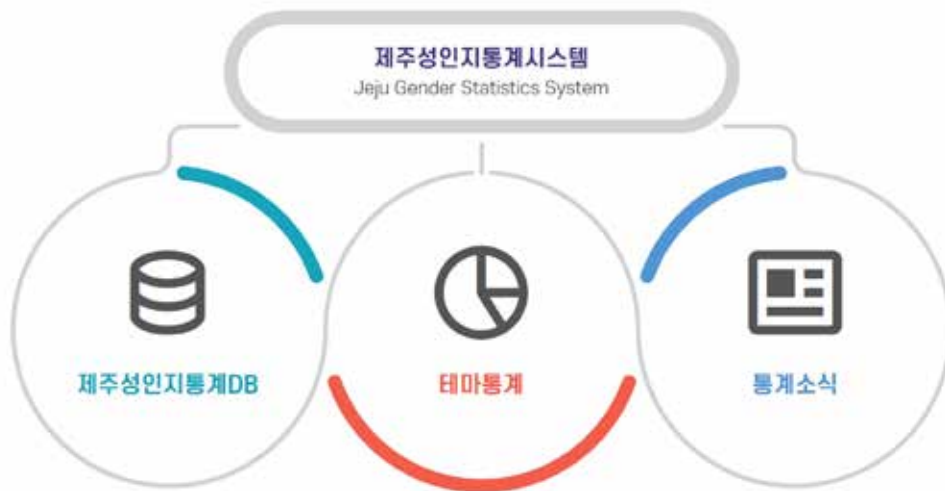
나. 작성 방법

- »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의 지표체계는 성인지 통계자료의 축적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의 지표체계를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고, 변경되거나 중단된 지표의 경우 새로운 지표로 대체하는 수정·보완을 하였음.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지표의 보완과 구성 체계를 확정하였으며, 제주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성평등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했음. 자료원의 한계로 성별 통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재가공하여 성별 통계를 추출하였음
- »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작성기준 연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조사주기가 지표별로 서로 상이하여 모두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가장 최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최근 자료를 정리·수록함. 또한, 시계열 변화 추이를 위해 최근 시점을 중심으로 5년 안팎의 범위에서 자료를 누적하여 구축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장기간의 시계열 변화 추이가 필요한 지표(인구, 출산 등)의 경우에는 시간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축하였음

03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http://gs.jewfri.kr>) 소개 및 이용 방법

가.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이란?

- »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책자 이외의 성인지 통계 보급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 ‘제주성인지 통계시스템’구축 사업을 추진했음
- » 제주지역의 각종 분야별 성별현황을 쉽게 보여주는 통계 시스템으로 제주지역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정보를 제공함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Jeju Gender Statistics System)은 제주성인지통계DB, 테마통계, 통계소식 등 제주 지역의 성인지 통계와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임
 - 현재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은 제주성인지통계DB, 테마통계, 통계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메뉴를 통해 원하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음



나.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주요 서비스

1 통계DB 및 관련 정보 제공: 통계 DB 제공

-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시스템(<http://gsis.kwdi.re.kr>)의 통계 DB를 프레임 링크로 구현하였고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등 10개 영역에 대한 375개의 통계표 제공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성인지통계DB 태마통계 성평등지수 마이크로데이터 알림마당 소개

성인지통계DB

주제별 통계

분류 1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 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분류 2

총연구(A1)

연구구분 및 분류(A2)

연구어항(A3)

출생(A4)

분류 3

총조사 연구 (19/행정안전부/연간조사)

주요정책 연구 (19/20/연간조사)

정책연구 주제 (19/행정안전부/연간조사)

주요정책 연구 (19/20/연간조사)

통계DB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DB (http://gsis.kwdi.re.kr)

2 테마통계: 주요 지표

» 성인지 통계에서 중요한 지표 40개를 선정 지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인구와 가족</p> <p>출생률 초·중·고등학생 인구 연령별 인구 출생률 지표 가구주 가구 1인 가구의 성별 구성 평균 초·중·고등 전반적 가부장제 만족도</p>	 <p>보육과 교육</p> <p>영유아(0~5세) 인구 표준형 돌봄 공동체 현황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 대학교 진학률 여성 학·박사과정 졸업률 현황 초·중·고등학교의 취업률 여성 취업률</p>	 <p>경제활동</p> <p>경제활동참가율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경력단절 여성 규모 여성이 경력단절 사유 연령별 취업자 취업자의 직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사업장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통사자 비율</p>
 <p>건강과 복지</p> <p>가정여명 주관적 건강인지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여성 가입자 비율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수급자 현황 등록 장애인 수</p>	 <p>사회참여와 문화</p> <p>투표율 전국동시지방선거 임후보자 및 당선인 현황 주요부처 여성공무원 현황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인구 천만 1인당 평균 독서량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p>	 <p>안전과 환경</p> <p>범죄예방에 대한 안전 인식 아간보행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 및 경계관수 강박범죄 피해자의 여성 비율 환경재난 인지도 환경오염 방지 노력</p>

- 각 테마는 제목, 설명, 차트, 표, 하단내용(주석, 출처 등) 5개 영역으로 구성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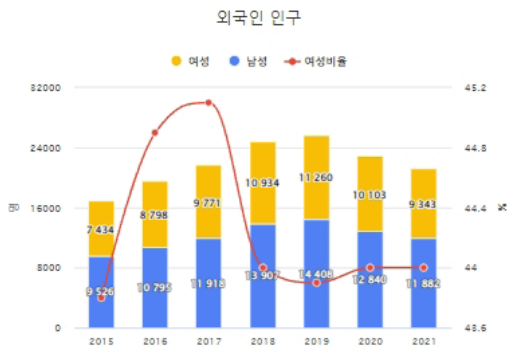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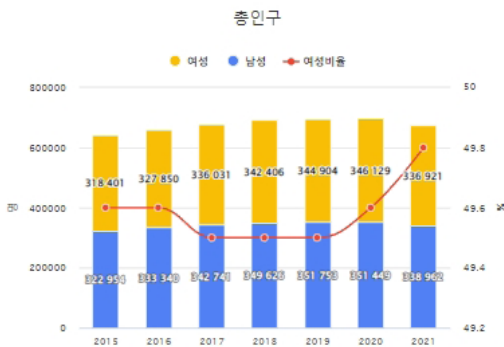
총인구(2015~2021.8)



여성인구 336,921명, 여성비율 50.0%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총인구 중 여성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함

- (2021년 8월 기준) 총인구는 여성 336,921명, 남성 338,962명으로 총 675,883명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은 49.8%를 차지함
-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총인구는 2015년 이후 증가폭이 점차 감소해오다 2021년 8월 총인구는 2020년보다 21,695명 감소함
- 여성인구비율은 2017년 이후 49.5% 수준을 유지하다 2021년 8월 49.8% 수준으로 증가함



단위: 명, %

년도	총인구				외국인 인구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 비율
2015	641,355	318,401	322,954	49.6	16,960	7,434	9,526	43.8
2016	661,190	327,850	333,340	49.6	19,593	8,798	10,795	44.9
2017	678,772	336,031	342,741	49.5	21,689	9,771	11,918	45.1
2018	692,032	342,406	349,626	49.5	24,841	10,934	13,907	44.0
2019	696,657	344,904	351,753	49.5	25,668	11,260	14,408	43.9
2020	697,578	346,129	351,449	49.6	22,943	10,103	12,840	44.0
2021	675,883	336,921	338,962	49.8	21,225	9,343	11,882	44.0

주 : 외국인 포함인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Source :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Population Statistics for Resident Registration

3 성평등지수

» 국가 및 지역 성평등 지수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레임 링크로 구현

성평등지수



성평등지수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배려 및 폭력 없이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항).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평등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임

국가 성평등 지수란 ?

보고서 다운로드

지역 성평등 지수란 ?

보고서 다운로드




국가성평등지수는 2009년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 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으로 구성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임

국가성평등지수 산정근거	▼
국가성평등지수 개발 연혁	▼
국가성평등지수 특징	▼
국가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

지역성평등지수 등급

상위지역 : 광주 대전 부산 제주
중상위지역 : 경기 대구 서울 충북
중하위지역 : 강원 울산 인천 전북
하위지역 : 경남 경북 전남 충남



지역성평등지수는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 개발한 지수로,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 된 값임

지역성평등지수 산정근거	▼
지역성평등지수 개발 연혁	▼
지역성평등지수 특징	▼
지역성평등지수의 지표 구성	▼

4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 제공

- »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에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연구과정에서 산출한 마이크로데이터(원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마이크로데이터 12종 업로드 완료
 - 향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자료의 마이크로데이터가 추가될 예정임
 - 마이크로데이터는 로그인 시 다운로드 가능, 메타데이터는 로그인 여부와 상관없음



▲ 마이크로데이터 12종 업로드



▲ 데이터 이용 목적 정보 수집 화면



▲ 메타데이터



▲ 관련파일(설문지)

5 알림마당: 공지사항, 통계자료, 보고서, 제주여성고용동향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보고서에 수록된 표를 개별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보고서의 통계표를 알림마당 > 통계자료에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원하는 방식으로 재가공 및 편집하여 사용 가능
- 기존 성인지 통계 관련 보고서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
- 월간 제주여성고용동향 'PDF' 파일 형식으로 제공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1

인구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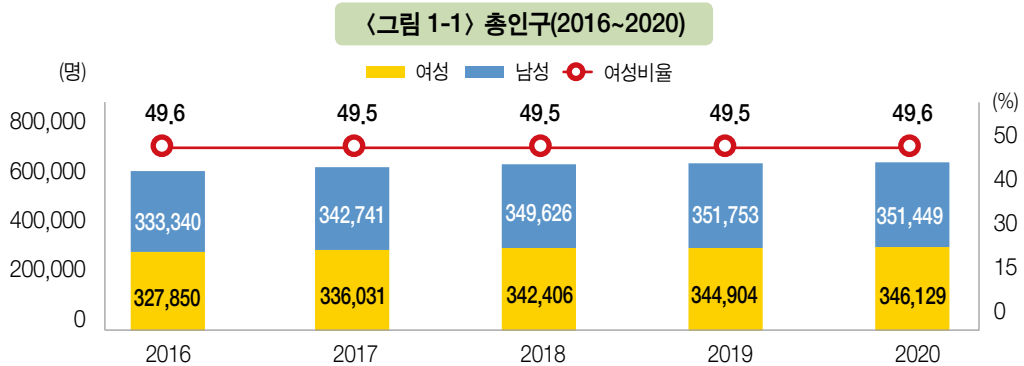
01 인 구 Population

가. 성별 인구

여성인구 346,129명, 여성비율 49.6%, 최근 5년간 인구증가세 약화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의 증가세 약화, 전년보다 총 921명 증가함

- (2020년 기준) 총인구는 여성 346,129명, 남성 351,449명으로 총 697,578명이며, 이 중 여성비율은 49.6%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지난 2016년 대비 여성은 5.6%, 남성은 5.4% 증가하였으나 전년에 비해 여성은 1,225명 증가한 반면 남성은 30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16년 이후 전년대와 비교한 인구증가 폭이 2017년 17,582명, 2018년 13,260명, 2019년 4,625명, 2020년 921명으로 점차 감소하여 인구증가 약세가 두드러짐
- 최근 5년간 총인구 중 여성비율은 49.5%에서 49.6%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0.1%p 증가함



〈표 1-1〉 총인구(2016~2020)

(단위 : 명, %)

구분	총인구				외국인 인구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6	661,190	327,850	333,340	49.6	19,593	8,798	10,795	44.9
2017	678,772	336,031	342,741	49.5	21,689	9,771	11,918	45.1
2018	692,032	342,406	349,626	49.5	24,841	10,934	13,907	44.0
2019	696,657	344,904	351,753	49.5	25,668	11,260	14,408	43.9
2020	697,578	346,129	351,449	49.6	22,943	10,103	12,840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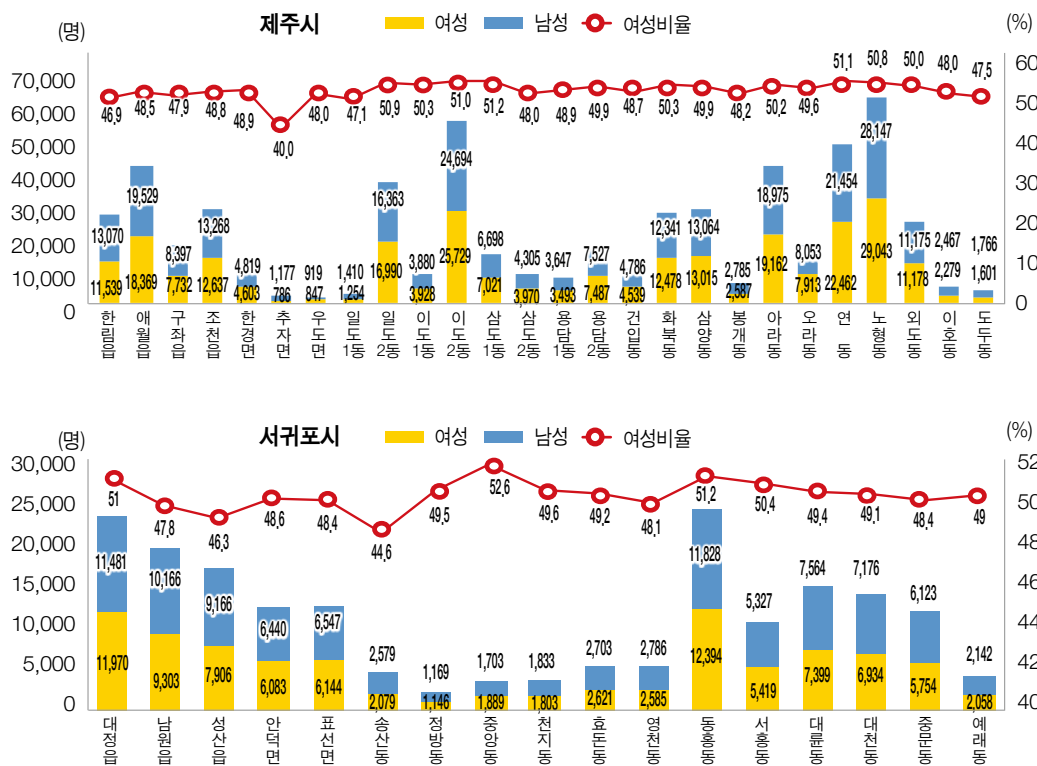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여성인구 제주시 252,642명(49.8%), 서귀포시 93,487명(49.1%)

» 행정시별 총인구는 제주시 507,358명, 서귀포시 190,220명이며, 여성비율은 각각 49.8%, 49.1%로 제주시가 더 높음

- (2020년 기준) 제주시의 읍면동별 인구는 노형동(57,190명), 이도2동(50,423명), 연동(43,916명) 등의 순이며 우도면(1,766명)이 가장 적음. 서귀포시는 동홍동(24,222명), 대정읍(23,451명), 남원읍(19,469명) 등의 순이며 정방동(2,315명)이 가장 적음
-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읍면동은 제주시 9개동(삼도1동 51.2%, 연동 51.1%, 이도2동 51.0%, 일도2동 50.9%, 노형동 50.8%, 이도1동 50.3%, 화북동 50.3%, 아라동 50.2%, 외도동 50.0%), 서귀포시 3개동 1개읍(중앙동 52.6%, 동홍동 51.2%, 서홍동 50.4%, 대정읍 51.0%)임

〈그림 1-2〉 행정시, 읍면동별 총인구(2020)



〈표 1-2〉 행정시, 읍면동별 총인구(2020)

(단위 :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제주시	507,358	252,642	254,716	49.8	서귀포시	190,220	93,487	96,733	49.1
한림읍	24,609	11,539	13,070	46.9	대정읍	23,451	11,970	11,481	51.0
애월읍	37,898	18,369	19,529	48.5	남원읍	19,469	9,303	10,166	47.8
구좌읍	16,129	7,732	8,397	47.9	성산읍	17,072	7,906	9,166	46.3
조천읍	25,905	12,637	13,268	48.8	안덕면	12,523	6,083	6,440	48.6
한경면	9,422	4,603	4,819	48.9	표선면	12,691	6,144	6,547	48.4
추자면	1,963	786	1,177	40.0	송산동	4,658	2,079	2,579	44.6
우도면	1,766	847	919	48.0	정방동	2,315	1,146	1,169	49.5
일도1동	2,664	1,254	1,410	47.1	중앙동	3,592	1,889	1,703	52.6
일도2동	33,353	16,990	16,363	50.9	천지동	3,636	1,803	1,833	49.6
이도1동	7,808	3,928	3,880	50.3	효돈동	5,324	2,621	2,703	49.2
이도2동	50,423	25,729	24,694	51.0	영천동	5,371	2,585	2,786	48.1
삼도1동	13,719	7,021	6,698	51.2	동홍동	24,222	12,394	11,828	51.2
삼도2동	8,275	3,970	4,305	48.0	서홍동	10,746	5,419	5,327	50.4
용담1동	7,140	3,493	3,647	48.9	대륜동	14,963	7,399	7,564	49.4
용담2동	15,014	7,487	7,527	49.9	대천동	14,110	6,934	7,176	49.1
건입동	9,325	4,539	4,786	48.7	중문동	11,877	5,754	6,123	48.4
화북동	24,819	12,478	12,341	50.3	예래동	4,200	2,058	2,142	49.0
삼양동	26,079	13,015	13,064	49.9					
봉개동	5,372	2,587	2,785	48.2					
아라동	38,137	19,162	18,975	50.2					
오라동	15,966	7,913	8,053	49.6					
연동	43,916	22,462	21,454	51.1					
노형동	57,190	29,043	28,147	50.8					
외도동	22,353	11,178	11,175	50.0					
이호동	4,746	2,279	2,467	48.0					
도두동	3,367	1,601	1,766	47.5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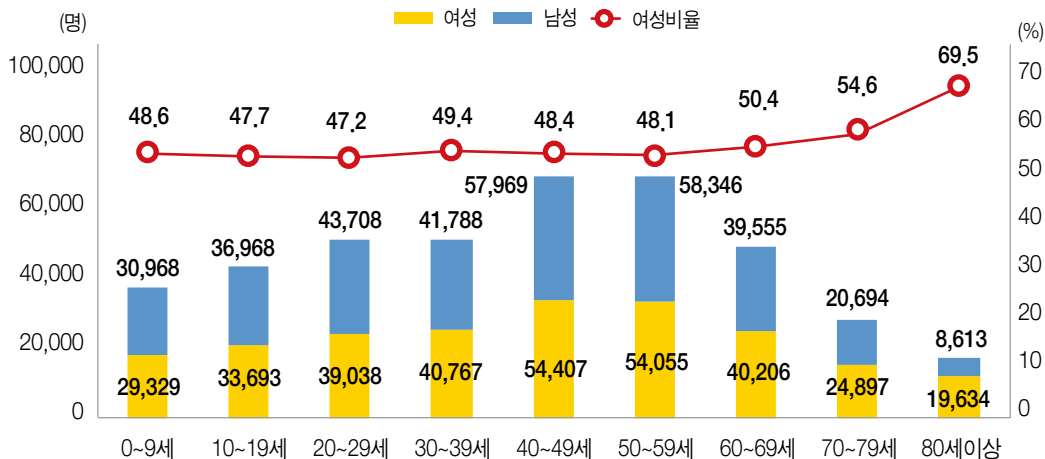
나. 인구구성

50대 인구 최다, 60세 이후 여성비율 증가

» 연령별 인구는 50대가 가장 많고, 60대 이후부터 여성인구가 더 많음

- (2020년 기준) 여성의 연령별 인구는 40대가 54,40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3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50대가 58,34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 2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여성인구 비율은 50대까지는 남성이 더 많고, 연령별 인구가 급감하는 60대 이후부터는 여성이 더 많음

〈그림 1-3〉 연령별 인구(2020)



〈표 1-3〉 연령별 인구(2020)

(단위 : 명, %)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674,635	60,297	70,661	82,746	82,555	112,376	112,401	79,761	45,591	28,247
여성	336,026	29,329	33,693	39,038	40,767	54,407	54,055	40,206	24,897	19,634
남성	338,609	30,968	36,968	43,708	41,788	57,969	58,346	39,555	20,694	8,613
여성비율	49.8	48.6	47.7	47.2	49.4	48.4	48.1	50.4	54.6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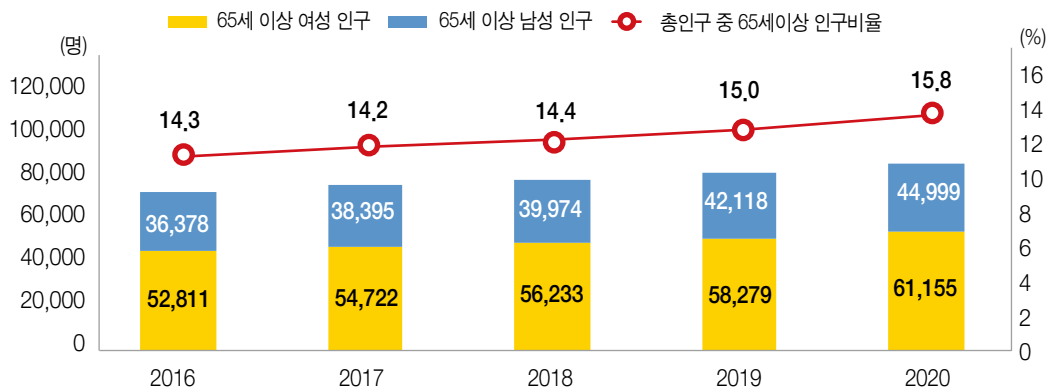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06,154명(15.8%)

» 65세 이상 인구는 106,154명이며 전체 인구의 15.8%임. 6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여전히 더 많지만 남성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6,154명이며 전체 인구의 15.8%임. 65세 이상 인구는 2016년 대비 19.0%(16,965명) 증가함
- (2020년 기준) 2016년 대비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15.8%(8,344명), 남성인구는 23.7%(8,6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여성인구가 더 많지만 최근 남성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65세 이상 인구(2016~2020)



〈표 1-4〉 65세 이상 인구(2016~2020)

(단위 : 명, %)

구 분	총 인 구				65세 이상 인구				총인구 중 65세이상 인구비율		
	전 체	여 성	남 성	여성비율	전 체	여 성	남 성	여성비율	전 체	여 성	남 성
2016	624,395	310,967	313,428	49.8	89,189	52,811	36,378	59.2	14.3	17.0	11.6
2017	656,613	325,708	330,305	49.6	93,117	54,722	38,395	58.8	14.2	16.8	11.6
2018	667,064	331,368	335,696	49.7	96,207	56,233	39,974	58.5	14.4	17.0	11.9
2019	670,989	333,644	337,345	49.7	100,397	58,279	42,118	58.0	15.0	17.5	12.5
2020	671,316	333,973	337,343	49.7	106,154	61,155	44,999	57.6	15.8	18.3	13.3

주 : 외국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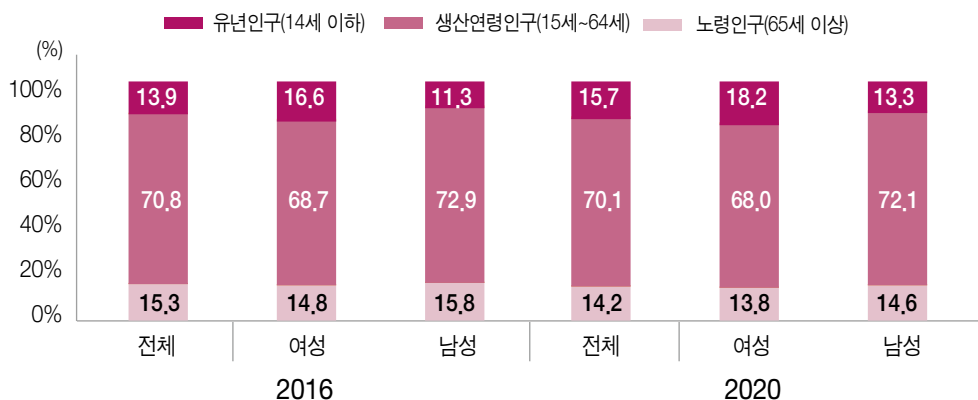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노령인구 15.7%(여성 18.2%, 남성 13.3%)

» 제주사회는 노령인구 15.7%의 고령사회이며, 여성노령인구가 더 많지만 2016년 대비 노령인구 증가율은 남성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총인구 중 유년인구(14세 이하)는 14.2%(95,789명),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0.1%(472,692명), 노령인구(65세 이상)는 15.7%(106,154명)를 구성하고 있음. 이 중 유년인구는 2015년보다 2,328명 감소한 반면 생산연령인구와 노령인구는 각각 18,401명, 16,965명 증가하여 유년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짐
- 노령인구 중 여성은 61,155명, 남성은 44,999명으로 여성이 더 많지만 2016년 대비 노령인구증가율은 여성 15.8%(8,344명), 남성 23.7%(8,621명)로 남성이 더 많이 증가함

〈그림 1-5〉 연령 3계층별 인구(2016, 2020)



〈표 1-5〉 연령 3계층별 인구(2016, 2020)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유년인구(1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	노령인구(65세 이상)
2016	전체	641,597 (100.0)	98,117 (15.3)	454,291 (70.8)	89,189 (13.9)
	여성	319,052 (100.0)	47,098 (14.8)	219,143 (68.7)	52,811 (16.6)
	남성	322,545 (100.0)	51,019 (15.8)	235,148 (72.9)	36,378 (11.3)
2020	전체	674,635 (100.0)	95,789 (14.2)	472,692 (70.1)	106,154 (15.7)
	여성	336,026 (100.0)	46,440 (13.8)	228,431 (68.0)	61,155 (18.2)
	남성	338,609 (100.0)	49,349 (14.6)	244,261 (72.1)	44,999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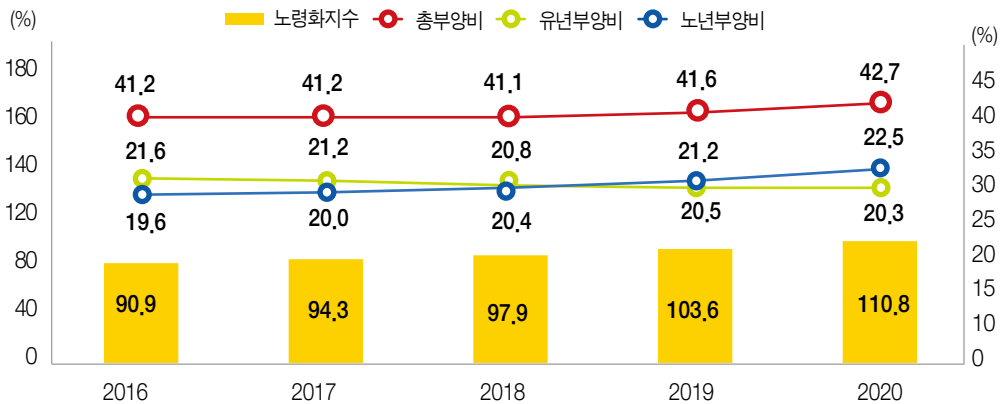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유년부양비 감소, 노년부양비 증가, 노령화지수 110.8%

»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의 여파로 유년부양비는 감소하고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연령3계층에 따른 부양비를 살펴보면, 총부양비는 42.7%, 유년부양비 20.3%, 노년부양비 22.5%이며, 노령화지수는 110.8%임
- 출산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의 여파로 지난 2016년보다 유년부양비는 1.3%p 감소한 반면 노년부양비는 2.9%p 증가하여 총부양비는 1.5%p 증가함. 노령화지수는 2016년 90.9%, 2020년 110.8%로 19.9%p 증가함

〈그림 1-6〉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6~2020)



〈표 1-6〉 연령 3계층별 인구비율,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6~2020)

(단위 : 명, %)

구분	계	유년인구 (1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15~64세)	노령인구 (65세 이상)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2016	641,597	98,117	454,291	89,189	41.2	21.6	19.6	90.9
2017	657,083	98,727	465,239	93,117	41.2	21.2	20.0	94.3
2018	667,191	98,261	472,723	96,207	41.1	20.8	20.4	97.9
2019	670,989	96,889	473,703	100,397	41.6	20.5	21.2	103.6
2020	674,635	95,789	472,692	106,154	42.7	20.3	22.5	1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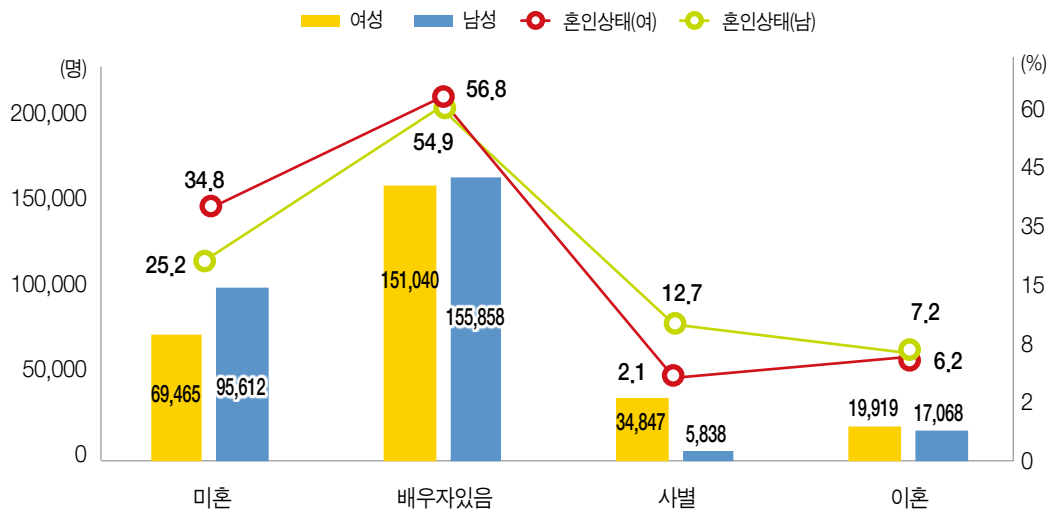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등록인구통계」

유배우자 55.8%(여성 54.9%, 남성 56.8%)

»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5.8%로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혼인상태별 구성은 배우자 있음 55.8%, 미혼 30.0%, 사별 7.4%, 이혼 6.7% 순임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여성 54.9%, 남성 56.8%로 남성이 1.9%p 더 높고, 미혼은 여성 25.2%, 남성 34.8%로 남성이 9.6%p 더 높음. 사별은 여성 12.7%, 남성 2.1%로 여성이 10.6%p 더 높고, 이혼은 여성 7.2%, 남성 6.2%로 여성이 1.0%p 더 높음

〈그림 1-7〉 혼인상태별 인구(2020)



〈표 1-7〉 혼인상태별 인구(2020)

(단위 : 명,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전체	275,271 (100.0)	274,376 (100.0)	549,647 (100.0)
미혼	69,465 (25.2)	95,612 (34.8)	165,077 (30.0)
배우자있음	151,040 (54.9)	155,858 (56.8)	306,898 (55.8)
사별	34,847 (12.7)	5,838 (2.1)	40,685 (7.4)
이혼	19,919 (7.2)	17,068 (6.2)	36,98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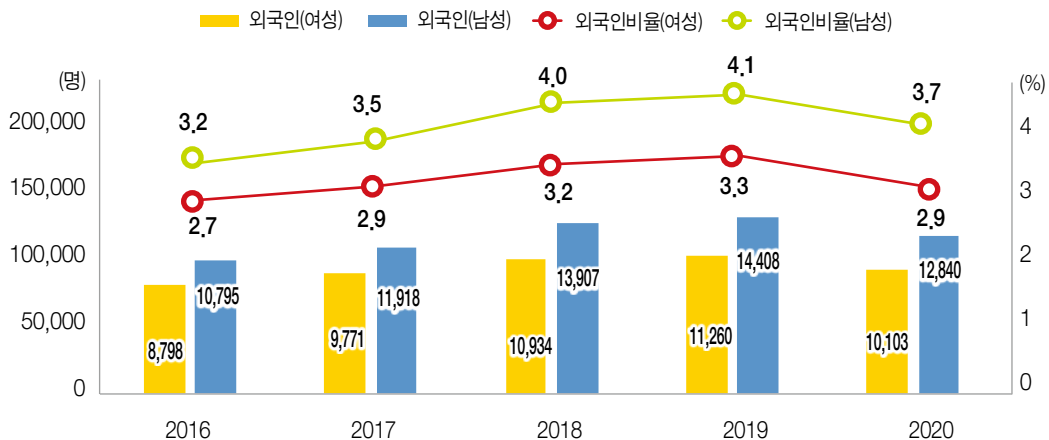
주 : 15세 이상 대상이며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표본부분)

외국인 비율 3.3%(여성 2.9%, 남성 3.7%)

»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외국인 인구는 2019년에 들어 감소함

- (2020년 기준) 외국인 인구는 여성 10,103명, 남성 12,840명으로 총 22,943명임. 외국인 인구는 총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 여성인구는 매년 남성보다 적음
- 외국인 인구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여성은 14.8%(1,305명), 남성은 18.9%(2,045명) 증가하였지만 전년보다 여성은 1,157명, 남성은 1,568명 감소함
- 총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2016년 3.0%에서 2019년 3.7%까지 증가하였으나 2020년 3.3%로 감소함

〈그림 1-8〉 외국인 인구 및 비율(2016~2020)



〈표 1-8〉 외국인 인구 및 비율(2016~2020)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계	외국인 인구	비율	계	외국인 인구	비율	계	외국인 인구	비율
2016	661,190	19,593	3.0	327,850	8,798	2.7	333,340	10,795	3.2
2017	678,772	21,689	3.2	336,031	9,771	2.9	342,741	11,918	3.5
2018	692,032	24,841	3.6	342,406	10,934	3.2	349,626	13,907	4.0
2019	696,657	25,668	3.7	344,904	11,260	3.3	351,753	14,408	4.1
2020	697,578	22,943	3.3	346,129	10,103	2.9	351,449	12,84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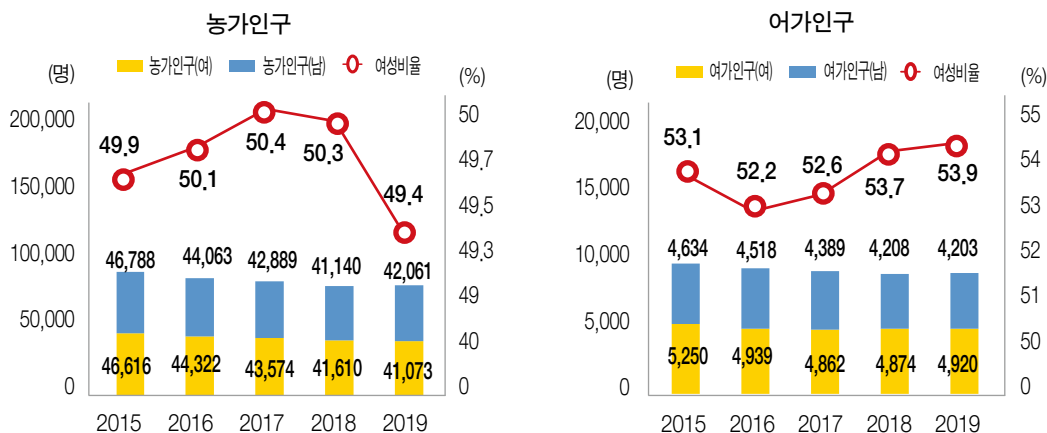
주 :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을 나타낸 수치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현황」

농가인구 여성 41,073명(49.4%), 어가인구 여성 4,920명(53.9%)

» 최근 5년간 감소하던 농가 및 어가 인구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여성비율은 어가에서 더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농가인구는 여성 41,073명, 남성 42,061명으로 총 83,134명이며 여성비율은 49.4%임. 어가인구는 여성 4,920명, 남성 4,203명으로 총 9,123명이며 여성비율은 53.9%임
- 2015년 대비 농가인구는 11.0%(10,270명) 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7.7%(761명) 감소함. 지난 2018년보다 농가인구는 384명, 어가인구는 41명 증가하여 2015년 이후 감소하던 농가 및 어가인구가 소폭 상승함
- (2019년 기준) 농가인구 중 여성인구는 남성보다 988명 더 적고 여성비율은 2018년보다 0.9%p 감소함. 어가인구 중 여성인구는 남성보다 717명 더 많으며 여성비율은 2018년보다 0.2%p 증가함

〈그림 1-9〉 농가 및 어가 인구(2015~2019)



〈표 1-9〉 농가 및 어가 인구(2015~2019)

(단위 : 명, %)

구분	농가인구			어가인구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5	46,616	46,788	49.9	5,250	4,634	53.1
2016	44,322	44,063	50.1	4,939	4,518	52.2
2017	43,574	42,889	50.4	4,862	4,389	52.6
2018	41,610	41,140	50.3	4,874	4,208	53.7
2019	41,073	42,061	49.4	4,920	4,203	53.9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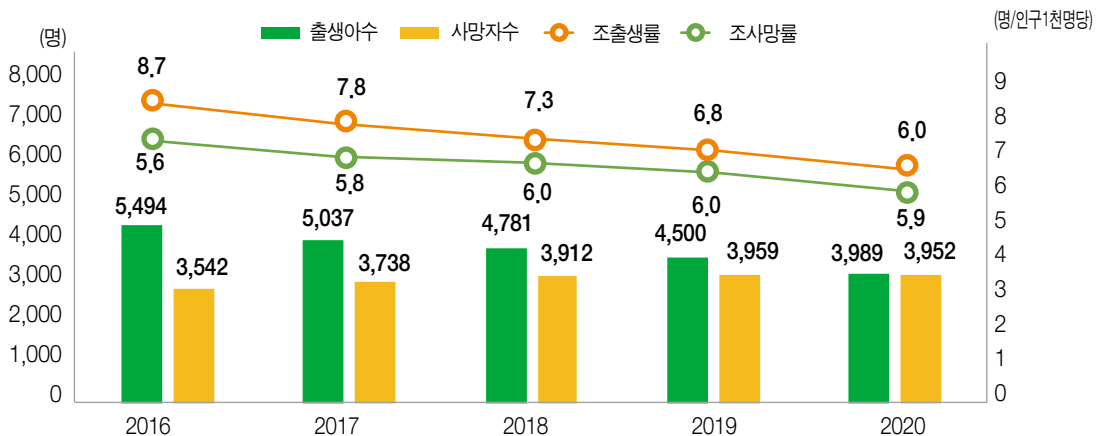
다. 출생과 사망

인구 1천명당 조출생률 6명, 조사망률 5.9명

»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감소함

- (2020년 기준) 출생아 수는 3,989명으로 2016년 대비 27.4%(15,05명) 감소하였으며 전년보다 511명이 감소함. 조출생률은 인구 1천명당 6.0명으로 8.7명이었던 지난 2016년보다 2.7명 감소하였고 전년보다는 0.8명 감소함
- 사망자수는 3,952명으로 2016년 대비 11.6%(410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보다는 7명 감소함. 조사망률은 인구 1천명당 5.9명으로 5.6명이었던 지난 2016년보다 0.3명 증가하였고 전년보다는 0.1명 감소함

〈그림 1-10〉 출생과 사망(2016~2020)



〈표 1-10〉 출생과 사망(2016~2020)

(단위 : 명, 명/인구 1천명당)

구분	출생아수	조출생률	사망자수	조사망률
2016	5,494	8.7	3,542	5.6
2017	5,037	7.8	3,738	5.8
2018	4,781	7.3	3,912	6.0
2019	4,500	6.8	3,959	6.0
2020	3,989	6.0	3,952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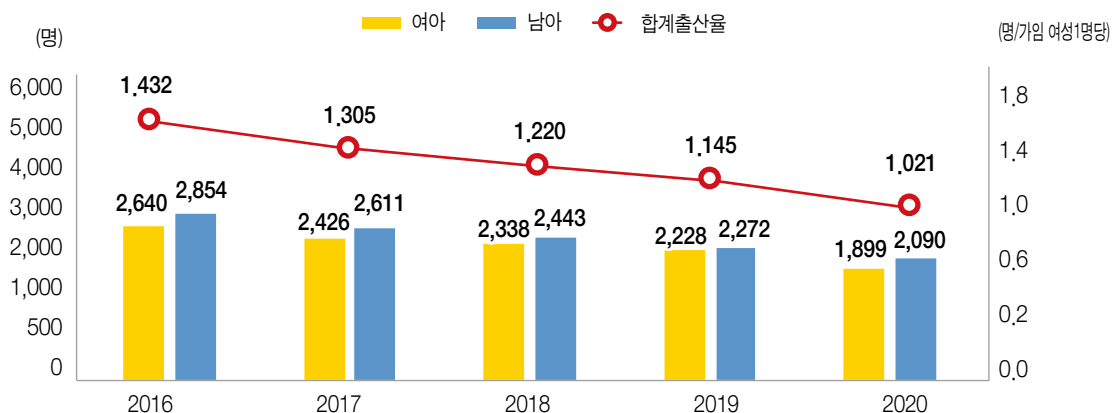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동향조사」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합계출산율 1.021명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남초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출생아수는 여아 1,899명, 남아 2,090명으로 남아가 191명 더 많음. 출생아수는 지난 2016년 대비 여아는 28.1%(741명) 감소, 남아는 26.8%(764명) 감소하여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021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0.411명 감소하였으며 전년보다 0.124명 감소함
- 최근 5년간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비 역시 남아수가 역시 많아 남초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1-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6~2020)



〈표 1-1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6~2020)

(단위 : 명, 명/가임여성 1명당)

구분	계	여아	남아	합계출산율
2016	5,494	2,640	2,854	1.432
2017	5,037	2,426	2,611	1.305
2018	4,781	2,338	2,443	1.220
2019	4,500	2,228	2,272	1.145
2020	3,989	1,899	2,090	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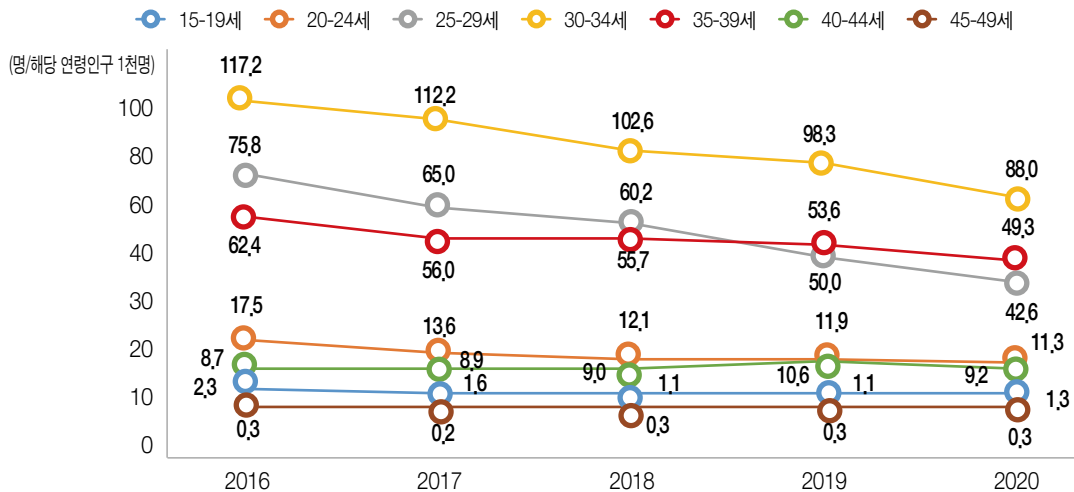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0대 초반 출산율 최다(1천명당 88.0명)

» 30대 초반 출산율이 가장 높고 최근 5년간 20대 후반의 출산율 감소가 가장 큼

- (2020년 기준)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34세가 88.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5~39세가 49.3명, 25~29세가 4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30~34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 25~29세 출산율은 2018년까지는 30~34세에 이어 가장 높았지만 2019년부터는 35~39세보다 낮아짐. 특히 25~29세 출산율은 2016년보다 33.2명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 구간임
- 최근 5년간 40세 미만 출산율이 감소한데 비해 40~44세는 0.5명 증가함

〈그림 1-12〉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6~2020)



〈표 1-12〉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6~2020)

(단위 : 명/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구분	모의 연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6	2.3	17.5	75.8	117.2	62.4	8.7	0.3
2017	1.6	13.6	65.0	112.2	56.0	8.9	0.2
2018	1.1	12.1	60.2	102.6	55.7	9.0	0.3
2019	1.1	11.9	50.0	98.3	53.6	10.6	0.3
2020	1.3	11.3	42.6	88.0	49.3	9.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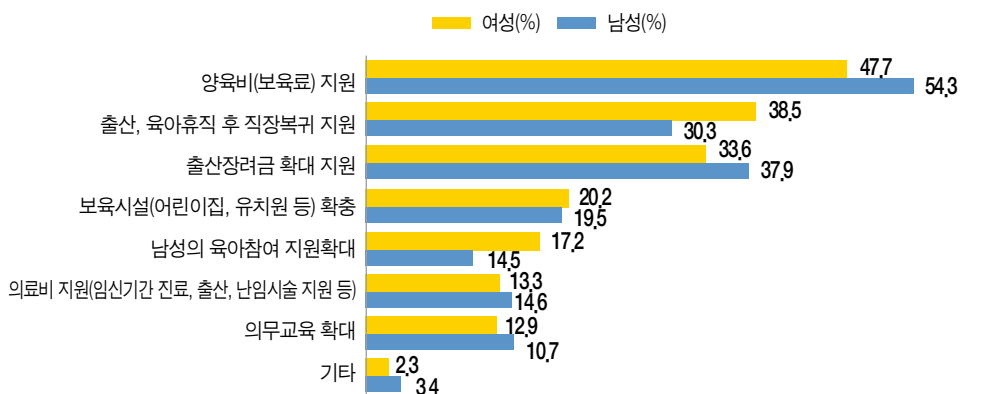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51.0%(여성 47.7%, 남성 54.3%)

»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요는 양육비(보육료) 지원이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요는 양육비(보육료) 지원 51.0%,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5.8%, 출산·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34.4%,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확충 19.9% 등의 순으로 양육비(보육료)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음
- 양육비(보육료) 지원 수요는 여성 47.7%, 남성 54.3%로 남성이 6.6%p 더 높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여성 33.6%, 남성 37.9%로 남성이 4.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출산·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은 여성 38.5%, 남성 30.3%로 여성이 8.2%p 더 높음. 그 밖에 여성 수요가 더 높은 정책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확충(0.7%p)과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확대(6.5%p)로 나타남

〈그림 1-13〉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요(2020)



〈표 1-13〉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요(2020)

(단위 : %)

구 분	1순위+2순위		
	전체	여성	남성
양육비(보육료) 지원	51.0	47.7	54.3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35.8	33.6	37.9
출산,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	34.4	38.5	30.3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확충	19.9	20.2	19.5
의료비 지원(임신기간 진료, 출산, 난임시술 지원 등)	13.9	13.3	14.5
의무교육 확대	13.7	12.9	14.6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확대	13.9	17.2	10.7
기타	2.8	2.3	3.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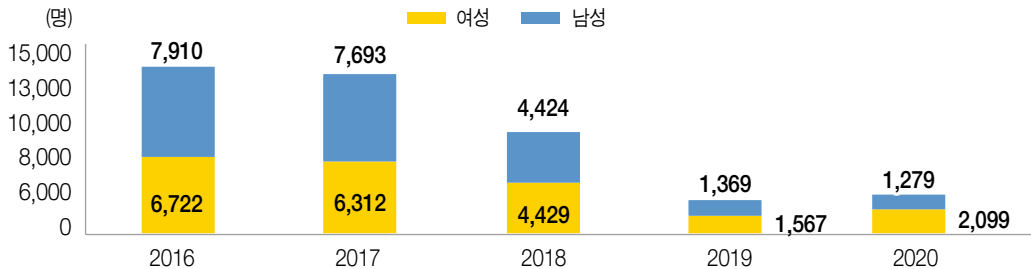
라. 인구이동

감소하던 순이동인구가 전년보다 442명 증가

» 제주특별자치도의 순이동 인구는 2016년 대비 76.9%(11,254명) 감소하였으나 전년 보다 소폭 증가함

- (2020년 기준) 순이동 인구는 3,378명(여성 2,099명, 남성 1,279명)이며, 2016년 대비 76.9%(11,254명) 감소함. 성별로는 여성이 68.8%(4,623명), 남성이 83.8%(6,631명) 감소하여 남성이 더 많이 감소함
- 다만 전년보다 2017년에는 627명, 2018년에는 5,152명, 2019년에는 5,917명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보다 422명 증가(여성 532명 증가, 남성 90명 감소)함

〈그림 1-14〉 순이동 인구(2016~2020)



〈표 1-14〉 순이동 인구(2016~2020)

(단위 : 명)

구분	성별	전체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시군구내	시군구간 전입	시군구간 전출	전입	전출	
2016	계	106,825	92,193	57,293	9,151	9,151	40,381	25,749	14,632
	여성	51,773	45,051	28,512	4,472	4,472	18,789	12,067	6,722
	남성	55,052	47,142	28,781	4,679	4,679	21,592	13,682	7,910
2017	계	105,027	91,022	53,590	9,685	9,685	41,752	27,747	14,005
	여성	50,299	43,987	26,360	4,660	4,660	19,279	12,967	6,312
	남성	54,728	47,035	27,230	5,025	5,025	22,473	14,780	7,693
2018	계	104,202	95,349	55,390	9,623	9,623	39,189	30,336	8,853
	여성	50,679	46,250	27,386	4,645	4,645	18,648	14,219	4,429
	남성	53,523	49,099	28,004	4,978	4,978	20,541	16,117	4,424
2019	계	94,966	92,030	50,739	9,069	9,069	35,158	32,222	2,936
	여성	45,842	44,275	24,698	4,293	4,293	16,851	15,284	1,567
	남성	49,124	47,755	26,041	4,776	4,776	18,307	16,938	1,369
2020	계	98,114	94,736	52,035	9,363	9,363	36,716	33,338	3,378
	여성	48,141	46,042	25,600	4,489	4,489	18,052	15,953	2,099
	남성	49,973	48,694	26,435	4,874	4,874	18,664	17,385	1,279

주 : 순이동 = 총 전입인구 - 총 전출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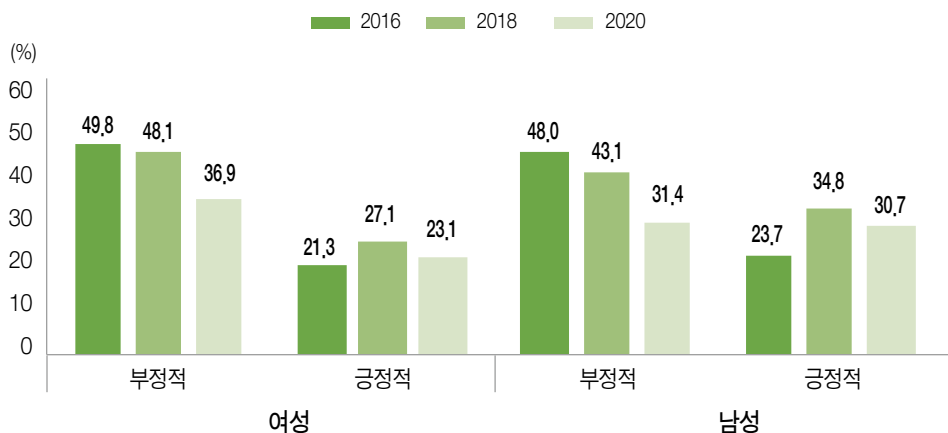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20년 기준) 여성의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36.9%, 긍정적 23.1%로 부정적 인식이 더 높고, 남성 역시 부정적 31.4%, 긍정적 30.7%로 부정적 인식이 조금 더 높음
-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18년보다 여성은 11.2%p, 남성은 11.7%p 감소하였으나 긍정적 인식도 여성 4.0%p, 남성 4.1%p 감소함. 다만 부정적 인식의 감소폭이 더 크고 2016년보다 부정적 인식은 여성 12.9%p, 남성 16.6%p 감소하는 한 반면 긍정적 인식은 여성 1.8%p, 남성 7.0%p 증가하여 부정적 인식이 더 많이 감소함

〈그림 1-15〉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2016~2020)



〈표 1-15〉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2016~2020)

(단위 : 명, %)

구분	여성			남성		
	부정적	보통	긍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2016	49.8	28.9	21.3	48.0	28.3	23.7
2018	48.1	24.8	27.1	43.1	22.1	34.8
2020	36.9	40.0	23.1	31.4	37.9	30.7

주 : 1) 이주민은 국내/국외로부터의 이주자를 모두 포함함

2) 부정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과 '약간 부정적' 응답률의 합이며, 긍정적 인식은 '다소 긍정적'과 '매우 긍정적'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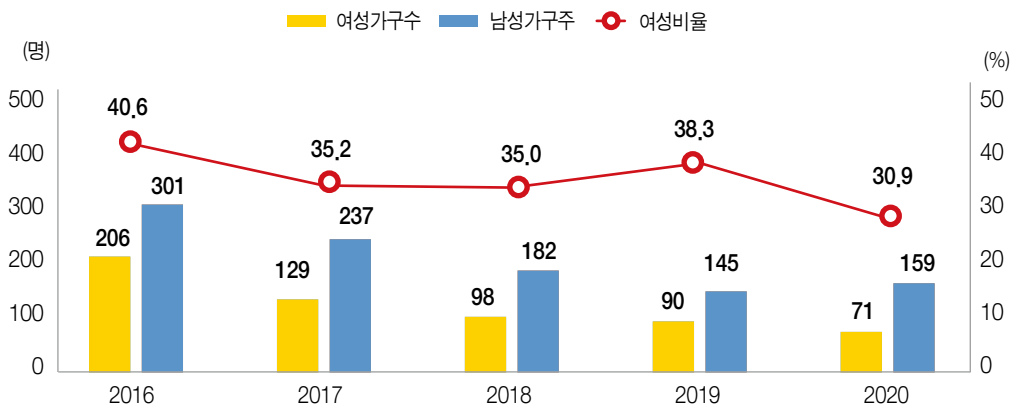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여성 귀농가구의 지속적 감소

» 최근 5년간 귀농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특히 여성가가구 감소폭이 더 큼

- (2020년 기준) 전체 귀농가구 중 여성가가구 71명, 남성가가구는 159명으로 여성이 88명 더 적고, 여성가가구 비율은 30.9%임
- 최근 5년간 귀농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대비 여성가가구는 65.5%(135명), 남성가가구는 47.2%(142명) 감소하여 여성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2020년 기준) 귀농가구 중 여성가가구 비율은 30.9%로 2016년보다 9.7%p 감소하였으며, 전년보다 7.4%p 감소함

〈그림 1-16〉 가구주의 성별 귀농가구(2016~2020)



〈표 1-16〉 가구주의 성별 귀농가구(2016~2020)

(단위 : 명, %)

성별	계	여성가가구	남성가가구	여성가가구 비율
2016	507	206	301	40.6
2017	366	129	237	35.2
2018	280	98	182	35.0
2019	235	90	145	38.3
2020	230	71	159	30.9

자료 : 통계청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귀농어 · 귀촌인통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2

가족 Family

02 가족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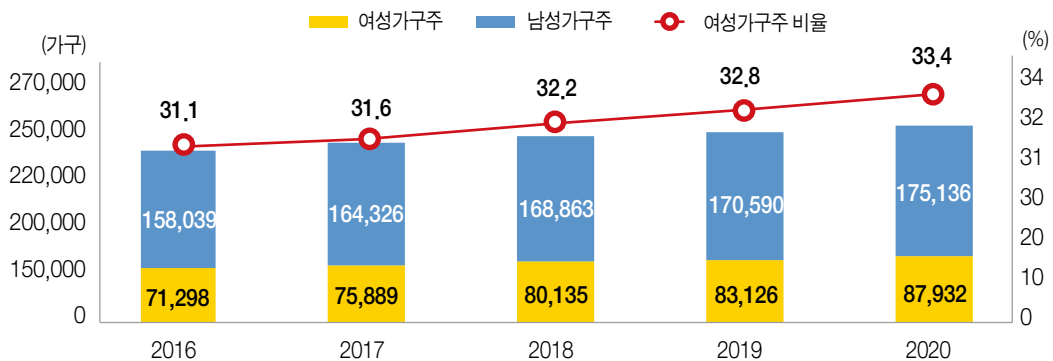
가. 가족구성

여성가구주 87,932가구(33.4%)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총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비율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총 263,068가구 중 여성가구주 87,932가구, 남성가구주 175,136가구로 이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33.4%임
- 2016년 대비 총가구는 14.7%(33,731가구) 증가함. 이 중 여성가구주 가구는 23.3%(16,634가구), 남성가구주는 10.8%(17,097가구) 증가하여 여성가구주 비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
- 여전히 남성가구주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최근 5년간 여성가구주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31.1%에서 2020년 33.4%로 2.3%p 증가함

〈그림 2-1〉 가구주 가구(2016~2020)



〈표 2-1〉 가구주 가구(2016~2020)

(단위 : 가구, %)

구 분	총 가구 수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비율
2016	229,337	71,298	158,039	31.1
2017	240,215	75,889	164,326	31.6
2018	248,998	80,135	168,863	32.2
2019	253,716	83,126	170,590	32.8
2020	263,068	87,932	175,136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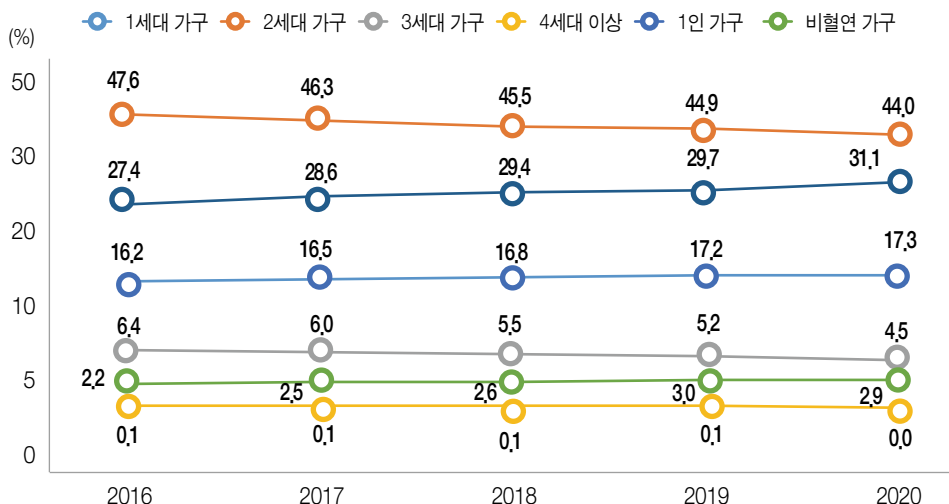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최근 5년간 2세대 가구의 구성비율 감소

» 최근 5년간 2세대 가구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구성비율은 감소하였으며,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 비혈연 가구의 규모 및 구성비율이 증가함

- (2020년 기준) 가구 구성비율은 2세대 44.0%(115,864가구), 1인 31.1%(81,855가구), 1세대 17.3%(45,581가구), 3세대 4.5%(11,930가구), 비혈연 2.9%(7,714가구), 4세대 이상 0.0%(124가구) 순으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음
- 2세대 가구는 2016년 대비 가구 규모는 6.1%(6,646가구)가 증가하였으나 구성비율은 2016년보다 3.6%p 감소함. 지난 2016년과 비교하여 가구규모 및 구성비율이 모두 증가한 유형은 1인, 1세대, 비혈연 가구임. 특히 1인 가구는 2016년 대비 30.3%(19,014가구) 증가하였으며 구성비율은 3.7%p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세대구성별 가구(2016~2020)



〈표 2-2〉 세대구성별 가구(2016~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가구수	229,337 (100.0)	240,215 (100.0)	248,998 (100.0)	253,716 (100.0)	263,068 (100.0)
1세대 가구	37,237 (16.2)	39,617 (16.5)	41,831 (16.8)	43,641 (17.2)	45,581 (17.3)
2세대 가구	109,218 (47.6)	111,180 (46.3)	113,343 (45.5)	113,828 (44.9)	115,864 (44.0)
3세대 가구	14,710 (6.4)	14,389 (6.0)	13,787 (5.5)	13,163 (5.2)	11,930 (4.5)
4세대 이상	230 (0.1)	216 (0.1)	199 (0.1)	173 (0.1)	124 (0.0)
1인 가구	62,841 (27.4)	68,738 (28.6)	73,250 (29.4)	75,353 (29.7)	81,855 (31.1)
비혈연 가구	5,101 (2.2)	6,075 (2.5)	6,588 (2.6)	7,558 (3.0)	7,71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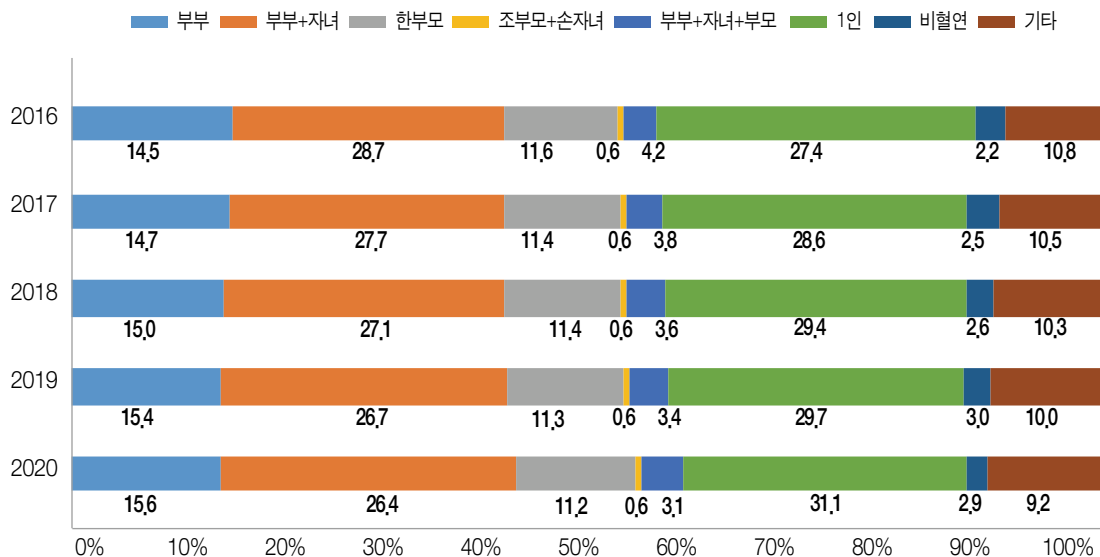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류적 형태로 자리잡은 1인 가구

» 1인 가구가 주류적 형태로 부상한 가운데 부부, 비혈연 가구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2020년 기준) 1인 가구 31.1%, 부부+자녀 가구 26.4%, 부부 가구 15.6%, 한부모 가구 11.2% 등의 순으로 1인 가구형태가 주류적 형태로 부상함
- (2020년 기준) 2016년 대비 비혈연 가구는 51.2%(2,613가구), 구성비율은 0.7%p 증가하였으며, 1인 가구는 30.3%(19,014가구), 구성비율은 3.7%p 증가, 부부 가구는 23.2%(7,727가구), 구성비율은 1.1%p 증가함. 반면 부부+자녀 형태는 규모면에서 2016년 대비 5.6%(3,665가구) 증가한 반면 구성비율은 2.3%p 감소함
- 최근 5년간 1인 가구를 비롯하여 비혈연, 부부 가구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그림 2-3〉 가족형태별 가구(2016~2020)



〈표 2-3〉 가족형태별 가구(2016~2020)

(단위 : 가구,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계	229,337	100.0	240,215	100.0	248,998	100.0	253,716	100.0	263,068	100.0
부부 가구	33,259	14.5	35,430	14.7	37,407	15.0	39,122	15.4	40,986	15.6
부부 +자녀 가구	65,758	28.7	66,531	27.7	67,466	27.1	67,719	26.7	69,423	26.4
한부모 가구	26,709	11.6	27,426	11.4	28,280	11.4	28,589	11.3	29,437	11.2
모+자녀	19,031	8.3	19,583	8.2	20,269	8.1	20,621	8.1	21,472	8.2
부+자녀	7,678	3.3	7,843	3.3	8,011	3.2	7,968	3.1	7,965	3.0
조부모 +손자녀 가구	1,381	0.6	1,399	0.6	1,440	0.6	1,441	0.6	1,492	0.6
부부+부모 가구	1,796	0.8	1,785	0.7	1,845	0.7	1,785	0.7	1,849	0.7
부부+자녀 +부모 가구	7,712	3.4	7,565	3.1	7,111	2.9	6,736	2.7	6,224	2.4
1인 가구	62,841	27.4	68,738	28.6	73,250	29.4	75,353	29.7	81,855	31.1
비혈연 가구	5,101	2.2	6,075	2.5	6,588	2.6	7,558	3.0	7,714	2.9
기타 가구	24,780	10.8	25,266	10.5	25,611	10.3	25,413	10.0	24,088	9.2

주 : 부모에는 양친 또는 편부모만 있는 경우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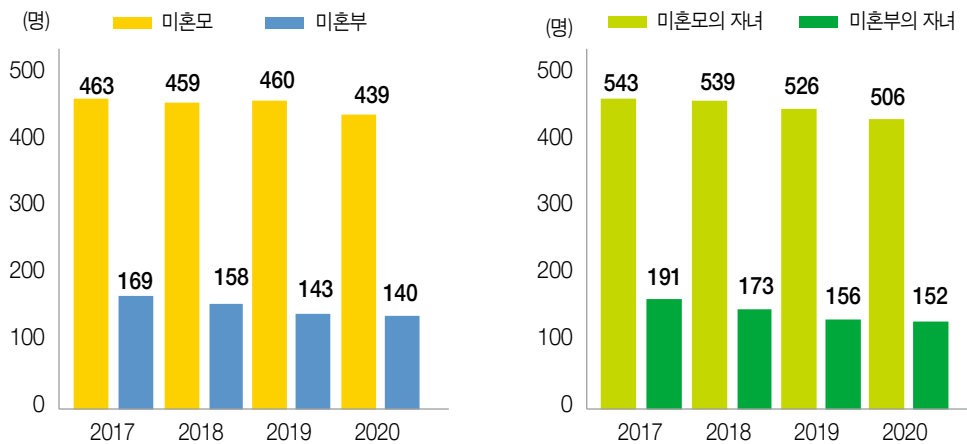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미혼모 439명(75.8%), 미혼부 140명(24.2%)

» 전체 미혼 부·모 중 미혼모 75.8%, 미혼모 자녀 비율은 76.9%임

- (2020년 기준) 미혼모 439명, 미혼부 140명이며, 미혼모의 자녀는 506명, 미혼부의 자녀는 152명임. 전체 미혼 부·모 중 미혼모의 비율이 75.8%로 미혼부보다 299명 더 많고, 전체 미혼 부·모의 자녀 중 미혼모 자녀의 비율이 76.9%로 미혼부의 자녀보다 354명 더 많음
- 최근 4년간 미혼 부·모 및 그 자녀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미혼모와 미혼모의 자녀 비율은 여전히 높음. 다만 미혼부와 미혼부의 자녀도 비율도 25% 전후로 적지 않으므로 미혼가정 정책지원 중 미혼부의 정책수요도 고려되어야 함

〈그림 2-4〉 미혼모 · 미혼부 및 미혼모 · 미혼부의 자녀(2017~2020)



〈표 2-4〉 미혼부모 및 미혼부모의 자녀(2017~2020)

(단위 :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미혼모	463	459	460	439
미혼부	169	158	143	140
미혼모의 자녀	543	539	526	506
미혼부의 자녀	191	173	156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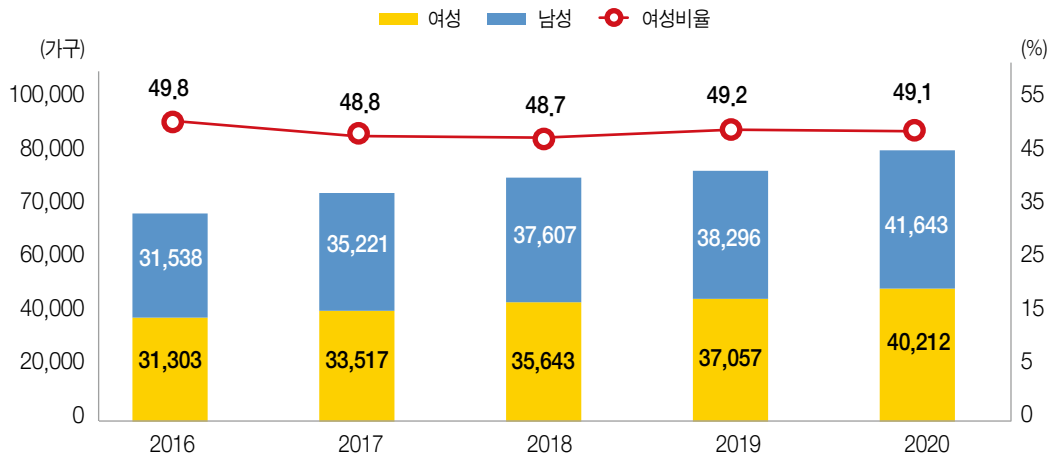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여성 1인 가구 40,212가구(49.1%)

»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있으며, 그 중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함

- (2020년 기준) 총 1인 가구는 81,855가구이며, 이 중 여성 40,212가구, 남성 41,643가구로 여성 1인 가구가 1,431가구 더 적고 전체 1인 가구의 49.1%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대비 전체 1인 가구가 30.3%(19,014가구) 증가함. 이 중 여성은 28.5%(8,909가구), 남성은 32.0%(10,105가구) 증가하여 남성 1인 가구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남성 1인 가구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5〉 성별 1인 가구(2016~2020)



〈표 2-5〉 성별 1인 가구(2016~2020)

(단위 : 가구,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2016	62,841 (100.0)	31,303 (49.8)	31,538 (50.2)
2017	68,738 (100.0)	33,517 (48.8)	35,221 (51.2)
2018	73,250 (100.0)	35,643 (48.7)	37,607 (51.3)
2019	75,353 (100.0)	37,057 (49.2)	38,296 (50.8)
2020	81,855 (100.0)	40,212 (49.1)	41,643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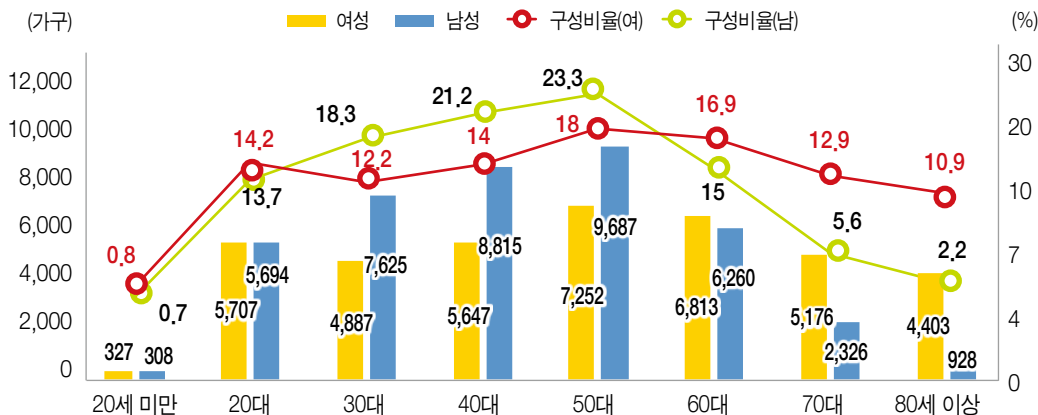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남녀 모두 50대 1인 가구 최다

» 연령별 1인 가구는 남녀 모두 50대의 규모 및 구성비율이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여성 1인 가구는 50대 18.0%(7,252가구), 60대 16.9%(6,813가구), 20대 14.2%(5,707가구), 40대 14.0%(5,647가구) 등의 순이었고, 남성 1인 가구는 50대 23.3%(9,687가구), 40대 21.2%(8,815가구), 30대 18.3%(7,625가구), 60대 15.0%(6,260가구)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50대가 가장 많음. 다만 여성은 50대 > 60대 > 40대 순으로 구성비율이 높는데 비해 남성은 50대 > 40대 > 30대 순으로 구성비율이 높음
- 연령별 1인 가구 중 30대에서 50대는 남성 1인 가구가 더 많은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음

〈그림 2-6〉 연령별 1인 가구(2020)



〈표 2-6〉 연령별 1인 가구(2020)

(단위 : 가구, %)

구분	1인 가구	여성	남성
계	81,855 100.0	40,212 (100.0)	41,643 100.0
20세 미만	635 (0.8)	327 (0.8)	308 (0.7)
20대	11,401 (13.9)	5,707 (14.2)	5,694 (13.7)
30대	12,512 (15.3)	4,887 (12.2)	7,625 (18.3)
40대	14,462 (17.7)	5,647 (14.0)	8,815 (21.2)
50대	16,939 (20.7)	7,252 (18.0)	9,687 (23.3)
60대	13,073 (16.0)	6,813 (16.9)	6,260 (15.0)
70대	7,502 (9.2)	5,176 (12.9)	2,326 (5.6)
80세 이상	5,331 (6.5)	4,403 (10.9)	928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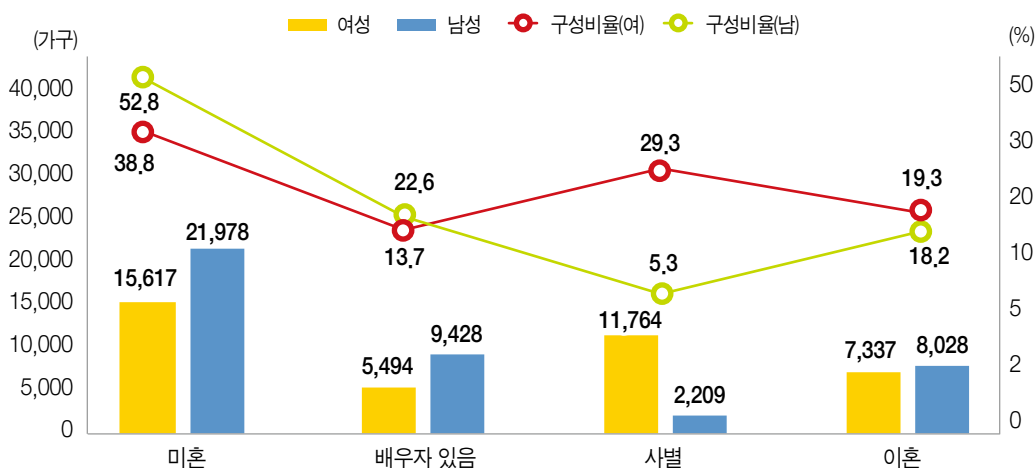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남녀 모두 미혼 1인 가구 최다, 사별 1인 가구비율이 높은 여성(29.3%)

» 남녀 모두 미혼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며, 사별 1인 가구만 여성이 더 많고 나머지 유형은 남성이 더 많음

- (2020년 기준) 혼인상태별 여성 1인 가구는 미혼 38.8%, 사별 29.3%, 이혼 18.2%, 배우자 있음 13.7% 순이고 남성은 미혼 52.8%, 배우자 있음 22.6%, 이혼 19.3%, 사별 5.3% 순으로 남녀 모두 미혼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음
- 성별차이가 가장 큰 혼인상태 유형은 사별임. 사별 1인 가구는 여성이 24.0%p(9,555가구) 더 많았는데 앞서 여성의 고령 1인 가구 구성비율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고령에 따른 배우자 사별의 영향으로 파악됨. 그밖에 유형(미혼, 배우자 있음, 이혼)은 모두 남성이 더 많음. 미혼은 남성이 14.0%p(6,361명), 배우자 있음 8.9%p(3,934가구), 이혼 1.1%p(691가구) 더 많음

〈그림 2-7〉 혼인상태별 1인 가구(2020)



〈표 2-7〉 혼인상태별 1인 가구(2020)

(단위 : 건, 건/인구 1천명당)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81,855	100.0	40,212	100.0	41,643	100.0
미혼	37,595	45.9	15,617	38.8	21,978	52.8
배우자 있음	14,922	18.2	5,494	13.7	9,428	22.6
사별	13,973	17.1	11,764	29.3	2,209	5.3
이혼	15,365	18.8	7,337	18.2	8,028	19.3

주 : 15세 이상 인구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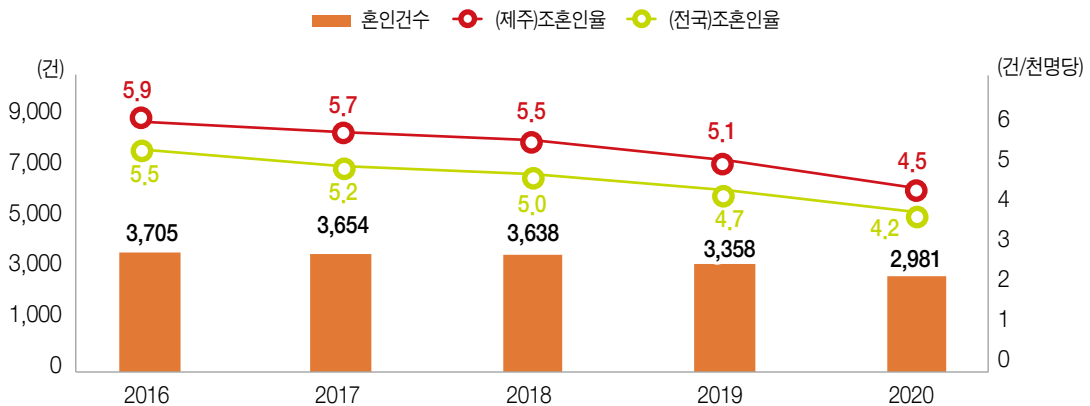
나. 가족형성

낮아지는 혼인율 인구 1천명당 4.5건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임

- (2020년 기준) 혼인건수는 2,981건으로 2016년 대비 19.5%(724건) 감소함. 최근 5년간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4.5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지난 2016년보다 1.4건 감소함. 혼인건수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혼인율 감소폭은 전국수준보다 낮아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남

〈그림 2-8〉 혼인상태별 1인 가구(2020)



〈표 2-8〉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6~2020)

(단위 : 건, 건/인구 1천명당)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2016	281,635	5.5	3,705	5.9
2017	264,455	5.2	3,654	5.7
2018	257,622	5.0	3,638	5.5
2019	239,159	4.7	3,358	5.1
2020	213,502	4.2	2,981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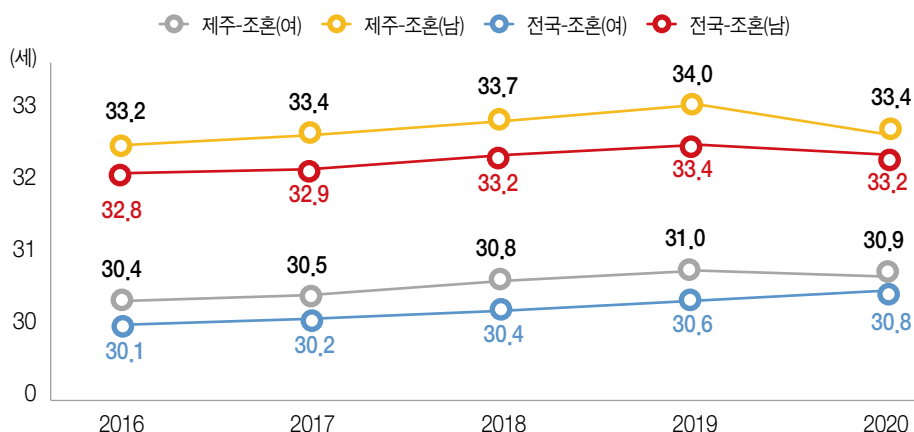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결혼지연 현상 지속, 초혼 연령 여성 30.9세, 남성 33.4세

» 제주특별자치도의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연령보다 높아 전국보다 결혼지연 현상이 더 두드러짐

- (2020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이 30.9세, 남성이 33.4세로 남성의 초혼연령이 2.5세 더 많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보다 여성 0.1세, 남성 0.2세가 더 많아 결혼지연 현상이 전국보다 두드러짐
- 평균 초혼연령은 지난 2016년보다 여성은 0.5세, 남성은 0.2세 더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여성 0.1세, 남성 0.6세 감소함

〈그림 2-9 평균 초혼연령(2016~2020)〉



〈표 2-9〉 평균 초혼연령(2016~2020)

(단위: 세)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6	30.1	32.8	30.4	33.2
2017	30.2	32.9	30.5	33.4
2018	30.4	33.2	30.8	33.7
2019	30.6	33.4	31.0	34.0
2020	30.8	33.2	30.9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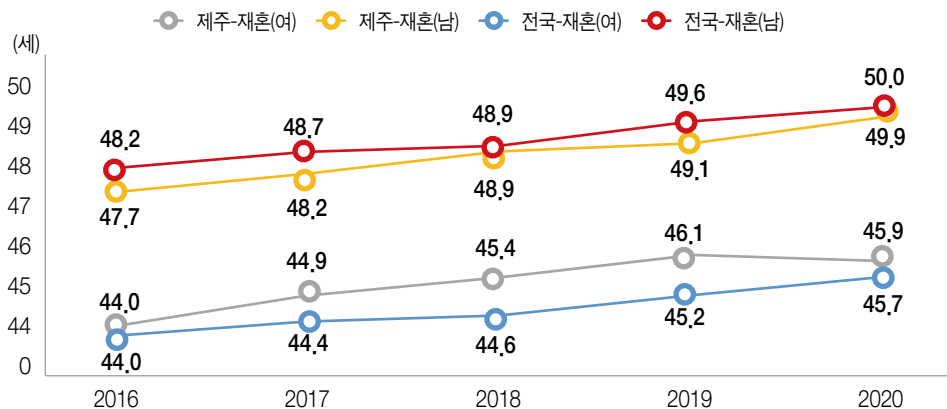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평균 재혼연령 여성 45.9세, 남성 49.9세

» 재혼 연령은 여성 45.9세, 남성 49.9세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평균 재혼연령은 여성 45.9세 남성 49.9세로 남성이 4.0세 더 많음.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재혼 연령은 전국보다 여성은 0.2세 더 많은 반면 남성은 0.1세 더 적음
- 평균 재혼연령은 지난 2016년보다 여성은 1.9세, 남성은 2.2세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다만 여성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0.2세 감소함

〈그림 2-10〉 평균 재혼연령(2016~2020)



〈표 2-10〉 평균 재혼연령(2016~2020)

(단위 : 세)

구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6	44.0	48.2	44.0	47.7
2017	44.4	48.7	44.9	48.2
2018	44.6	48.9	45.4	48.9
2019	45.2	49.6	46.1	49.1
2020	45.7	50.0	45.9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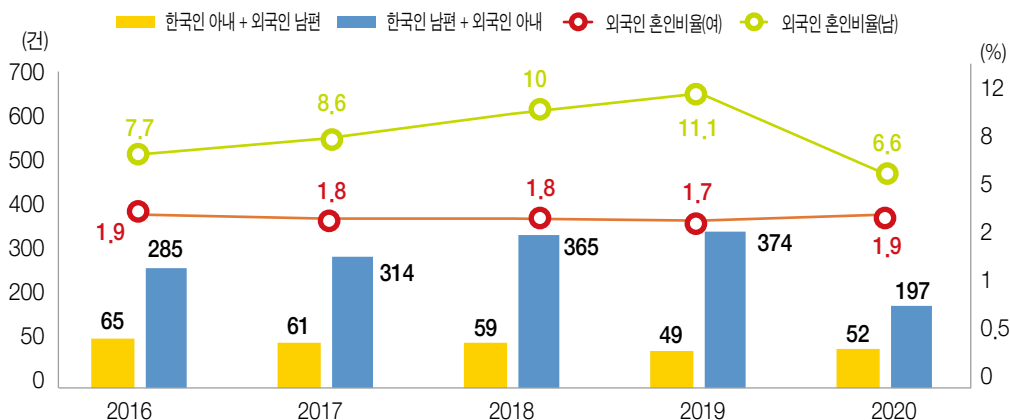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외국인과의 혼인 여성 52건(1.9%), 남성 197건(6.6%)

» 외국인과의 혼인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며, 남성의 외국인 혼인비율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전년보다 4.5%p 감소함

- (2020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은 여성 52건(여성 전체혼인 중 1.9%), 남성 197건(남성 전체혼인 중 6.6%)로 남성이 145건 더 많음
-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여성이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 2020년에 이르러 3건 증가한데 비해 남성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다 2020년에 이르러 전년보다 177건 감소함
- 최근 5년간 여성의 외국인과의 혼인비율은 매년 2% 미만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남성은 2016년 7.7%에서 2019년 11.1%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6.6%로 전년보다 4.5%p 감소함

〈그림 2-11〉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6~2020)



〈표 2-11〉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6~2020)

(단위 : 건, %)

구분	아내			남편		
	전체혼인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	외국인 혼인비율	전체혼인	한국인 남편 + 외국인 아내	외국인 혼인비율
2016	3,343	65	1.9	3,705	285	7.7
2017	3,325	61	1.8	3,654	314	8.6
2018	3,220	59	1.8	3,638	365	10.0
2019	2,937	49	1.7	3,358	374	11.1
2020	2,746	52	1.9	2,981	197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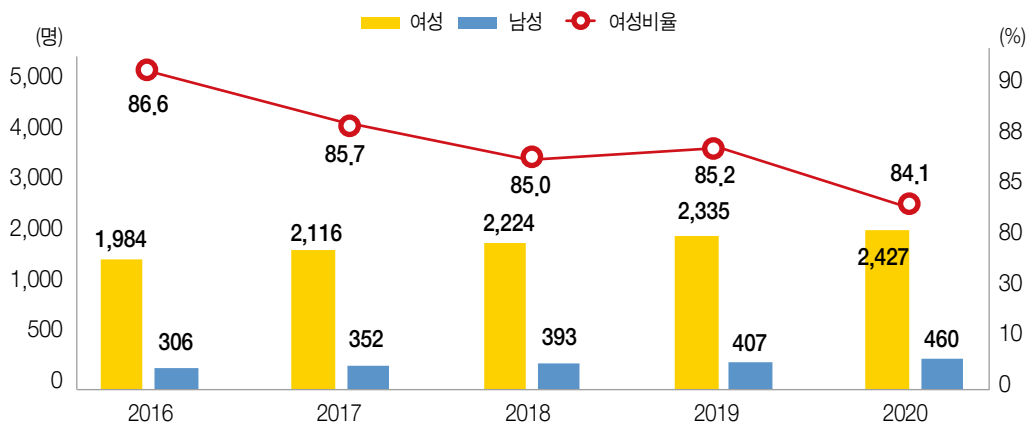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미귀화 결혼이민자의 지속적 증가

» 미귀화 결혼이민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20년 기준) 미귀화 결혼이민자는 총 2,887명이며, 이 중 여성 2,427명, 남성 460명으로 여성이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1,967명 더 많음
- 최근 5년간 미귀화 결혼이민자는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함. 지난 2016년 대비 여성은 22.3%(443명), 남성은 50.3%(154명)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음. 다만 미귀화 결혼이민자 중 여성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2016년 86.6%에서 2020년 84.1%로 2.5%p 감소했지만 여전히 80%대로 높음

〈그림 2-12〉 성별 결혼이민자(2016~2020)



〈표 2-12〉 성별 결혼이민자(2016~2020)

(단위 : 명, %)

구분	결혼이민자 - 한국국적 취득하지 않은 자(미귀화자)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2016	2,290	1,984	306	86.6
2017	2,468	2,116	352	85.7
2018	2,617	2,224	393	85.0
2019	2,742	2,335	407	85.2
2020	2,887	2,427	460	8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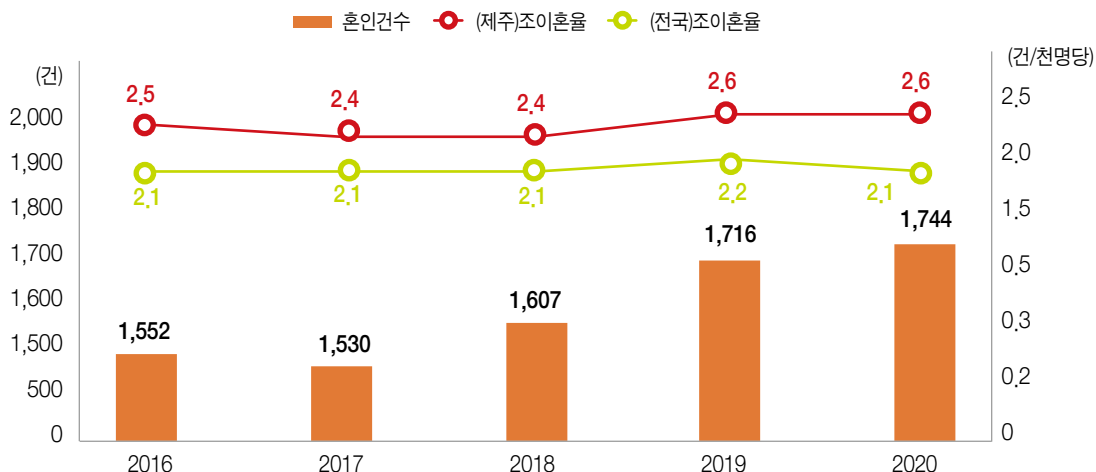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이혼 건수 1,744건, 조이혼율 2.6%

»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이혼건수는 1,744건, 조이혼율은 1천명당 2.6명으로 지난 2016년보다 이혼건수는 192건 증가, 조이혼율은 0.1명 증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이혼율은 전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2017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3〉 이혼건수와 조이혼율(2016~2020)



〈표 2-1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6~2020)

(단위 : 건, 천명당)

시점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이혼건수(건)	조이혼율(천명당)	이혼건수(건)	조이혼율(천명당)
2016	107,328	2.1	1,552	2.5
2017	106,032	2.1	1,530	2.4
2018	108,684	2.1	1,607	2.4
2019	110,831	2.2	1,716	2.6
2020	106,500	2.1	1,744	2.6

주 : 1) 혼인, 이혼은 다음해 3월 말, 출생은 다음해 8월 말, 사망은 다음해 9월 말에 확정수치 공표

2) 신고기준 집계,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집계

3) 1998년 이후 해외 주소 자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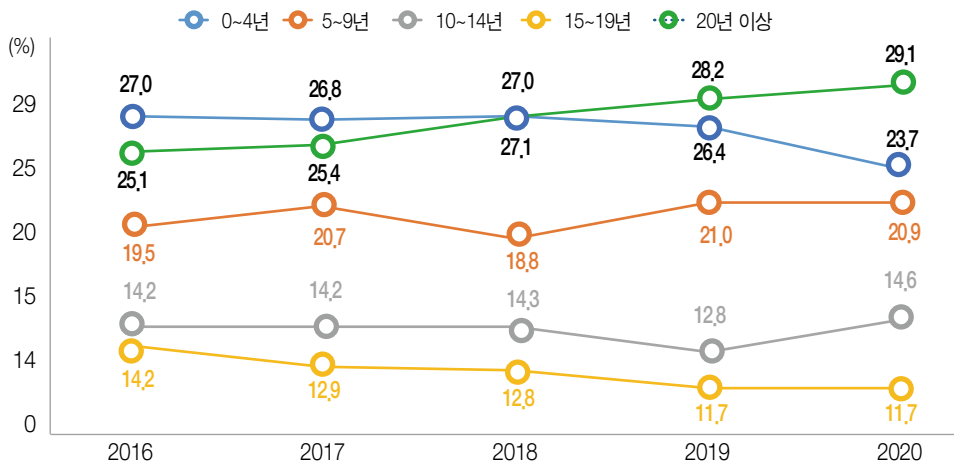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년 이상 혼인지속(동거)자들의 이혼 증가

» 최근 3년간 혼인지속(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이들의 이혼 증가

- (2020년 기준) 혼인지속(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는 20년 이상 29.1%, 0~4년 23.7%, 5~9년 20.9%, 10~14년 14.6%, 15~19년 11.7% 순으로 혼인지속(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이 가장 많음
- 이혼구성비가 가장 높은 혼인지속(동거) 기간은 0~4년과 20년 이상이었는데, 2017년까지는 0~4년이 가장 높고 2018년부터는 20년 이상이 가장 높음. 또한 20년 미만에서는 혼인지속(동거) 기간이 짧을수록 이혼이 증가함
- 특히 20년 이상은 2016년 대비 이혼건수가 30.3%(118건) 증가했고 이혼구성비는 2016년보다 4.0%p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반면 0~4년은 2016년 대비 이혼건수가 1.4%(6건) 감소했고 이혼구성비는 2016년보다 3.3%p 감소하여 하락세를 보임

〈그림 2-14〉 혼인지속(동거)기간별 이혼(2016~2020)



〈표 2-14〉 혼인지속(동거) 기간별 이혼(2016~2020)

(단위 : 건, %)

구분	전 체	혼인지속(동거)기간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2016	1,552 (100.0)	419 (27.0)	302 (19.5)	221 (14.2)	220 (14.2)	390 (25.1)
2017	1,530 (100.0)	410 (26.8)	316 (20.7)	218 (14.2)	197 (12.9)	389 (25.4)
2018	1,607 (100.0)	434 (27.0)	302 (18.8)	230 (14.3)	205 (12.8)	436 (27.1)
2019	1,716 (100.0)	453 (26.4)	360 (21.0)	219 (12.8)	200 (11.7)	484 (28.2)
2020	1,744 (100.0)	413 (23.7)	365 (20.9)	254 (14.6)	204 (11.7)	508 (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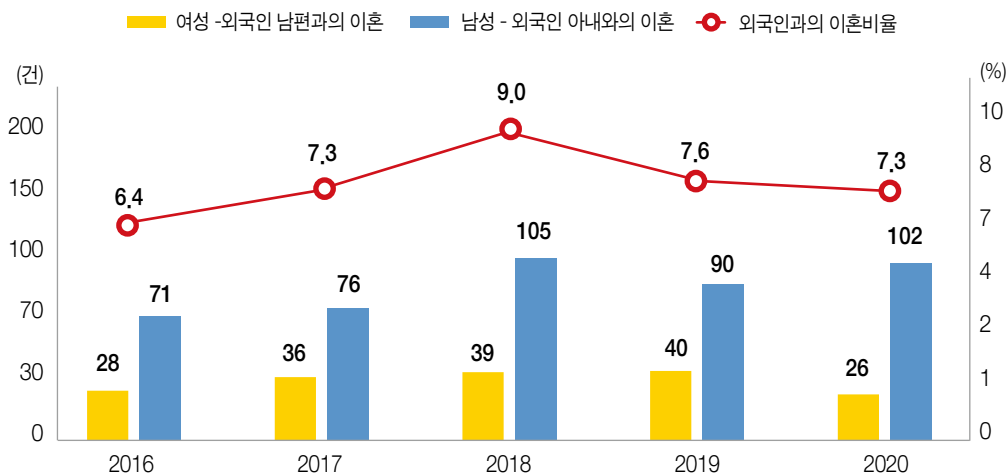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7.3%

»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은 7.3%이며 외국인과의 이혼은 남성이 더 많음

- (2020년 기준) 외국인과의 이혼은 128건이며 이 중 여성(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26건, 남성(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102건으로 남성이 76건 더 많음. 외국인과의 이혼 중 여성(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20.3%에 그침
- 외국인과의 이혼 중 여성(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전년보다 14건 감소, 2016년보다 2건 감소한 반면 남성(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전년보다 12건, 2016년보다 31건 증가함
- 외국인과의 이혼은 남성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더 크고 2016년 대비 증가율(여성 7.1% 감소, 남성 43.7% 증가)도 남성이 더 높음

〈그림 2-15〉 외국인과의 이혼(2016~2020)



〈표 2-15〉 외국인과의 이혼(2016~2020)

(단위 : 건, %)

구분	총 이혼건수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외국인과의 이혼		
			여성 -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남성 -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여성비율
2016	1,552	99 (6.4)	28	71	28.3
2017	1,530	112 (7.3)	36	76	32.1
2018	1,607	144 (9.0)	39	105	27.1
2019	1,716	130 (7.6)	40	90	30.8
2020	1,744	128 (7.3)	26	102	20.3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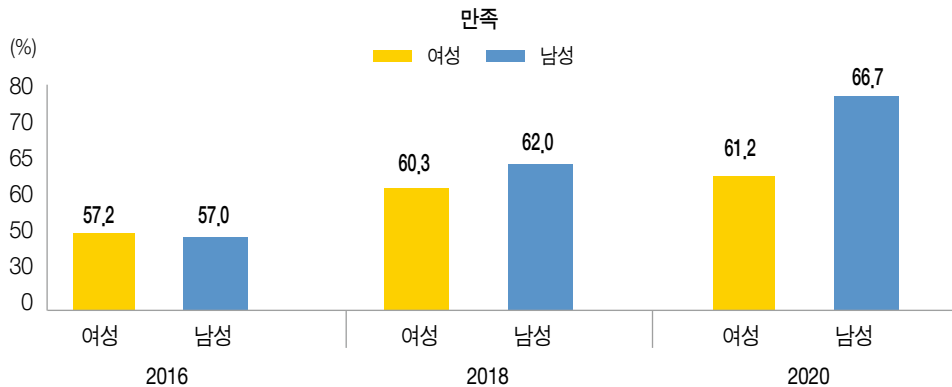
다. 가족생활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 여성 61.2%, 남성 66.7%

»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여성이 5.5%p 더 낮음

- (2020년 기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여성 61.2%, 남성 66.7%로 여성이 5.5%p 더 낮음
- (2020년 기준)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남녀 모두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증가함. 2년주기 조사마다 여성은 각각 3.1%p, 0.9%p가 증가했고, 남성은 각각 5.0%p, 4.7%p 증가함

〈그림 2-16〉 가족관계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표 2-16〉 가족관계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단위: %)

구 분		만족	보통	불만족
2016	전체	57.2	38.7	4.2
	여성	57.2	38.5	4.2
	남성	57.0	38.8	4.2
2018	전체	61.2	36.9	1.9
	여성	60.3	37.5	2.2
	남성	62.0	36.2	1.8
2020	전체	64.0	33.3	2.7
	여성	61.2	35.7	3.0
	남성	66.7	30.9	2.4

주: 1) 13세 이상 대상임

2)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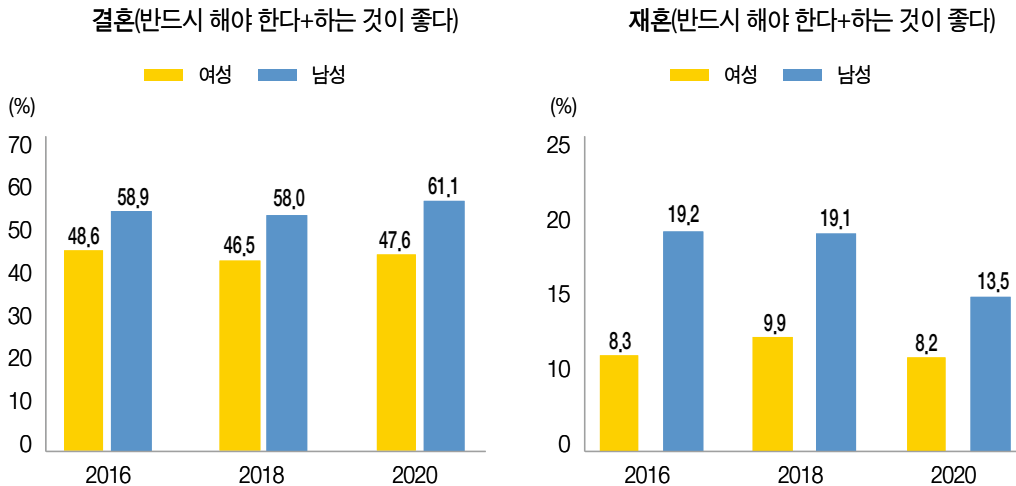
라. 가족가치관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결혼 및 재혼 필요인식

» 결혼 및 재혼 필요 인식은 여성이 더 낮음

- (2020년 기준) 결혼 필요인식(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은 여성 47.6%, 남성 61.1%로 여성이 13.5%p 낮음. 결혼 필요인식은 지난 2016년에도 여성이 10.3%p 더 낮았고, 2018년에는 11.5%p 더 낮았음. 또한 성별격차는 증가함
- (2020년 기준) 재혼 필요인식(재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은 여성 8.2%, 남성 13.5%로 여성이 5.3%p 더 낮음. 재혼 필요인식은 지난 2016년에도 여성이 10.9%p 더 낮았고, 2018년에는 9.2%p 더 낮았음. 다만 필요인식의 성별격차는 감소함

〈그림 2-17〉 결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2016~2020, 2년주기)



〈표 2-17〉 결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
결혼	2016	전체	14.7	39.1	40.6	2.8	0.7	2.0
		여성	13.7	34.9	45.1	3.7	1.5	1.1
		남성	15.7	43.2	36.3	1.9	0.0	2.9
	2018	전체	13.6	38.6	43.8	1.2	0.3	2.5
		여성	12.2	34.3	48.6	1.5	0.6	2.9
		남성	15.0	43.0	39.0	0.9	0.0	2.0
	2020	전체	19.7	34.7	39.9	1.9	0.5	3.4
		여성	16.6	31.0	45.9	2.4	0.8	3.3
		남성	22.7	38.4	34.0	1.3	0.2	3.5
재혼	2016	전체	1.3	12.4	67.2	9.6	3.9	5.5
		여성	0.9	7.4	69.1	12.9	5.4	4.5
		남성	1.8	17.4	65.5	6.4	2.4	6.6
	2018	전체	1.1	13.3	65.9	9.4	2.6	7.7
		여성	0.6	9.3	66.3	11.7	3.5	8.6
		남성	1.6	17.5	65.5	7.1	1.6	6.8
	2020	전체	1.1	9.8	66.3	7.9	2.6	12.4
		여성	1.0	7.2	67.7	10.3	3.1	10.8
		남성	1.2	12.3	64.8	5.5	2.1	14.0

주 : 13세 이상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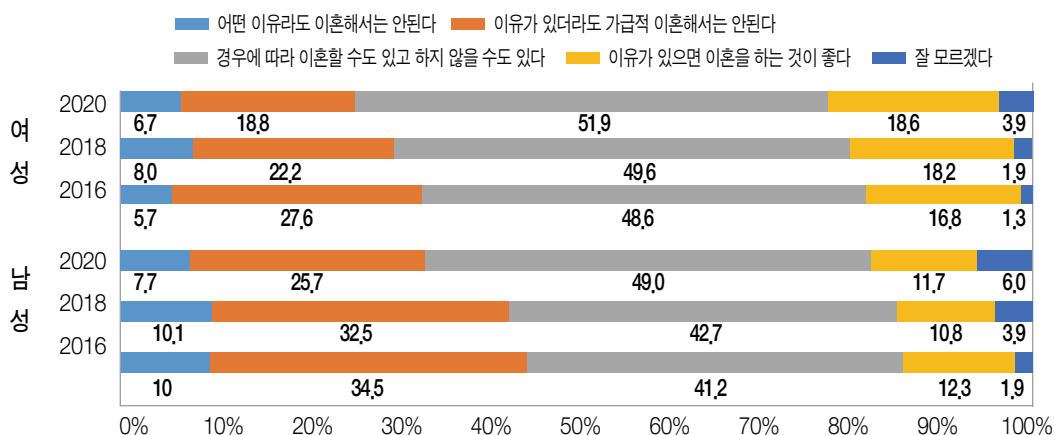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 감소

»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보수적 태도가 감소하고 있음. 다만 남성은 여성보다 이혼에 대해 조금 더 보수적임

- (2020년 기준)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여성 6.7%, 남성 7.7%,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여성 18.8%, 남성 25.7%,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 51.9%, 남성 49.0%,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 여성 18.6%, 남성 11.7%임
- 이혼에 관한 보수적 태도(어떤 이유라도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남성이 더 높은 반면 수용적 태도(경우에 따라서 또는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여성이 더 높음

〈그림 2-18〉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6~2020, 2년주기)



〈표 2-18〉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4~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여성	2016	5.7	27.6	48.6	16.8	1.3
	2018	8.0	22.2	49.6	18.2	1.9
	2020	6.7	18.8	51.9	18.6	3.9
남성	2016	10.0	34.5	41.2	12.3	1.9
	2018	10.1	32.5	42.7	10.8	3.9
	2020	7.7	25.7	49.0	11.7	6.0

주 : 13세 이상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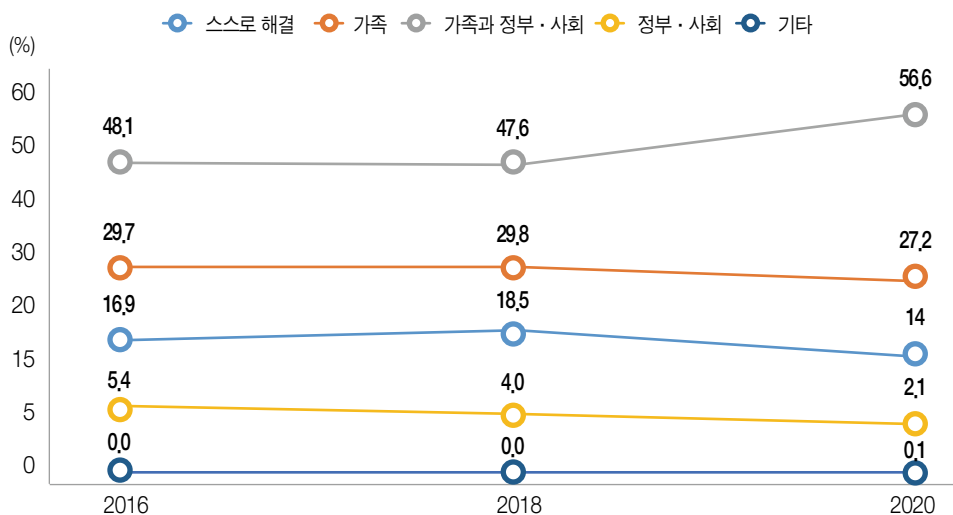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56.6%

» 부모 부양책임이 '가족과 정부·사회'에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가족 책임이라는 인식과 '정부와 사회' 책임이라는 인식이 감소함

- (2020년 기준) 부모 부양책임은 '가족과 정부·사회' 56.6%, '가족' 27.2%, '스스로 해결' 14.0%, '정부·사회' 2.1% 순으로 나타나 부모의 부양책임이 가족과 정부·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높음
- 부모부양 책임의 주체 중 '가족과 정부·사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 외 책임주체는 감소함. 특히 '스스로 해결'과 '정부·사회'는 지난 2016년 보다 각각 2.9%p 감소, 3.3%p 감소함

〈그림 2-19〉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6~2020, 2년주기)



〈표 2-19〉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4~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계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기타
2016	100.0	16.9	29.7	48.1	5.4	-
2018	100.0	18.5	29.8	47.6	4.0	-
2020	100.0	14.0	27.2	56.6	2.1	0.1

주 : 13세 이상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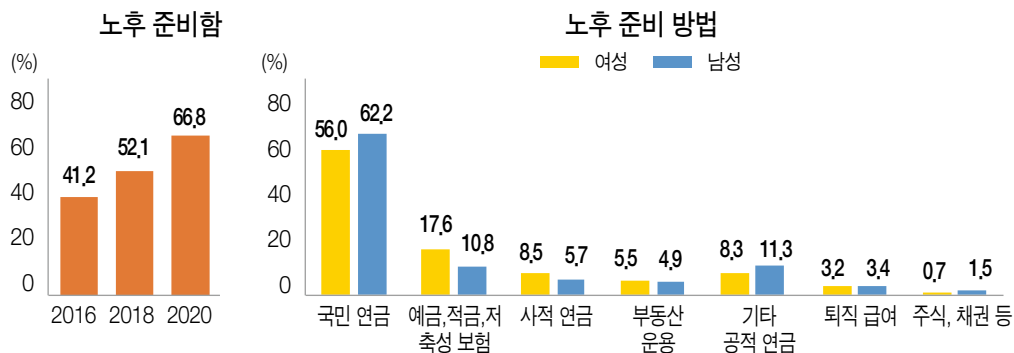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노후 준비방법 국민연금 최다(여성 56.0%, 남성 62.2%)

»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준비방법은 주로 국민연금임

- (2020년 기준) 노후를 준비한다는 비율은 66.8%로 지난 2016년보다 25.6%p 증가하여 노후 준비인식이 높아짐
- (2020년 기준)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여성은 국민연금 56.0%,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17.6%, 사적연금 8.5%, 기타 공적연금 8.3%, 부동산 운용 5.5% 등의 순이며, 남성은 국민연금 62.2%, 기타 공적연금 11.3%,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10.8%, 사적연금 5.7%, 부동산 운용 4.9% 등의 순으로 노후준비 방법이 남녀 모두 국민연금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2-20〉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2020)



〈표 2-20〉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2016~2020, 2년주기)

(단위: %)

연도	구분	준비함	현재 직업계속	국민연금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사적연금	부동산 운용	자녀의 경제적보조	기타 공적연금	퇴직급여	주식, 채권 등	준비안함
2016	전체	41.2	63.6	61.6	56.9	34.3	14.8	12.3	9.7	7.8	1.4	58.8
	여성	40.5	60.8	60.3	60.2	35.8	14.0	14.2	8.8	7.1	1.3	59.5
	남성	41.9	66.3	62.9	53.7	32.8	15.7	10.5	10.6	8.5	1.6	58.1
2018	전체	52.1	29.9	32.8	15.5	6.3	4.0	1.8	7.2	2.0	-	47.9
	여성	52.4	26.7	34.2	18.0	7.8	4.0	1.7	5.9	1.4	0.1	47.6
	남성	51.8	33.2	31.4	13.0	4.8	3.9	1.8	8.5	2.6	0.8	48.2
2020	전체	66.8	-	59.1	14.2	7.1	5.2	-	9.8	3.3	1.1	33.2
	여성	66.0	-	56.0	17.6	8.5	5.5	-	8.3	3.2	0.7	34.0
	남성	67.6	-	62.2	10.8	5.7	4.9	-	11.3	3.4	1.5	32.4

주: 제주지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3

보육 Child-Care

03 보 육 Child-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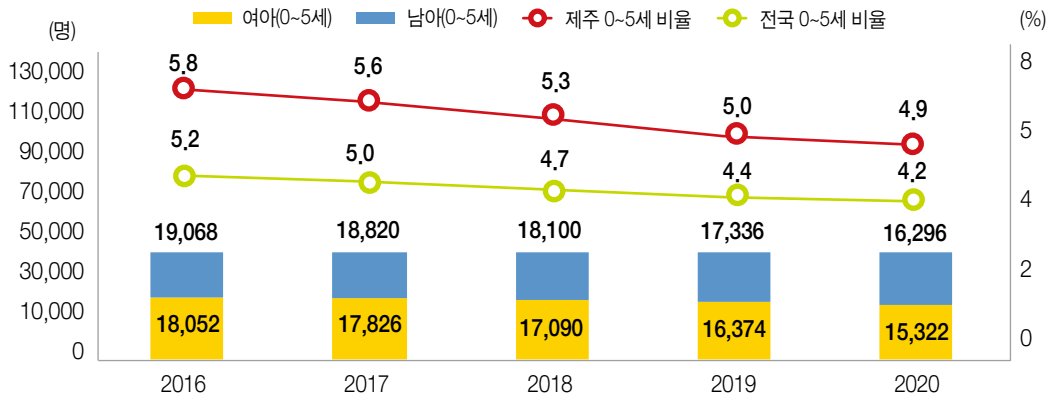
가. 보육현황

영유아 인구 4.9%(여아 비율 48.5%)

» 저출산의 여파로 영유아(0~5세)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4.9%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20년 기준) 0~5세까지의 영유아 인구는 31,618명이며, 이 중 여아는 15,322명으로 영유아 인구의 48.5%를 차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유아 인구비율은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4.9%로 전국(4.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전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3-1〉 영유아(0~5세) 인구(2016~2020)



〈표 3-1〉 영유아(0~5세) 인구(2016~2020)

(단위: 명, %)

구분	0~5세	여아	남아	여아성비	0~5세 비율	
					제주	전국
2016	37,120	18,052	19,068	48.6	5.8	5.2
2017	36,646	17,826	18,820	48.6	5.6	5.0
2018	35,190	17,090	18,100	48.6	5.3	4.7
2019	33,710	16,374	17,336	48.6	5.0	4.4
2020	31,618	15,322	16,296	48.5	4.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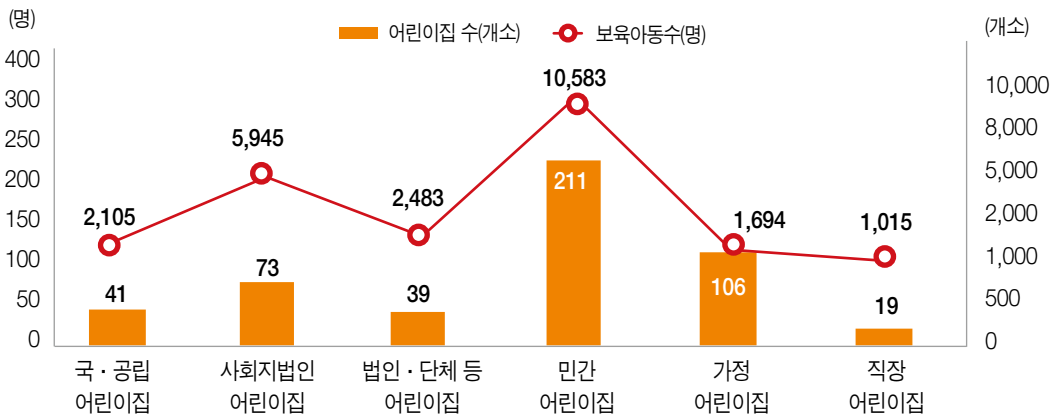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KOSIS DB 제공)

어린이집 489개소(민간 211개소 43.1%, 가정 106개소 21.7%)

» 어린이집은 주로 민간어린이집(43.1%)과 가정어린이집(21.7%)이 주를 이루고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린이집은 총 489개소로, 민간 211개소(43.1%), 가정 106개소(21.7%), 사회복지법인 73개소(14.9%), 법인·단체 등 39개소(8.0%), 국·공립 41개소(8.4%), 직장 19개소(3.9%)의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 중임
- (2020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 수는 민간 10,583명(44.4%), 사회복지법인 5,945명(25.0%), 법인·단체 등 2,483명(10.4%), 국·공립 2,105명(8.8%), 가정 1,694명(7.1%), 직장 1,015명(4.3%)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서귀포시 정방동임

〈그림 3-2〉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20)



〈표 3-2〉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20)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어린이집	개소	489	41	73	39	211	106	19
	비율	100.0	8.4	14.9	8.0	43.1	21.7	3.9
보육아동	명	23,825	2,105	5,945	2,483	10,583	1,694	1,015
	비율	100.0	8.8	25.0	10.4	44.4	7.1	4.3

주 : 어린이집 미설치 상세지역은 제주시 일도1동, 서귀포시 정방동임(2020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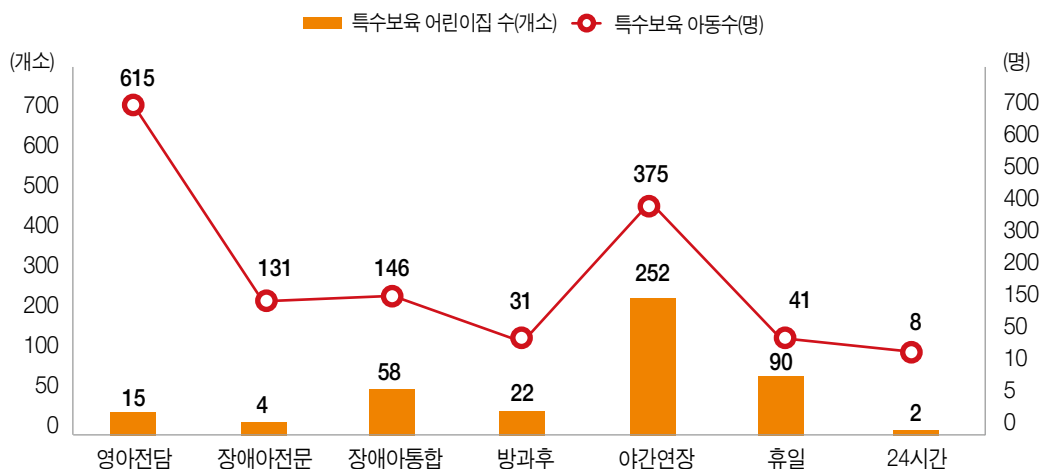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

특수보육 어린이집 영아전담 15개소, 장애아 전문 4개소

» 특수보육 어린이집 유형은 야간연장이 가장 많으며, 장애아 전문과 24시간 유형이 가장 적음

- 특수보육 유형은 영아전담 15개소(3세 미만 영아 615명), 장애아 전문 4개소(장애아동 131명), 장애아통합 58개소(장애아동 146명), 방과후 22개소(방과후 현원 31명), 야간연장 252개소(야간연장 현원 375명), 휴일 90개소(휴일현원 41명), 24시간 2개소(24시간 현원 8명)로 나타남

〈그림 3-3〉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20)



〈표 3-3〉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20)

(단위 : 개소, 명)

구분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	야간연장	휴일	24시간
특수보육 어린이집 수	15	4	58	22	252	90	2
보육아동 현원	658	187	3,754	1,846	13,440	4,221	110
특수보육 아동 현원	3세 미만 영아	장애아동	장애아동	방과후 현원	시간연장 현원	휴일현원	24시간 현원
	615	131	146	31	375	4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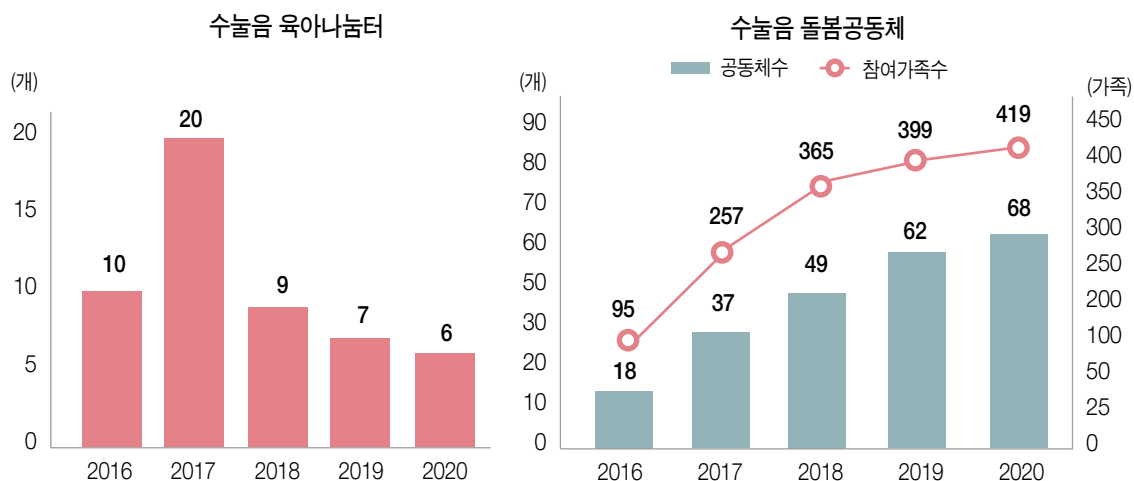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수눔음 육아나눔터 6개소, 돌봄공동체 68개(419가족)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어린이집, 양육수당, 아이돌보미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성과 가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제주형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주형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아파트 관리동,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아동을 돌보는 “수눔음 육아 나눔터 조성” 사업과 지역주민이 팀을 조성해서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자발적 자조모임 형태의 공동육아 지원사업인 “제주형 사회적 돌봄공동체” 사업이 있음
- (2020년 기준) 수눔음 육아나눔터는 6개가 있고, 수눔음 돌봄공동체는 68개가 조직되어 419가족이 참여하고 있음

〈그림 3-4〉 제주형 육아 및 돌봄공동체 현황(2016~2020)



〈표 3-4〉 제주형 육아 및 돌봄공동체 현황(2016~2020)

(단위 : 개, 가족)

구분	수눔음 육아나눔터	수눔음 돌봄공동체	
		공동체수	참여가족수
2016	10	18	95
2017	20	37	257
2018	9	49	365
2019	7	62	399
2020	6	68	419

자료 :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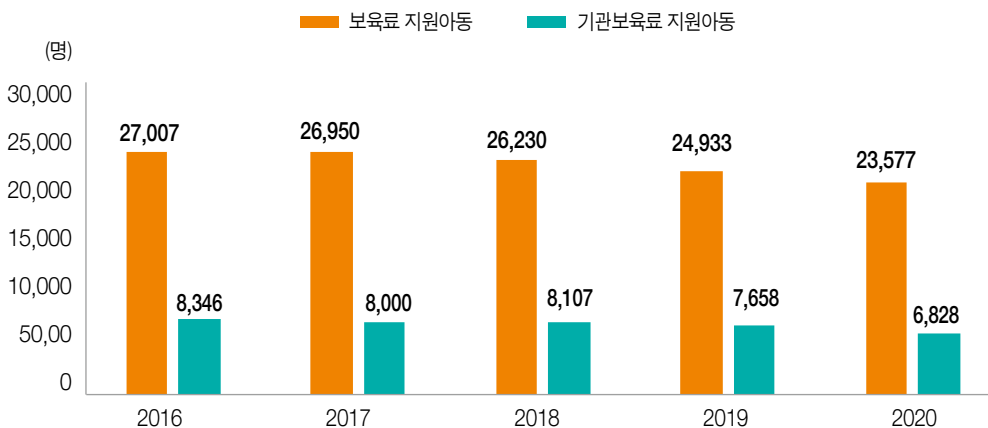
나. 보육지원

영유아 보육료 23,577명, 기관보육료 6,828명 지원

» 출산율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 (2020년 기준) 보육료 지원 아동은 23,577명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수는 2017년에는 전년보다 57명 감소, 2018년에는 720명 감소, 2019년에는 1,297명 감소, 2020년에는 1,356명 감소하여 그 폭이 커지고 있음
- (2020년 기준) 기관보육료 지원 아동은 6,828명이며, 2017년에는 전년보다 346명 감소, 2018년에는 107명 증가, 2019년에는 449명 감소, 2020년에는 830명이 감소하여 보육료 지원아동 수와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음

〈그림 3-5〉 보육료 지원 현황(2016~2020)



〈표 3-5〉 보육료 지원 현황(2016~2020)

(단위 : 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육료 지원아동	27,007	26,950	26,230	24,933	23,577
기관보육료 지원아동	8,346	8,000	8,107	7,658	6,828

주 : 1) 보육료 : 영유아(만0~2세), 장애아, 다문화, 누리(만3~5세), 방과후 지원

2) 기관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보육시설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을 포함, 장애아통합지정보육시설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 보육연령 0,1,2세 이외의 아동은 장애아로 분류 / 보육연령 0,1,2세인 장애아의 경우 연령 우선 적용(각 연령별에 포함). 2019년까지 기본보육료(→2020년 기관보육료)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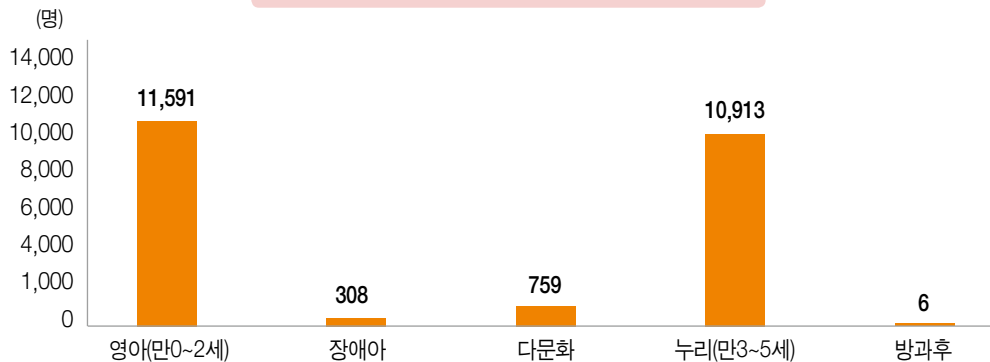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영아(0~2세) 11,591명, 누리(만3~5세) 10,913명 보육료 지원

» 자격유형별 보육료 지원은 영아(만 0~2세)와 누리(만 3~5세) 지원이 가장 많음

- (2020년 기준) 보육료 지원 자격유형별로는 영아(만 0~2세, 법정포함) 11,591명, 장애아 308명, 다문화 759명, 누리(만 3~5세) 10,913명, 방과후 6명으로 영아와 누리대상 지원이 가장 많고 방과후 지원아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자격별 지원 아동 수는 전년보다 장애아와 방과후 지원은 각각 44명, 2명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원은 모두 감소함. 특히 영아지원은 전년보다 796명 감소하였고 누리지원은 404명 감소함

〈그림 3-6〉 자격유형별 보육료 지원 현황(2020)



〈표 3-6〉 자격유형별 보육료 지원 현황(2016~2020)

(단위 : 명)

년도	영아(만0~2세)	장애아	다문화	누리(만3~5세)	방과후
2016	13,297	245	907	12,537	21
2017	13,326	234	909	12,465	16
2018	12,918	231	936	12,136	9
2019	12,387	264	961	11,317	4
2020	11,591	308	759	10,913	6

주 : 1) 보육료 : 영유아(만0~2세), 장애아, 다문화, 누리(만3~5세), 방과후 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4

교육 Education

04 교육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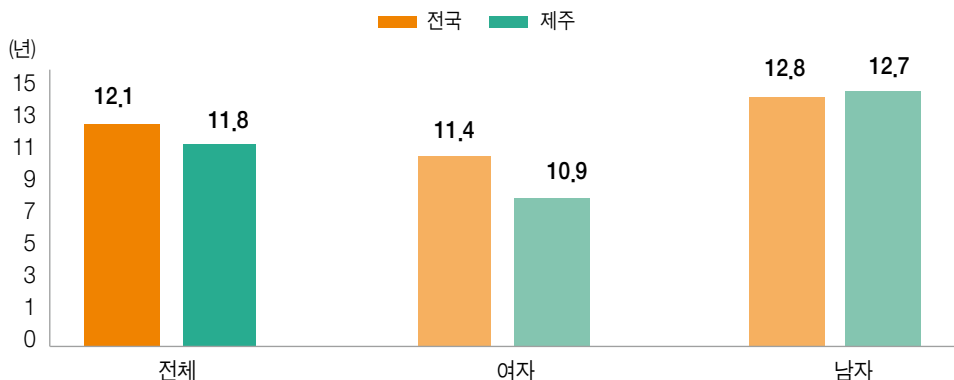
가. 교육기회

평균 교육년수 11.8년(여성 10.9년, 남성 12.7년)

»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는 10.9년으로 여전히 남성보다 적음

- (2015년 기준) 평균 교육년수는 11.8년이며, 성별로는 여성 10.9년, 남성 12.7년으로 여성의 평균 교육년수가 1.8년 더 적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교육년수는 전국수준보다 낮음. 여성은 0.5년, 남성은 0.1년 더 적음

〈그림 4-1〉 평균 교육년수(2015)



〈표 4-1〉 평균 교육년수(2000~2015, 5년주기)

(단위 : 년)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00		10.1	8.9	11.4
2005		10.7	9.6	11.9
2010		11.1	10.1	12.2
2015	제주	11.8	10.9	12.7
	전국	12.1	11.4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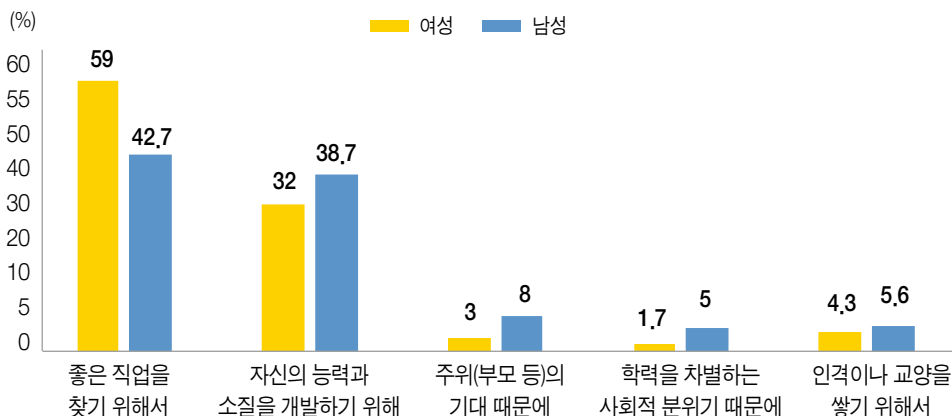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학생의 교육 기대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여성 59.0%, 남성 42.7%)

» 학생이 기대하는 주된 교육목적은 남녀 모두 좋은 직업 취득임

- (2020년 기준) 여학생이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59.0%,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32.0%,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서 4.3% 등의 순이며, 남학생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42.7%,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38.7%, 주위(부모 등)의 기대 때문에 8.0%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좋은 취업 취득 기대가 가장 높음
- 좋은 직업 취득 기대는 여학생이 16.3%p 더 높고, 능력과 소질 개발 기대는 남학생이 6.7%p 더 높음

〈그림 4-2〉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목적(2020)



〈표 4-2〉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목적(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 분	2016			2018			2020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좋은 직업	53.9	57.4	50.8	50.8	47.7	54.4	49.3	59.0	42.7
소질 개발	40.8	42.6	39.2	44.2	45.8	42.4	36.0	32.0	38.7
주위의 기대	1.7	0.0	3.3	0.0	0.0	0.0	5.9	3.0	8.0
사회적 분위기	3.5	0.0	6.7	3.0	5.6	0.0	3.7	1.7	5.0
인격, 교양	0.0	0.0	0.0	2.0	0.9	3.2	5.1	4.3	5.6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사회적 분위기 : 2016년에는 '결혼, 친구관계 등 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2018년 이후 '학력을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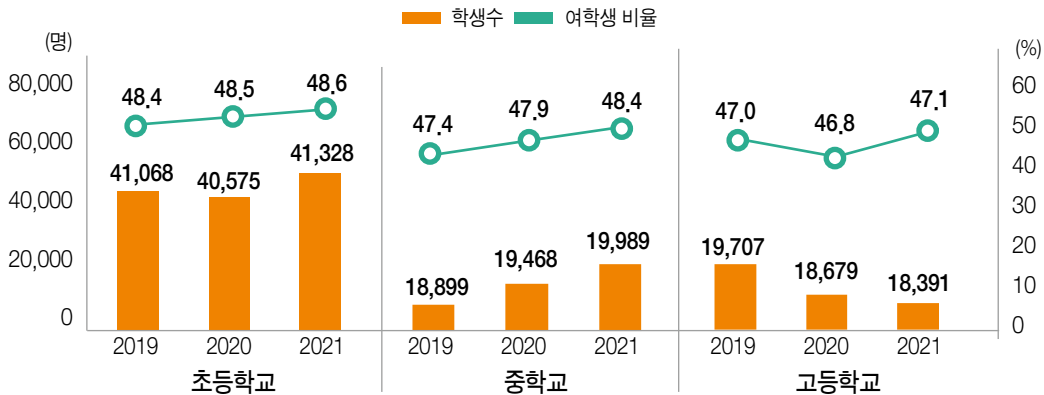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초등학생 41,328명(여 48.6%) 중학생 19,989명(여 48.4%), 고등학생 18,391명(여 47.1%)

» 초·중학생 수는 증가하였지만 고등학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21년 기준) 초등학생 수는 41,328명이며, 이중 여학생의 비율은 48.6%로 남학생이 더 많음. 초등학생 수는 2019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이 증가함
- (2021년 기준) 중학생 수는 19,989명이며, 이중 여학생의 비율은 48.4%로 남학생이 더 많음. 중학생 수는 2019년 대비 5.8% 증가함
- (2021년 기준) 고등학생 수는 18,391명이며, 이 중 여학생의 비율은 47.1%로 남학생이 더 많음. 고등학생 수는 2019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이 더 많이 감소함

〈그림 4-3〉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9~2021)



〈표 4-3〉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6~2021)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여성	여성비율	전체 학생 수	여성	여성비율	전체 학생 수	여성	여성비율
2016	38,272	18,280	47.8	20,629	9,663	46.8	22,936	11,072	48.3
2017	38,901	18,699	48.1	19,603	9,209	47.0	22,422	10,768	48.0
2018	40,096	19,357	48.3	19,306	9,115	47.2	21,088	10,035	47.6
2019	41,068	19,895	48.4	18,899	8,963	47.4	19,707	9,267	47.0
2020	40,575	19,692	48.5	19,468	9,329	47.9	18,679	8,736	46.8
2021	41,328	20,067	48.6	19,989	9,675	48.4	18,391	8,659	47.1

주 : 매년도 4월 1일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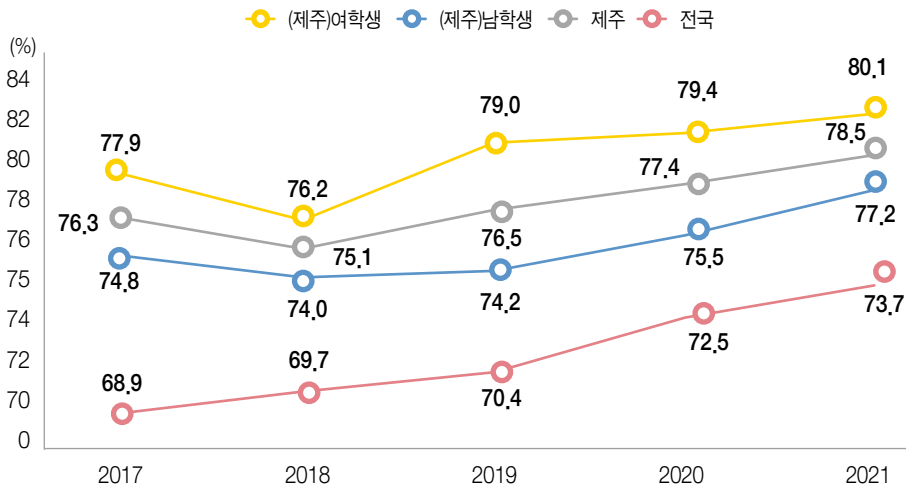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대학진학률 78.5%(여성 80.1%, 남성 77.2%)

»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여성이 더 높고 남·여학생의 진학률 차이는 2019년 이후 감소함

- (2021년 기준) 대학진학률은 78.5%로 전년보다 1.1%p 증가하였으며, 전국보다 4.8%p 더 높음. 성별로는 여학생이 80.1%, 남학생 77.2%로 여학생이 2.9%p 더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학진학률은 2018년 이후 남·여학생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지만 그 차이가 가장 컸던 2019년(4.8%p)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

〈그림 4-4〉 대학교 진학률(2017~2021)



〈표 4-4〉 대학교 진학률(2017~2021)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전국 진학률
	계	여학생	남학생	계	여학생	남학생	계	여학생	남학생	
2017	7,458	3,590	3,868	5,691	2,797	2,894	76.3	77.9	74.8	68.9
2018	7,419	3,555	3,864	5,568	2,708	2,860	75.1	76.2	74.0	69.7
2019	7,651	3,718	3,933	5,856	2,936	2,920	76.5	79.0	74.2	70.4
2020	6,928	3,280	3,648	5,361	2,605	2,756	77.4	79.4	75.5	72.5
2021	6,073	2,793	3,280	4,769	2,238	2,531	78.5	80.1	77.2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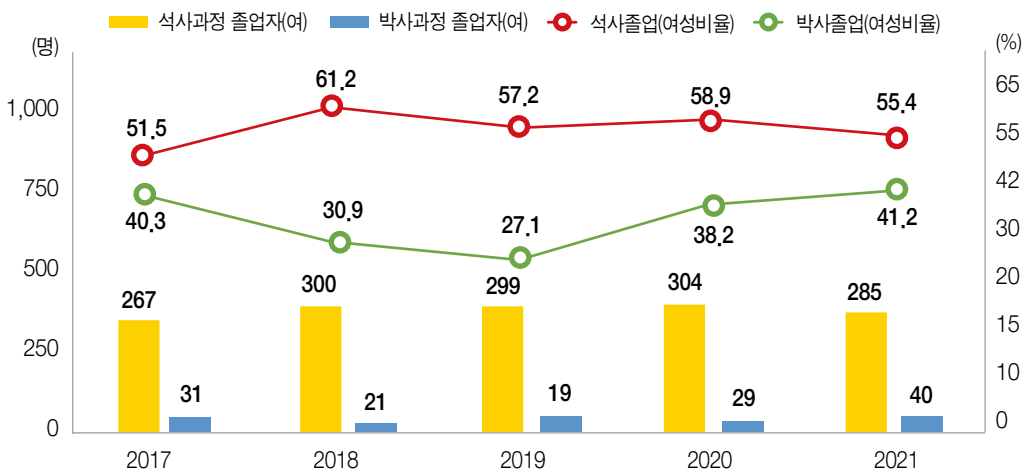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여성 졸업자 비율 석사과정 55.4%, 박사과정 41.2%

» 석사과정 졸업자는 여성이 더 많지만 박사과정 졸업자는 여전히 남성보다 적음

- (2021년 기준) 석사과정 졸업자는 514명이며 이 중 여성이 285명으로 55.4%를 차지함. 석사과정 졸업자 중 여성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높음. 다만 가장 여성비율이 높았던 2018년(61.2%)에 비해서는 감소함
- (2021년 기준) 박사과정 졸업자는 총 97명이며 이 중 여성이 40명으로 41.2%를 차지함. 최근 5년간 석사과정 졸업자 중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더 높았던데 비해 박사과정은 지속적으로 여성 비율이 더 낮음. 다만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19년(27.1%)에 비해서는 증가함

〈그림 4-5〉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7~2021)



〈표 4-5〉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7~2020)

(단위 : 명, %)

구분	석사과정 졸업자			박사과정 졸업자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2017	518	267	51.5	77	31	40.3
2018	490	300	61.2	68	21	30.9
2019	523	299	57.2	70	19	27.1
2020	516	304	58.9	76	29	38.2
2021	514	285	55.4	97	40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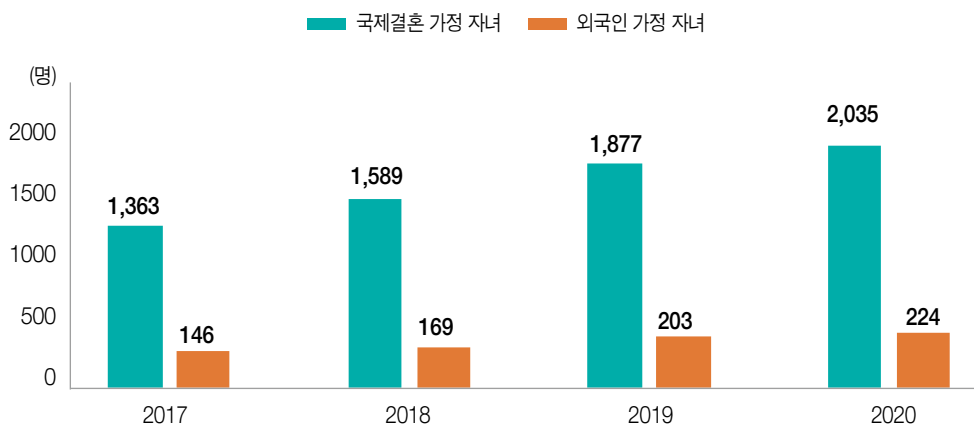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국제결혼 및 외국인 가정 증가에 따른 다문화학생 증가

» 국제결혼 및 외국인 가정 증가에 의한 다문화학생 증가

- (2020년 기준) 다문화학생은 2,259명이며, 이 중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는 2,035명,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224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90.1%를 차지함
- 최근 4년간 다문화학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다문화학생 수는 2017년 대비 49.7%(750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49.3%(672명), 외국인가정 자녀는 53.4%(78명) 증가함

〈그림 4-6〉 다문화학생 현황(2017~2020)



〈표 4-6〉 다문화학생 현황(2017~2020)

(단위 : 명,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전체	1,509	1,741	2,079	2,259
국제결혼	1,363	1,589	1,877	2,035
외국인 가정 자녀	146	169	203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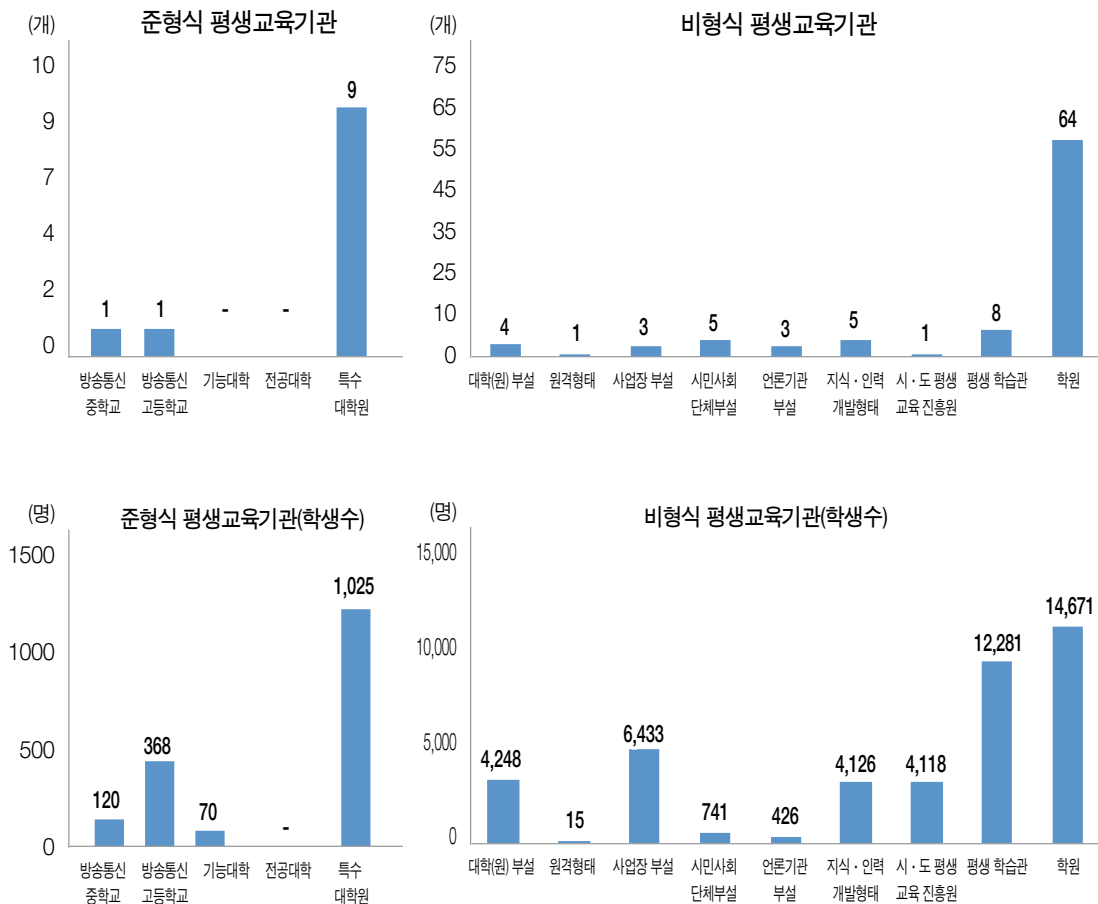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평생교육기관 41개(준형식 11개, 비형식 30개)

» 평생교육 기관 중 비형식 기관은 30개(73.2%), 준형식 기관은 11개(26.8%)임

- (2020년 기준) 평생교육기관은 총 41개이며, 이 중 준형식기관 11개(26.8%), 비형식기관 30개(73.2%)임. 학생 수는 총 33,971명으로 준형식기관 학생 1,583명(4.7%), 비형식기관 학생 32,388명(95.3%)으로 비형식 교육기관이 주를 이룸
- 준형식기관 중에서는 특수대학원이 기관 수 9개, 학생 수 1,025명으로 가장 많음. 비형식기관 중에서는 평생 학습관이 기관수 8개, 학생수 12,281명으로 가장 많음

〈그림 4-7〉 평생교육 기관 현황(2020)



〈표 4-7〉 평생교육 기관 현황(2020)

(단위 : 개, 명)

구 분		기관 수	학생 수
전체		41	33,971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11	1,583
	방송통신 중학교	1	120
	방송통신 고등학교	1	368
	기능대학	-	70
	전공대학	-	-
	특수 대학원	9	1,025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30	32,388
	대학(원) 부설	4	4,248
	원격형태	1	15
	사업장 부설	3	6,433
	시민사회 단체부설	5	741
	언론기관 부설	3	426
	지식·인력 개발형태	5	4,126
	시·도 평생교육 진흥원	1	4,118
	평생 학습관	8	12,281
	학원	(64)	(14,671)

주 : 학원은 전체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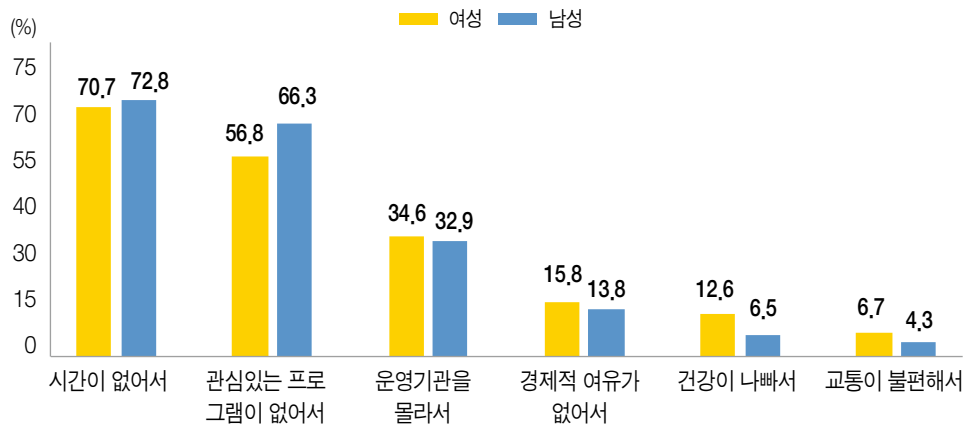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

평생교육 불참사유 - 시간부족 여성 70.7%, 남성 72.8%

»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부족과 관심 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남녀 모두 시간이 없어서(여성 70.7%, 남성 72.8%),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여성 56.8%, 남성 66.3%), 운영기관을 몰라서(여성 34.6%, 남성 3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시간부족과 프로그램 부족이 주된 불참사유로 나타남

〈그림 4-8〉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유(2019)



〈표 4-8〉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유(2019)

(단위 :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시간이 없어서	71.8	70.7	72.8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61.6	56.8	66.3
운영기관을 몰라서	33.8	34.6	32.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14.7	15.8	13.8
건강이 나빠서	9.4	12.6	6.5
교통이 불편해서	5.5	6.7	4.3

주 : 1)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중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이고, 1순위와 2순위의 합임(중복 응답)

2) 2019년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추가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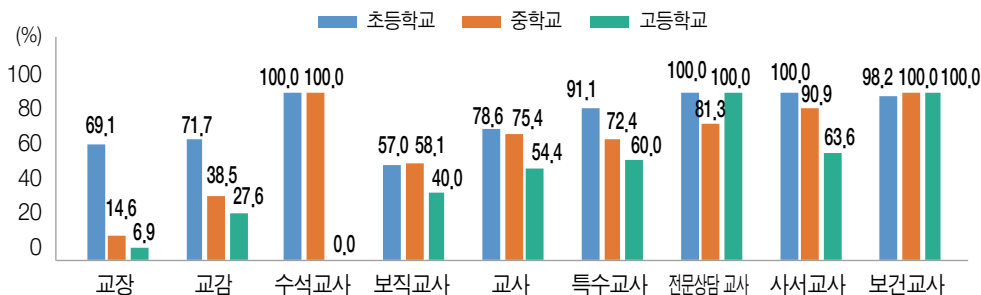
나. 교육여건

직위 및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성교원 비율 감소

»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더 붙어 직위가 높을수록 더 크게 감소함

- (2021년 기준) 학교급이 높을수록 여성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직위는 교장, 교감, 교사, 특수교사임. 특히 교장의 여성비율은 초등학교 69.1%, 중학교 14.6%, 고등학교 6.9%이며, 교감은 초등학교 71.7%, 중학교 38.5%, 고등학교 27.6%로 다른 직위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여성비율이 크게 감소함

〈그림 4-9〉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2021)



〈표 4-9〉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2021)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교장	110	76	69.1	41	6	14.6	29	2	6.9
교감	120	86	71.7	39	15	38.5	29	8	27.6
수석교사	7	7	100.0	3	3	100.0	0	0	0.0
보직교사	533	304	57.0	372	216	58.1	390	156	40.0
교사	1,764	1,387	78.6	741	559	75.4	826	449	54.4
특수교사	79	72	91.1	29	21	72.4	20	12	60.0
전문상담교사	14	14	100.0	16	13	81.3	18	18	100.0
사서교사	14	14	100.0	11	10	90.9	11	7	63.6
보건교사	55	54	98.2	40	40	100.0	28	28	100.0
영양교사	72	71	98.6	29	29	100.0	24	23	95.8

주 : 1) 교원수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합(강사 제외)

2) 휴직 교원 포함, 퇴직 교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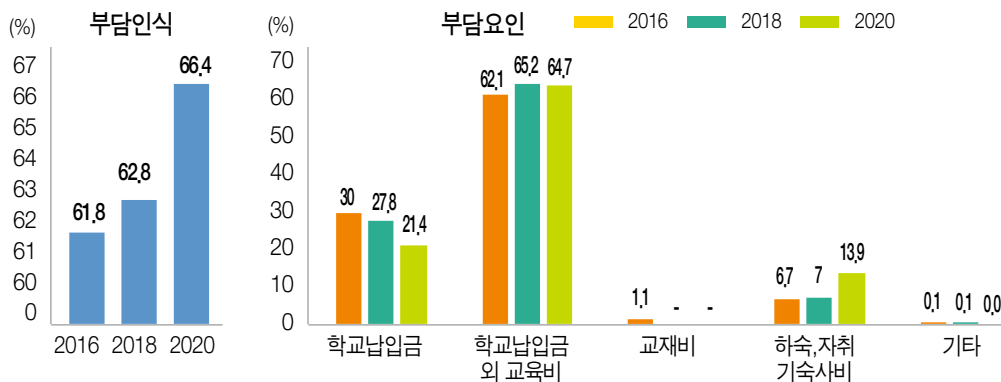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교육비 부담인식 증가, 가장 큰 부담은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64.7%)

» 교육비 부담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은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은 66.4%로 다소 높은 편임. 교육비 부담인식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보다 4.6%p 더 높아짐
- (2020년 기준) 가장 부담이 되는 교육비 요인은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 64.7%, 학교납입금 21.4%, 하숙·자취·기숙사비 13.9% 순으로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6년 이후 학교납입금에 대한 부담인식은 감소한 반면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높고, 하숙, 자취, 기숙사비와 같은 교육용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

〈그림 4-10〉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6~2020, 2년주기)



〈표 4-10〉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교육비 부담인식	부담요인					
		계	학교납입금	학교납입금 외 교육비	교재비	하숙, 자취 · 기숙사비	기타
2016	61.8	100.0	30.0	62.1	1.1	6.7	0.1
2018	62.8	100.0	27.8	65.2	-	7.0	0.1
2020	66.4	100.0	21.4	64.7	-	13.9	0.0

주 : 1)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임

2) 교육비 부담인식은 "매우 부담"과 "약간 부담" 응답률의 합임

3) 2020년부터 '보충교육비' →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로 명칭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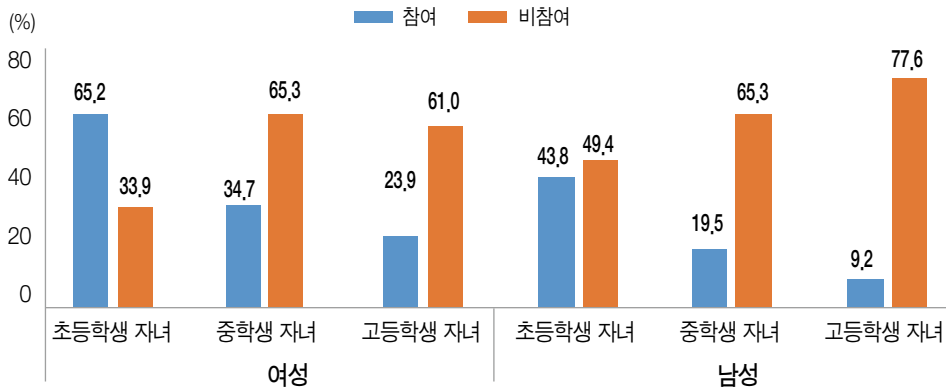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학교급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 감소

»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는 여성이 높고, 남녀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감소함

- (2020년 기준) 여성의 학교운영 참여도는 초등학교 65.2%, 중학교 34.7%, 고등학교 23.9%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음. 남성 참여도도 초등학교 43.8%, 중학교 19.5%, 고등학교 9.2%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참여도가 가장 높음
- 또한 남녀 모두 자녀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교운영 참여도가 낮아졌으며, 특히 남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도 감소와 함께 비참여 증가가 나타남. 더불어 모든 학교급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학교운영 참여도가 더 높음

〈그림 4-11〉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2020)



〈표 4-11〉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2020)

(단위 : %)

구분		참여함	보통	참여하지 않음
초등학생 자녀	전체	54.2	59.4	41.9
	여성	65.2	61.9	33.9
	남성	43.8	57.0	49.4
중학생 자녀	전체	27.3	65.1	65.3
	여성	34.7	74.4	65.3
	남성	19.5	55.2	65.3
고등학생 자녀	전체	16.4	44.3	69.6
	여성	23.9	40.9	61.0
	남성	9.2	47.4	77.6

주 : 1)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임

2) 참여함=활발히 참여함+어느 정도 참여함. 참여하지 않음=별로 참여하지 않음+전혀 참여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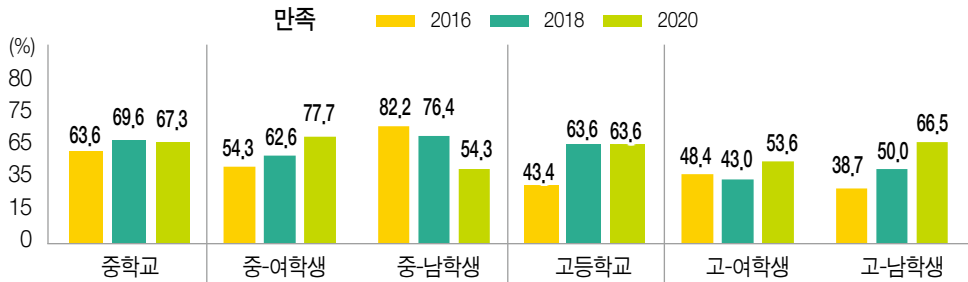
다. 교육효과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중학생 67.3%, 고등학생 60.8%

»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고, 2016년 이후 중학교는 여학생의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남학생의 만족도가 증가함

- (2020년 기준) 중학교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67.3%이며, 성별 만족도는 여학생 77.7%, 남학생 54.3%로 여학생이 23.4%p 더 높음. 고등학교의 만족도는 60.8%로 중학교보다 6.5%p 낮음. 성별 만족도는 여학생 53.6%, 남학생 66.5%로 중학교와 달리 남학생의 만족도가 12.9%p 더 높음
- 지난 2016년 이후 중학교는 여학생의 만족도가 증가한 반면 남학생의 만족도는 감소하였으며, 고등학교는 남학생의 만족도가 증가함

〈그림 4-12〉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표 4-12〉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2016			2018			2020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48.2	48.1	3.7	56.1	42.6	1.2	63.5	27.4	9.1
여성	48.3	49.2	2.6	50.9	46.6	2.4	65.1	24.6	10.4
남성	48.1	47.1	4.9	61.7	38.3	0.0	62.0	30.1	7.8
중학교재학	63.6	36.3	0.0	69.6	30.4	0.0	67.3	28.6	4.1
여성	54.3	45.7	0.0	62.6	37.4	0.0	77.7	22.2	-
남성	82.2	17.9	0.0	76.4	23.6	0.0	54.3	36.5	9.2
고등학교재학	43.4	53.6	3.0	46.3	51.5	2.2	60.8	26.6	12.6
여성	48.4	46.9	4.7	43.0	52.9	4.1	53.6	26.7	19.8
남성	38.7	59.7	1.6	50.0	50.0	0.0	66.5	26.5	7.0
대학교이상 재학	52.5	42.3	5.3	-	-	-	-	-	-
여성	46.7	53.2	0.0	-	-	-	-	-	-
남성	56.8	34.0	9.3	-	-	-	-	-	-

주 : 1) 2018년부터 13세 이상 재학생 대상이며, 그 이전은 15세 이상 재학생 대상임

2) 2018년부터 대학교이상 재학 항목 삭제됨

3)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이며,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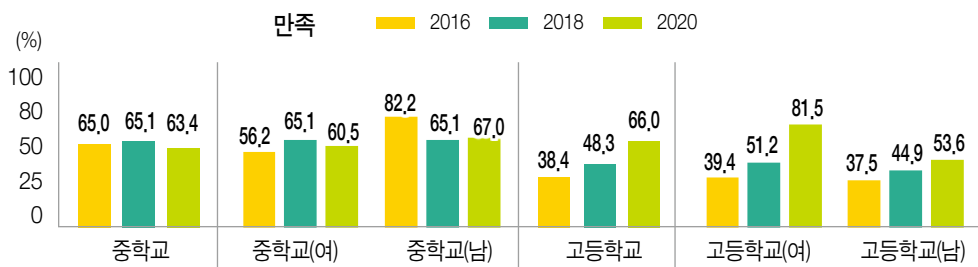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교육내용 만족도 중학생 63.4%, 고등학생 66.0%

» 2016년 이후 고등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가 남녀 모두 증가함

- (2020년 기준) 중학교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63.4%이며, 성별로는 여학생 60.5%, 남학생 67.0%로 남학생의 만족도가 6.5%p 더 높음. 고등학교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66.0%로 중학교보다 2.6%p 더 높고, 성별로는 여학생 81.5%, 남학생 53.6%로 여학생이 27.9%p 더 높음
- 중학교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2016년 이후 64% 전후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남학생은 2016년보다 15.2%p 감소하여 여학생보다 감소폭이 큼
- 고등학교의 교육내용 만족도는 2016년 이후 남·여학생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학생은 2016년보다 42.1%p 증가하여 남학생보다 증가폭이 큼

〈그림 4-13〉 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표 4-13〉 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2016			2018			2020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37.1	53.3	9.6	55.4	36.3	8.3	64.9	29.6	5.5
여성	33.4	56.2	10.4	56.9	30.8	12.3	71.5	18.7	9.8
남성	40.3	50.8	9.0	53.8	42.1	4.0	58.6	40.0	1.4
중학교재학	65.0	35.0	0.0	65.1	24.4	10.5	63.4	28.2	8.3
여성	56.2	43.8	0.0	65.1	23.0	11.9	60.5	24.4	15.0
남성	82.2	17.9	0.0	65.1	25.8	9.1	67.0	33.0	0.0
고등학교재학	38.4	48.4	13.3	48.3	45.0	6.6	66.0	30.5	3.5
여성	39.4	44.5	16.1	51.2	36.1	12.6	81.5	13.5	5.1
남성	37.5	51.9	10.7	44.9	55.0	0.0	53.6	44.1	2.3
대학교이상 재학	31.4	62.5	6.1	-	-	-	-	-	-
여성	19.6	76.2	4.2	-	-	-	-	-	-
남성	40.3	52.2	7.6	-	-	-	-	-	-

주 : 1) 2018년부터 13세 이상 재학생 대상이며, 그 이전은 15세 이상 재학생 대상임

2) 2018년부터 대학교이상 재학 항목 삭제됨

3)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이며,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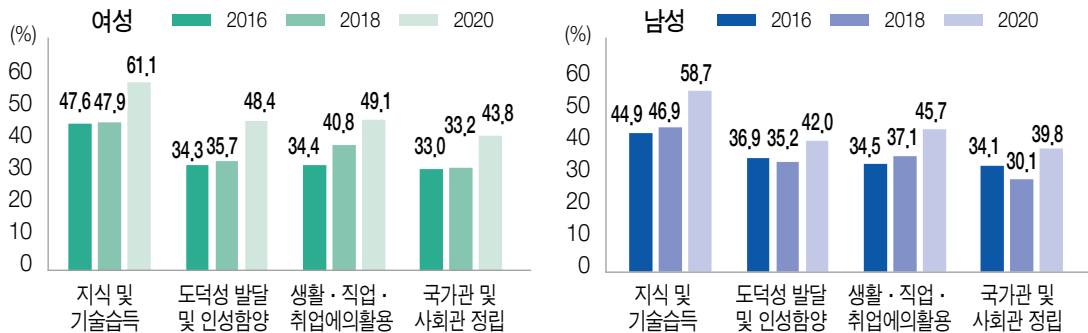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학교 교육이 지식 및 기술습득에 효과적 59.9%(여성 61.1%, 남성 58.7%)

» 학교 교육효과 인식은 '지식 및 기술 습득'이 가장 높고, 2016년 이후 남녀 모두 증가함

- (2020년 기준) 학교 교육이 '지식 및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여성 61.1%, 남성 58.7%로 다른 분야보다 효과인식이 높음. '도덕성 발달 및 인성함양' 효과 인식은 여성 48.4%, 남성 42.0%, '생활·직업·취업에의 활용' 효과 인식은 여성 49.1%, 남성 45.7%,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효과 인식은 여성 43.8%, 남성 39.8%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효과인식이 더 높음
- 학교 교육효과 인식은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비롯한 4개 분야 모두 지난 2016년보다 효과인식이 높아짐

〈그림 4-14〉 교육효과 인식(2016~2020, 2년주기)



〈표 4-14〉 교육효과 인식(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지식 및 기술습득	도덕성 발달 및 인성함양	생활·직업·취업에의활용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2016	전체	46.2	35.6	34.4	33.6
	여성	47.6	34.3	34.4	33.0
	남성	44.9	36.9	34.5	34.1
2018	전체	47.4	35.4	39.0	31.7
	여성	47.9	35.7	40.8	33.2
	남성	46.9	35.2	37.1	30.1
2020	전체	59.9	45.2	47.4	41.8
	여성	61.1	48.4	49.1	43.8
	남성	58.7	42.0	45.7	39.8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교육효과는 각 분야에 대한 '매우 효과 있음'과 '약간 효과 있음'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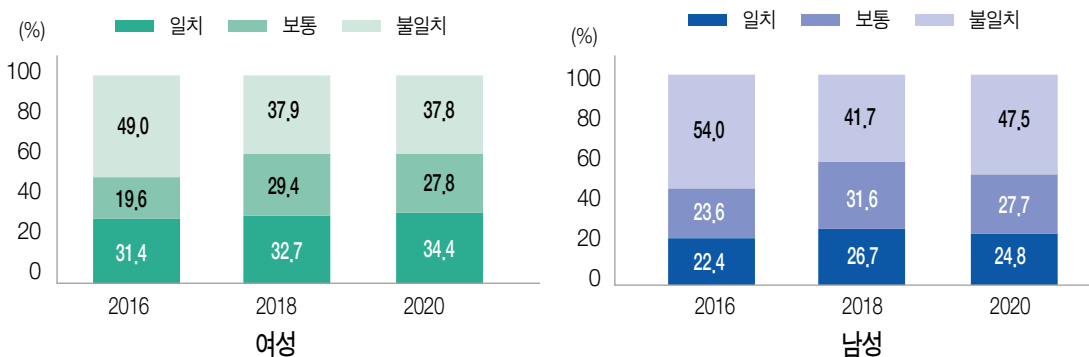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여성 37.8%, 남성 47.5%

» 전공과 직업의 일치에 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불일치 인식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전공과 직업의 일치에 대한 평가는 불일치 43.1%, 일치 29.2%로 불일치 인식이 13.9%p 더 높음. 불일치 인식은 여성 37.8%, 남성 47.5%로 남성이 9.7%p 더 높고, 일치 인식은 여성 34.4%, 남성 24.8%로 여성이 9.6%p 더 높아 불일치 인식은 남성이 더 높고 일치인식은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불일치 인식은 남녀 모두 2016년보다 감소한 반면 일치 인식은 남녀 모두 2016년보다 증가함

〈그림 4-15〉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6~2020, 2년주기)



〈표 4-15〉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일치	보통	불일치	계
2016	전체	26.5	21.8	51.7	100.0
	여성	31.4	19.6	49.0	100.0
	남성	22.4	23.6	54.0	100.0
2018	전체	29.3	30.6	40.0	100.0
	여성	32.7	29.4	37.9	100.0
	남성	26.7	31.6	41.7	100.0
2020	전체	29.2	27.7	43.1	100.0
	여성	34.4	27.8	37.8	100.0
	남성	24.8	27.7	47.5	100.0

주 : 1) 13세 이상 인구 중 학생(재학생, 휴학생 등)이 아닌 사람의 응답임

2) 일치: '매우 일치'와 '일치하는 편' 응답률의 합이며, 불일치는 '관계없는 편'과 '전혀 관계없음' 응답률의 합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5

경제활동 Economic Activity

05 경제활동 Economic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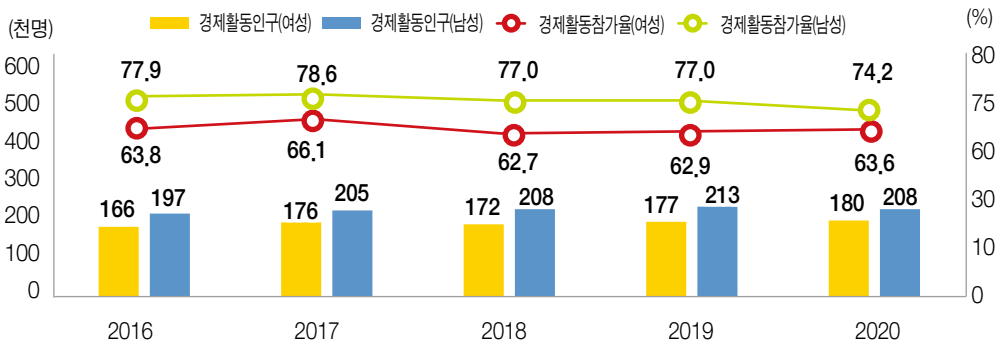
가. 경제활동 인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63.6%

»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남성은 감소함

- (2020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38만8천명(여성 18만명, 남성 20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 감소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남성보다 2만8천명 더 적음
- (2020년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은 68.8%(여성 63.6%, 남성 74.2%)로 전년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보다 10.6%p 더 낮음

〈그림 5-1〉 경제활동참가율(2016~2020)



〈표 5-1〉 경제활동참가율(2016~2020)

(단위 : 천명,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6	363	166	197	70.8	63.8	77.9	62.9	52.2	74.0
2017	382	176	205	72.3	66.1	78.6	63.2	52.7	74.1
2018	379	172	208	69.8	62.7	77.0	63.1	52.9	73.7
2019	390	177	213	69.9	62.9	77.0	63.3	53.5	73.5
2020	388	180	208	68.8	63.6	74.2	62.5	52.8	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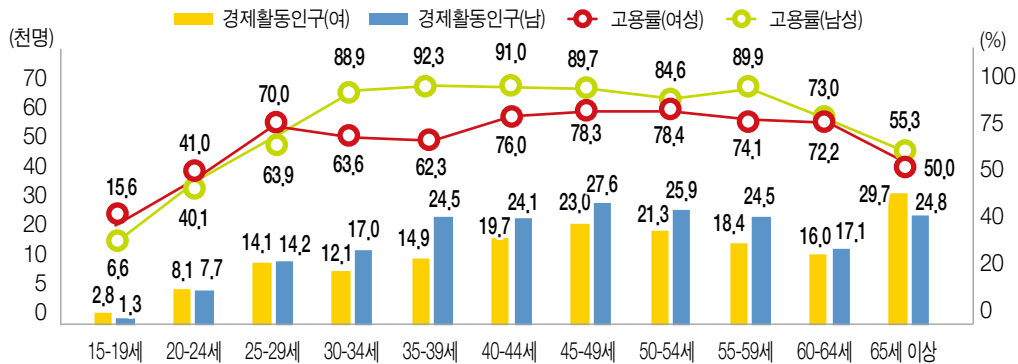
주 :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 ~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 고용률 격차 최대

» 남녀의 고용률 격차는 30대에 가장 크게 나타남

- (2020년 기준) 성별 고용률은 30세 미만과 65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더 높음
- 성별 고용률 격차는 여성이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영향을 받는 3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고용률 최고점 역시 여성은 50~54세(78.4%)와 45~49세(78.3%)인 반면 남성은 35~39세(92.3%)와 40~44세(91.0%)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시장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지만 고용률은 5.3%p 더 낮아 65세 이상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그림 5-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20)



〈표 5-2〉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20)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5-19세	2.8	1.3	15.6	6.6
20-24세	8.1	7.7	41.0	40.1
25-29세	14.1	14.2	70.0	63.9
30-34세	12.1	17.0	63.6	88.9
35-39세	14.9	24.5	62.3	92.3
40-44세	19.7	24.1	76.0	91.0
45-49세	23.0	27.6	78.3	89.7
50-54세	21.3	25.9	78.4	84.6
55-59세	18.4	24.5	74.1	89.9
60-64세	16.0	17.1	72.2	73.0
65세 이상	29.7	24.8	50.0	55.3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0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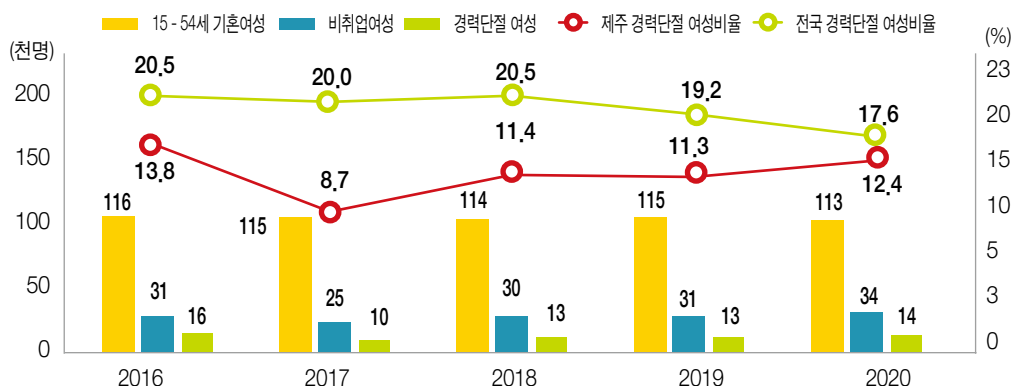
나. 경력단절 여성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 12.4%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전년보다 1천명 증가하였으며,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음

- (2020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11만3천명, 비취업 여성은 3만4천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 여성은 1만4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의 12.4%를 차지하고 있음
- 15~54세 기혼여성 규모는 전년보다 2천명 감소하였고, 비취업 여성 규모는 전년보다 3천명 증가함.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전년보다 1천명 증가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전국 수준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5-3〉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6~2020)



〈표 5-3〉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6~2020)

(단위 : 천명, %)

구분	15 - 54세 기혼여성	경력단절 여성		제주 경력단절 여성비율	전국 경력단절 여성비율
		비취업여성	경력단절 여성		
2016	116	31	16	13.8	20.5
2017	115	25	10	8.7	20.0
2018	114	30	13	11.4	20.5
2019	115	31	13	11.3	19.2
2020	113	34	14	12.4	17.6

주 : 1)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여성 중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 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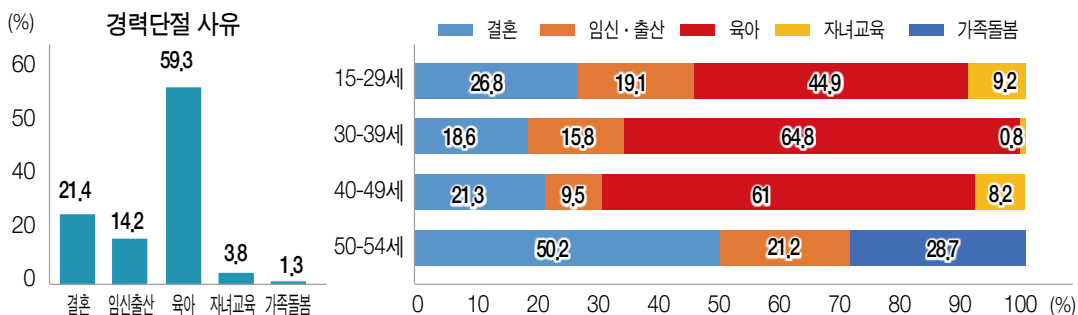
2)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가 변경됨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59.3%

»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된 사유는 육아(59.3%)인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 59.3%, 결혼 21.4%, 임신·출산 14.2%, 자녀교육 3.8%, 가족돌봄 1.3% 순으로 나타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비중이 가장 큼
-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육아는 가장 큰 경력단절 사유로 나타남

〈그림 5-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



〈표 5-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

(단위 : %)

구분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전체	21.4	14.2	59.3	3.8	1.3
15-29세	26.8	19.1	44.9	9.2	-
30-39세	18.6	15.8	64.8	0.8	-
40-49세	21.3	9.5	61.0	8.2	-
50-54세	50.2	21.2	-	-	28.7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0년 상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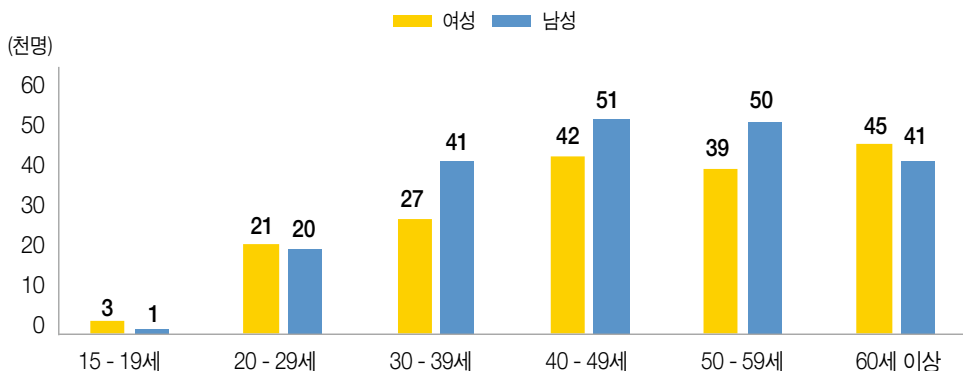
다. 취업현황

40대 취업자 최다, 30대 성별격차 최대

» 취업자 수의 성별격차는 30대가 가장 크며, 30대의 성별격차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임

- (2020년 기준) 취업자 수는 38만1천명 중 여성은 17만7천명, 남성은 20만4천명으로 여성 취업자 수가 2만6천명 더 적음
- 취업자 수의 성별격차는 30대가 1만4천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50대 1만명, 40대 9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30대부터 50대까지는 남성 취업자가 더 많음. 30대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5〉 연령별 취업자(2020)



〈표 5-5〉 연령별 취업자(2020)

(단위 : 천명)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381	177	204
15 - 19세	4	3	1
20 - 29세	41	21	20
30 - 39세	68	27	41
40 - 49세	93	42	51
50 - 59세	89	39	50
60세 이상	86	45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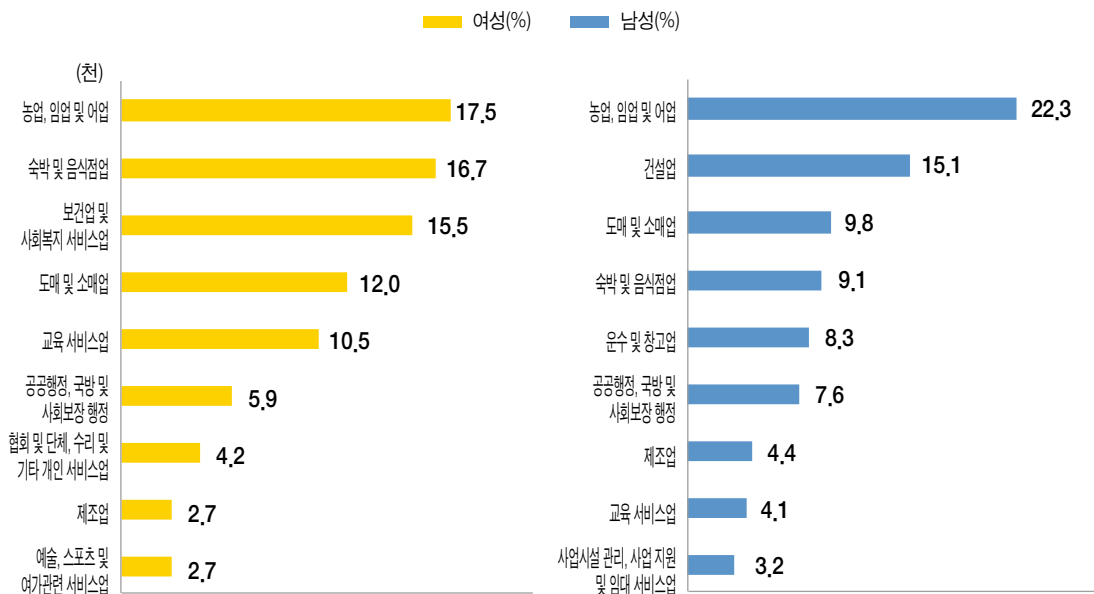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0년 하반기)

여성 취업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최다(17.5%)

» 남녀 취업자 모두 농림어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종사산업은 농림어업 17.5%, 숙박·음식점업 1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 도·소매업 12.0%, 교육서비스업 10.5% 등의 순으로 농림어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차이 2만 1천명), 숙박·음식점업(차이 1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차이 1만 1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건설업(차이 2만 6천명), 운수·창고업(차이 1만 5천명), 농림어업(차이 1만 4천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6〉 취업자의 종사산업 10순위(2020)



〈표 5-6〉 취업자의 종사산업(2020)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	여성 (%)	남성 (%)
계	381 (100.0)	177 (100.0)	204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76 (20.1)	31 (17.5)	45 (22.3)
광업	-	-	-
제조업	14 (3.6)	5 (2.7)	9 (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 (0.4)	0 (0.1)	1 (0.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4)	0 (0.2)	1 (0.5)
건설업	35 (9.3)	5 (2.5)	31 (15.1)
도매 및 소매업	41 (10.8)	21 (12.0)	20 (9.8)
운수 및 창고업	19 (5.0)	2 (1.2)	17 (8.3)
숙박 및 음식점업	48 (12.6)	30 (16.7)	18 (9.1)
정보통신업	2 (0.6)	1 (0.5)	1 (0.7)
금융 및 보험업	10 (2.5)	5 (2.6)	5 (2.5)
부동산업	5 (1.2)	2 (0.9)	3 (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1.9)	3 (1.6)	4 (2.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 (2.8)	4 (2.4)	7 (3.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 (6.8)	10 (5.9)	15 (7.6)
교육 서비스업	27 (7.1)	19 (10.5)	8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3 (8.6)	27 (15.5)	6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 (2.4)	5 (2.7)	4 (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4 (3.6)	7 (4.2)	6 (3.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 (0.2)	1 (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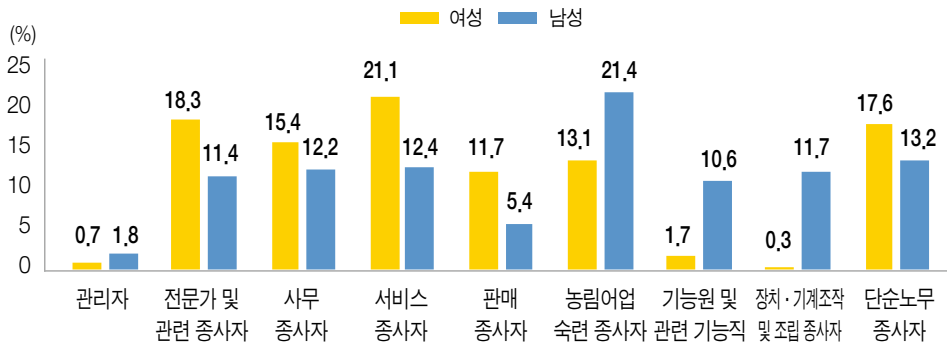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0년 하반기)

여성 취업자 중 서비스 종사자 최다(21.1%)

»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직이 가장 많고, 남성은 농림어업 숙련직이 가장 많음

-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종사직업은 서비스직 21.1%, 전문가 및 관련직 18.3%, 단순노무직 17.6%, 사무직 15.4%, 농림어업직 13.1%, 판매직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농림어업 숙련직 21.4%, 단순노무직 13.2%, 서비스직 12.4%, 사무직 12.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11.7%, 전문가 및 관련직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서비스직(차이 1만 2천명), 판매직(차이 1만명), 전문가 및 관련직(차이 9천명) 등의 순으로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차이 2만 3천명), 농림어업직(차이 2만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차이 1만 9천명) 등의 순으로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7〉 취업자의 종사직업(2020)



〈표 5-7〉 취업자의 종사직업(2020)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관리자	5 (1.3)	1 (0.7)	4 (1.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6 (14.6)	32 (18.3)	23 (11.4)
사무 종사자	52 (13.7)	27 (15.4)	25 (12.2)
서비스 종사자	62 (16.4)	37 (21.1)	25 (12.4)
판매 종사자	32 (8.3)	21 (11.7)	11 (5.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7 (17.5)	23 (13.1)	43 (2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직	25 (6.5)	3 (1.7)	22 (10.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4 (6.4)	1 (0.3)	24 (11.7)
단순노무종사자	58 (15.3)	31 (17.6)	27 (13.2)
계	381 (100.0)	177 (100.0)	2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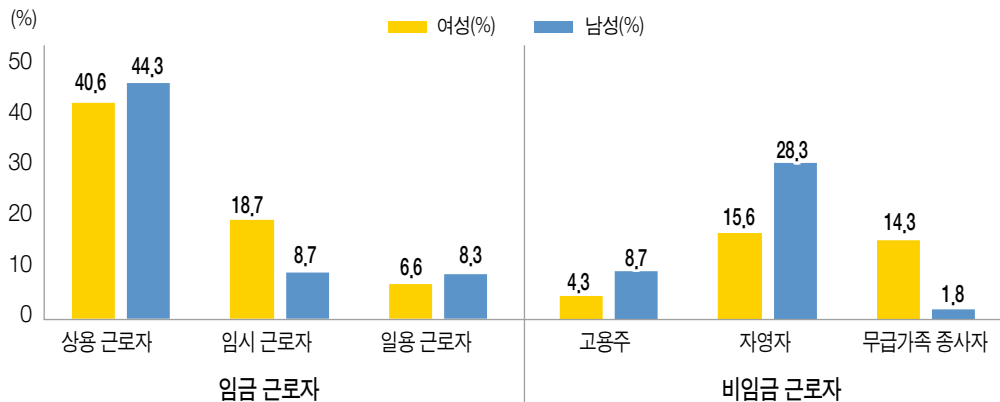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0년 하반기)

여성 취업자는 상용직 40.6%, 자영자 15.6%

»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과 자영자가 가장 많음

- (2020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직 40.6%, 임시직 18.7%, 일용직 6.6%, 자영자 15.6%, 무급가족종사자 14.3%, 고용주 4.3%로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자영자가 가장 많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일용직은 남성이 더 많은 반면, 임시직은 여성이 1만 5천명 더 많음.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여성이 2만 1천명 더 많음

〈그림 5-8〉 취업자의 종사상지위(2020)



〈표 5-8〉 취업자의 종사상지위(2020)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계		381 (100.0)	177 (100.0)	204 (100.0)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162 (42.5)	72 (40.6)	90 (44.3)
	임시 근로자	51 (13.3)	33 (18.7)	18 (8.7)
	일용 근로자	29 (7.5)	12 (6.6)	17 (8.3)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25 (6.6)	8 (4.3)	18 (8.7)
	자영자	85 (22.4)	28 (15.6)	58 (28.3)
	무급가족 종사자	29 (7.6)	25 (14.3)	4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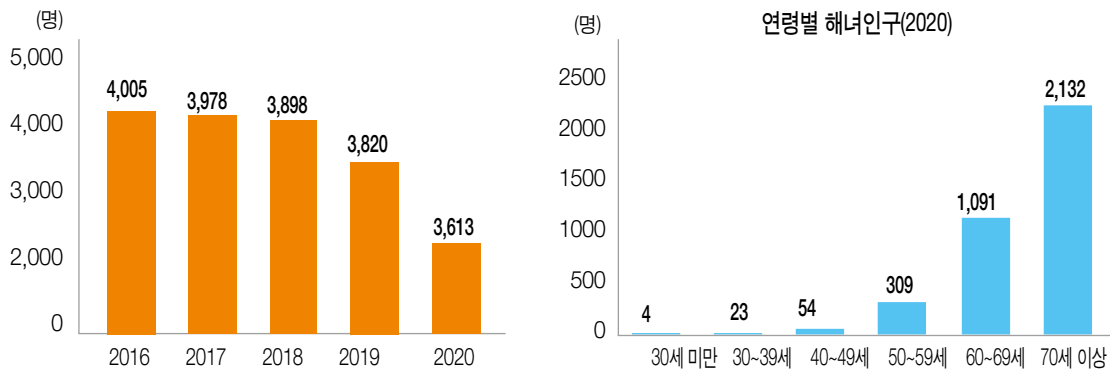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20년 하반기)

해녀인구 3,613명

» 해녀인구는 3,613명이며, 70세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해녀인구는 총 3,613명이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59.0%, 60대 30.2%, 50대 8.6%, 40대 1.5%, 30대 0.6%, 30세 미만 0.1% 순으로 70세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함

〈그림 5-9〉 해녀인구(2016~2020)



〈표 5-9〉 해녀인구(2016~2020)

(단위 : 천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해녀수		4,005	3,978	3,898	3,820	3,613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0	해녀인구	4	23	54	309	1,091	2,132
	비율	0.1	0.6	1.5	8.6	30.2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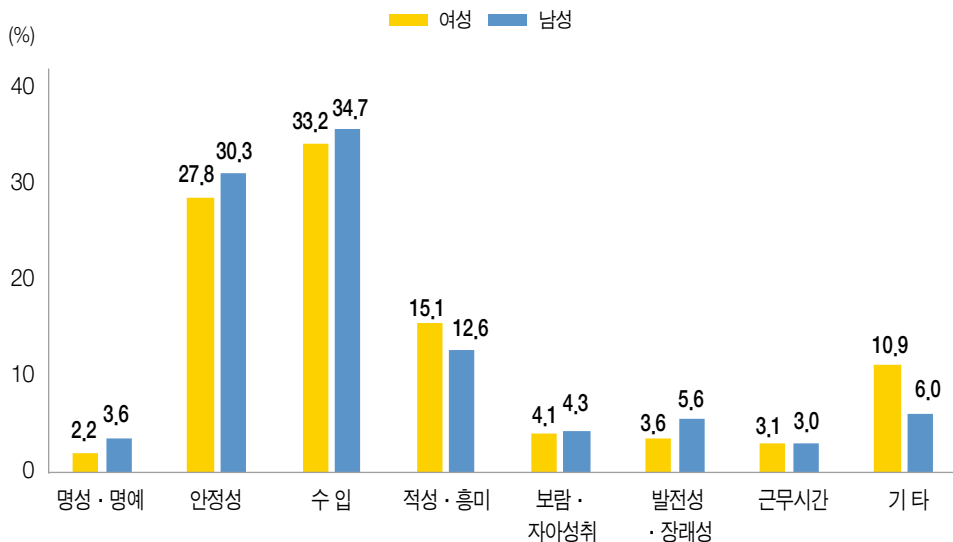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통계연보」

직업 선택시 수입이 가장 중요

» 직업을 선택할 때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직업을 선택할 때 남녀 모두 수입(여성 33.2%, 남성 34.7%), 안정성(여성 27.8%, 남성 30.3%), 적성·흥미(여성 15.1%, 남성 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0〉 직업선택요인(2021)



〈표 5-10〉 직업선택요인(2021)

(단위 : %)

구 분	명성·명예	안정성	수 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근무시간	기 타
전체	2.9	29.0	33.9	13.8	4.2	4.6	3.0	8.5
여성	2.2	27.8	33.2	15.1	4.1	3.6	3.1	10.9
남성	3.6	30.3	34.7	12.6	4.3	5.6	3.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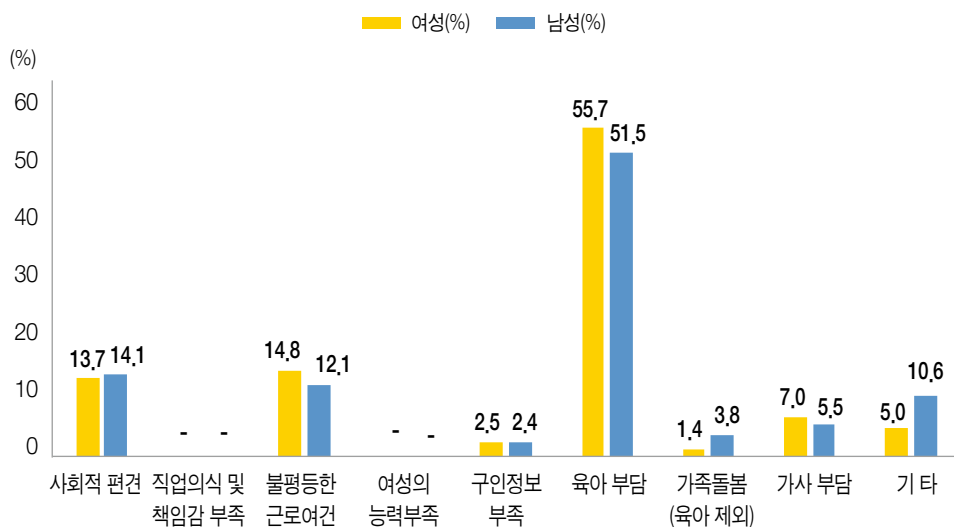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가장 큰 여성취업 장애요인 육아부담 53.6%

» 남녀 모두 육아부담을 가장 큰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이 53.6%(여성 55.7%, 남성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육아부담 외 여성의 여성취업 장애요인은 불평등한 근로여건 14.8%, 사회적 편견 13.7%, 가사부담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여성취업 장애요인은 사회적 편견 14.1%, 불평등한 근로여건 12.1%, 기타 1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5-11〉 여성취업 장애요인(2021)



〈표 5-11〉 여성취업 장애요인(2021)

(단위 : %)

구 분	사회적 편견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의 능력부족	구인정보 부족	육아 부담	가족돌봄 (육아 제외)	가사 부담	기 타
전체	13.9	-	13.4	-	2.4	53.6	2.6	6.3	7.7
여성	13.7	-	14.8	-	2.5	55.7	1.4	7.0	5.0
남성	14.1	-	12.1	-	2.4	51.5	3.8	5.5	1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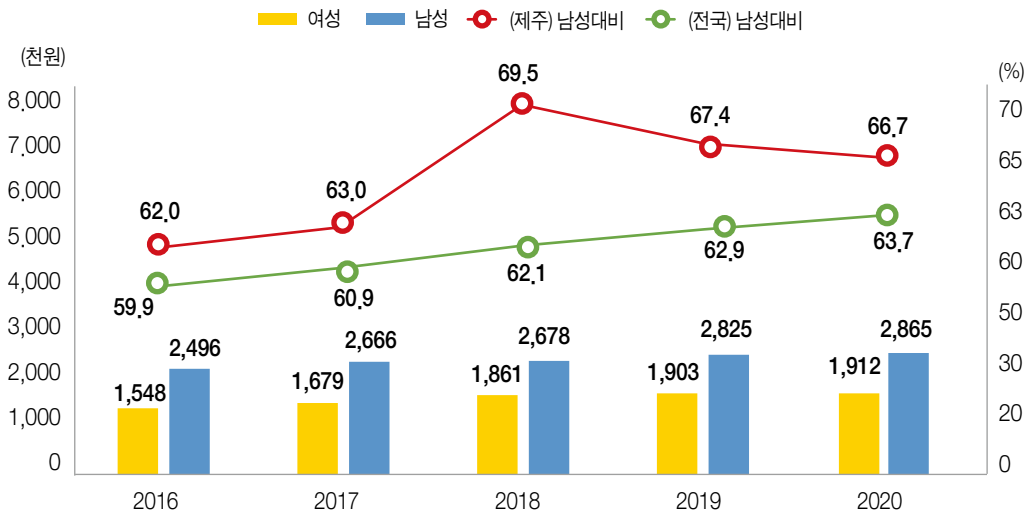
라. 근로조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12천원, 남성 2,865천원

»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남성의 66.7%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보다 낮음

- (2020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여성 1,912천원, 남성 2,865천원으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953천원 더 적음
- (2020년 기준) 남성대비 여성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66.7%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년보다 감소함

〈그림 5-12〉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6~2020)



〈표 5-12〉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6~2020)

(단위 : 천원, %)

구분	제주				전국 남성대비
	전체	여성	남성	남성대비	
2016	2,017	1,548	2,496	62.0	59.9
2017	2,162	1,679	2,666	63.0	60.9
2018	2,280	1,861	2,678	69.5	62.1
2019	2,374	1,903	2,825	67.4	62.9
2020	2,404	1,912	2,865	66.7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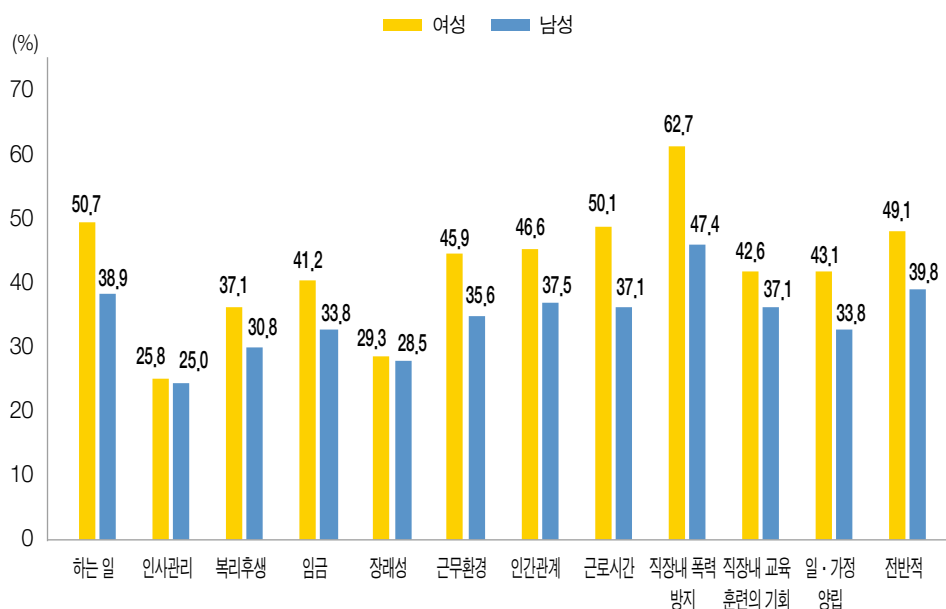
주 : 조사 시점 기준 임금근로자가 지난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으로 세금공제전 임금임
 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2016~2020년 하반기)

여성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만족도 49.1%, 인사관리만족도 최저(25.8%)

» 여성의 직무(하는 일)만족도는 50.7%, 근로조건 중 여성은 직장내 폭력방지 만족(62.7%)이 가장 높고 인사관리 만족(25.8%)이 가장 낮음

- (2021년 기준) 모든 근로조건 만족은 여성이 더 높음. 전반적 근로조건 만족도는 여성 49.1%, 남성 39.8%로 여성이 9.3%p 더 높음
- 여성의 근로조건 만족도는 직장내 폭력방지 62.7%, 직무(하는 일) 50.7%, 근로시간 50.1% 등의 순으로 직장내 교육훈련의 기회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사관리는 25.8%로 가장 낮음
- 남성의 근로조건 만족도는 직장내 폭력방지 47.4%, 직무(하는 일) 38.9%, 인간관계 37.5% 등의 순으로 남성 역시 직장내 교육훈련의 기회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인사관리는 25.0%로 가장 낮음

〈그림 5-13〉 근로조건 만족도(2021)



〈표 5-13〉 근로조건 만족도(2021)

(단위 : %)

구분	여 성				남 성			
	만족	보통	불만족	모르겠음	만족	보통	불만족	모르겠음
하는 일	50.7	42.0	7.2	0.2	38.9	52.2	9.0	-
인사관리	25.8	47.0	22.9	4.3	25.0	51.3	16.7	6.9
복리후생	37.1	37.9	22.6	2.4	30.8	45.6	20.6	2.9
임금	41.2	41.4	17.3	-	33.8	49.6	16.5	-
장래성	29.3	44.1	22.4	4.2	28.5	43.8	23.5	4.2
근무환경	45.9	36.8	16.3	0.9	35.6	48.4	15.6	0.5
인간관계	46.6	44.9	7.7	0.7	37.5	51.9	8.7	2.0
근로시간	50.1	42.5	7.2	0.3	37.1	47.3	15.4	0.2
직장내 폭력 방지	62.7	31.5	2.8	2.9	47.4	43.1	4.5	5.1
직장내 교육훈련의 기회	42.6	47.2	5.1	5.2	37.1	45.6	9.9	7.4
일·가정 양립	43.1	48.9	6.2	1.7	33.8	50.6	11.4	4.3
전반적	49.1	42.2	8.8	0.0	39.8	49.2	11.1	0.0

주 :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임금 근로자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대상 자료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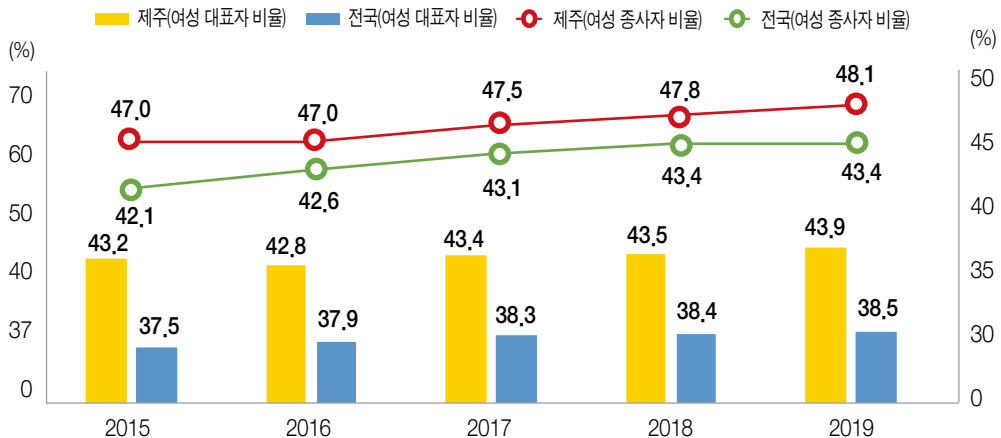
마. 사업체

사업체 여성 대표자 비율 43.9%, 여성 종사자 비율 48.1%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대표자 사업체 비율은 43.9%, 여성 종사자 비율은 48.1%로 전국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체 수는 66,098개임. 이 중 여성대표자 사업체는 29,005개로 43.9%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수준보다 5.4%p 더 높음. 제주도의 여성대표 사업체는 전년보다 1,625개 증가함
- (2019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286,304명임. 이 중 여성은 137,719명으로 48.1%를 차지하였으며 전국 수준보다 4.7%p 더 높음. 여성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5,218명 더 증가함

〈그림 5-14〉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2015~2019)



〈표 5-14〉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2015~2019)

(단위 : 개, 명, %)

구분	대표자 성별 사업체수				성별 종사자 수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전체 사업체	여성 대표자	여성비율	여성 대표자 비율	전체 종사자	여성 종사자	여성비율	여성 종사자 비율
2015	55,155	23,836	43.2	37.5	250,000	117,611	47.0	42.1
2016	57,791	24,745	42.8	37.9	258,188	121,355	47.0	42.6
2017	60,063	26,045	43.4	38.3	262,747	124,785	47.5	43.1
2018	62,871	27,380	43.5	38.4	276,942	132,501	47.8	43.4
2019	66,098	29,005	43.9	38.5	286,304	137,719	48.1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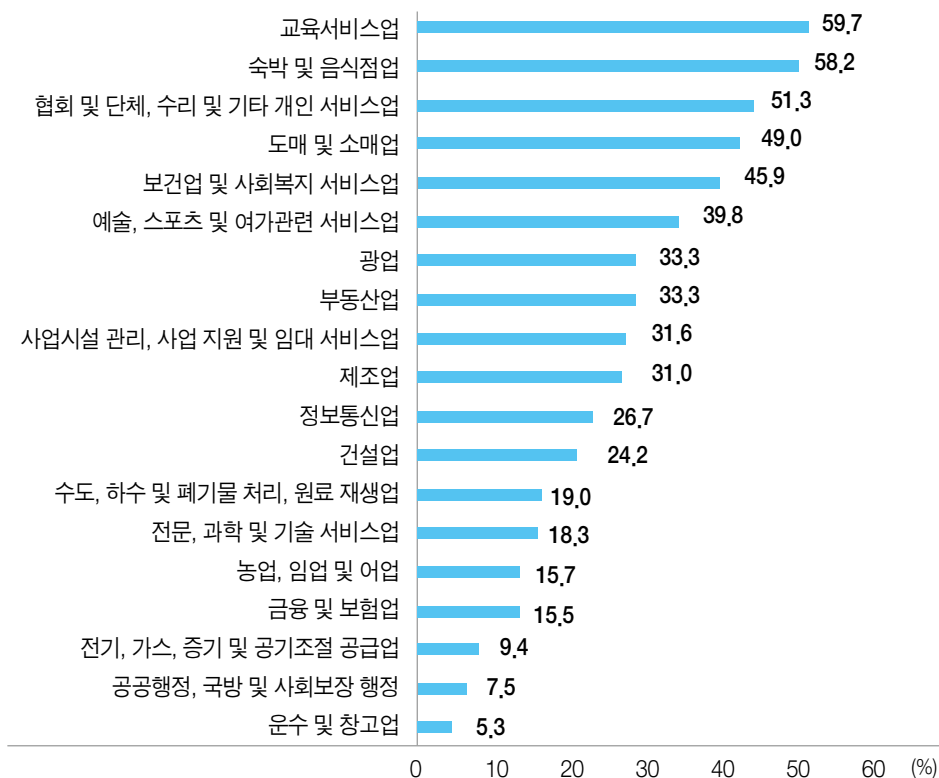
주 : 2017년부터 10차 산업분류로 조사되어, 2016년 이전 자료에 변동이 있음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교육서비스업 여성대표자 사업체 최다

»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59.7%), 숙박 및 음식점업(5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1.3%)임

- 여성대표자 비율이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 59.7%, 숙박 및 음식점업 5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3% 등의 순으로 여성대표자 비율이 더 높은 경우는 일부 산업에 편중됨

〈그림 5-15〉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2019)



〈표 5-15〉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2019)

(단위 : 명, %)

구 분	계	여성	여성비율
전체 산업	66,098	29,005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70	58	15.7
광업	12	4	33.3
제조업	2,658	825	31.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3	5	9.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6	22	19.0
건설업	2,538	614	24.2
도매 및 소매업	15,252	7,481	49.0
운수 및 창고업	6,156	328	5.3
숙박 및 음식점업	19,822	11,546	58.2
정보통신업	359	96	26.7
금융 및 보험업	653	101	15.5
부동산업	2,152	717	3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73	251	18.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23	545	31.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2	16	7.5
교육서비스업	2,851	1,701	5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37	935	4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45	774	39.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816	2,986	51.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6

건강 Health

06 건강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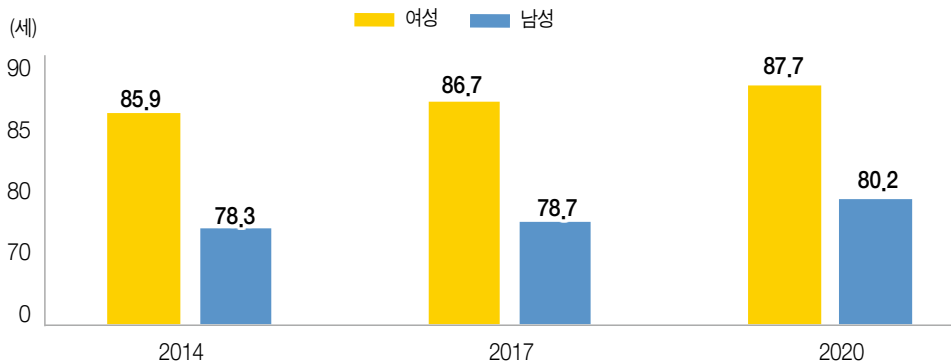
가. 건강상태

기대여명 여성 87.7세, 남성 80.2세

»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7.5년 더 많고, 기대여명의 성별격차는 2017년보다 감소함

- (2020년 기준)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 87.7세, 남성 80.2세로 여성의 기대여명이 7.5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7년에 비해 여성은 1.0세, 남성은 1.5세 더 증가하여 남성의 기대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성별격차도 다소 감소함

〈그림 6-1〉 기대여명(2014~2020, 3년주기)



〈표 6-1〉 기대여명(2014~2020, 3년주기)

(단위 : 세)

구분	기대여명		여성-남성
	여성	남성	
2014	85.9	78.3	7.6
2017	86.7	78.7	8.0
2020	87.7	80.2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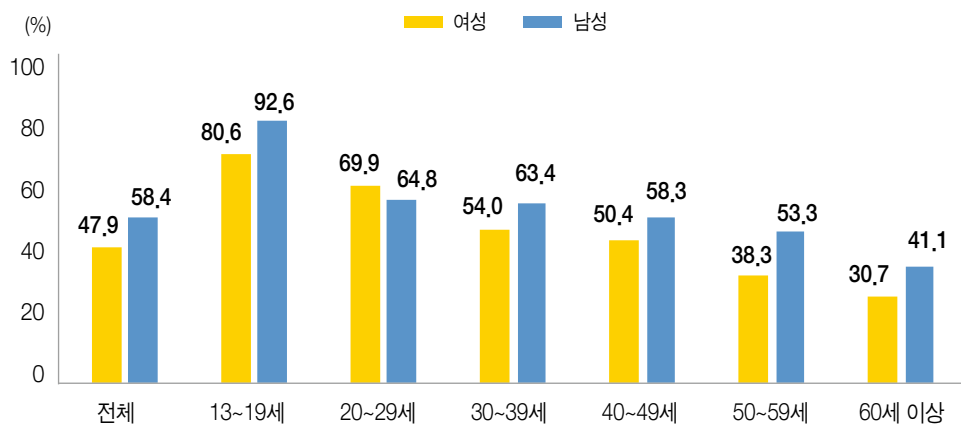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생명표」

주관적 건강인지율 여성 47.9%, 남성 58.4%

»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이 더 높고, 20대는 여성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 47.9%, 남성 58.4%로 남성이 10.5%p 더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하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건강인식은 특히 50대가 15.0%p 차이(여성 38.3%, 남성 53.3%)를 보여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6-2〉 주관적 건강인지율(2020)



〈표 6-2〉 주관적 건강인지율(2020)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전체	53.2	47.9	58.4	-10.5
13~19세	87.1	80.6	92.6	-12.0
20~29세	67.2	69.9	64.8	5.1
30~39세	59.1	54.0	63.4	-9.4
40~49세	54.4	50.4	58.3	-7.9
50~59세	45.6	38.3	53.3	-15.0
60세 이상	35.5	30.7	41.1	-10.4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개인의 건강평가에 대한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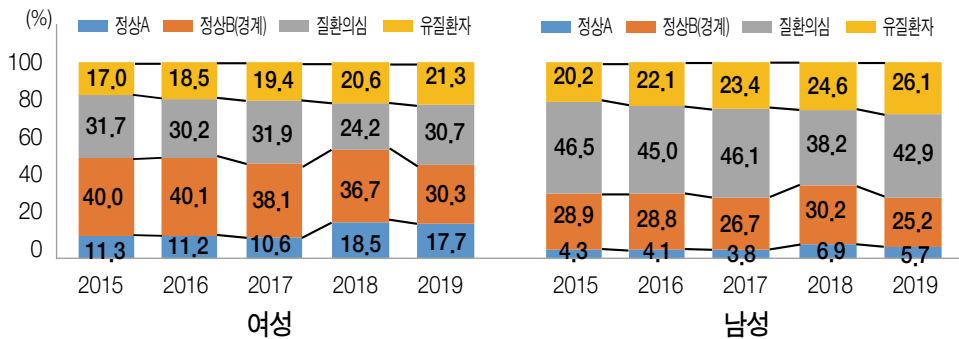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질환의심 비율 여성 30.7%, 남성 42.9% 유질환자 비율 여성 21.3%, 남성 26.1%

» 남녀 모두 전년보다 정상 비율은 낮아진 반면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 비율은 높아짐

- (2019년 기준)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에 의하면, 여성은 질환의심 30.7%, 정상B(경계) 30.3%, 유질환자 21.3%, 정상A 17.7%였으며, 남성은 질환의심 42.9%, 유질환자 26.1%, 정상B(경계) 25.2%, 정상A 5.7%로 나타남
- 여성은 질환의심과 정상B(경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는데 비해 남성은 질환의심이 특히 더 높음. 그러나 유질환자 비율은 최근 5년간 여성과 남성 모두 증가함. 여성 유질환자는 2015년보다 4.3%p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5.9%p 증가함

〈그림 6-3〉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2015~2019)



〈표 6-3〉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2015~2019)

(단위 : 명, %)

구분		계	판정결과							
			정상A	비율	정상B(경계)	비율	질환의심	비율	유 질환자	비율
여성	2015	69,396	7,853	11.3	27,739	40.0	21,994	31.7	11,810	17.0
	2016	73,516	8,234	11.2	29,497	40.1	22,220	30.2	13,565	18.5
	2017	76,143	8,109	10.6	28,979	38.1	24,296	31.9	14,759	19.4
	2018	83,399	15,470	18.5	30,608	36.7	20,165	24.2	17,156	20.6
	2019	96,357	17,028	17.7	29,234	30.3	29,600	30.7	20,495	21.3
남성	2015	68,981	2,977	4.3	19,966	28.9	32,070	46.5	13,968	20.2
	2016	73,370	3,017	4.1	21,113	28.8	32,999	45.0	16,241	22.1
	2017	76,371	2,913	3.8	20,373	26.7	35,196	46.1	17,889	23.4
	2018	87,010	6,043	6.9	26,243	30.2	33,277	38.2	21,447	24.6
	2019	92,601	5,323	5.7	23,359	25.2	39,705	42.9	24,214	26.1

주 : 1) 주민등록지 기준

2) 계는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실인원, 유질환자의 합임

3) 질환의심 실인원은 일반 질환의심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질환 간 중복이 제외된 수치임

4) 2017년까지 전체는 1차 수검인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은 2차 검진대상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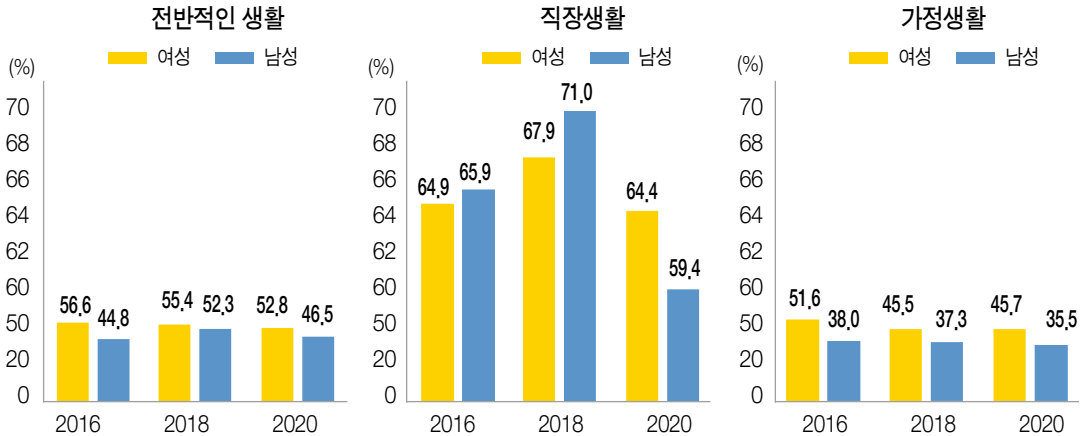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여성

» 전반적인 생활, 직장, 가정에서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남성보다 높음

- (2020년 기준) 전반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여성 52.8%, 남성 46.5%이며, 직장생활에서는 여성 64.4%, 남성 59.4%, 가정생활에서는 여성 45.7%, 남성 35.5%로 모두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남녀모두 직장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인지수준의 남녀차이는 가정생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6-4〉 스트레스 인지(2016~2020, 2년주기)



〈표 6-4〉 스트레스 인지(2016~2020, 2년주기)

(단위 : 명, %)

구분	전반적인 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6	56.6	44.8	64.9	65.9	51.6	38.0
2018	55.4	52.3	67.9	71.0	45.5	37.3
2020	52.8	46.5	64.4	59.4	45.7	35.5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스트레스 정도는 지난 2주일 동안 스트레스 여부로 '매우 느낌'과 '느끼는 편임' 응답률의 합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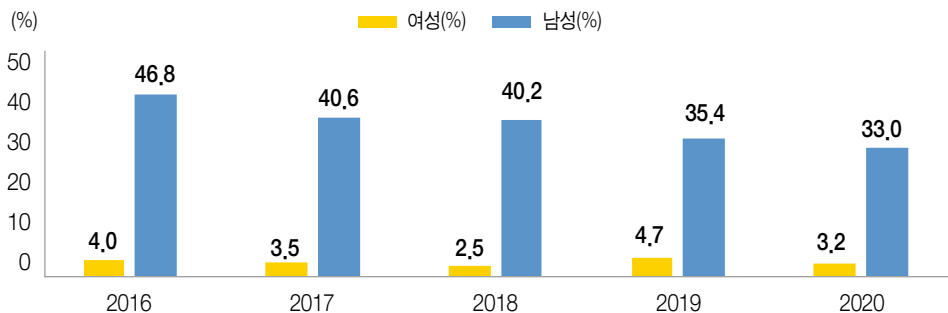
나. 건강행태

현재흡연율 여성 3.2%, 남성 33.0%

» 현재흡연율은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흡연율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음

- (2020년 기준) 현재흡연율은 여성 3.2%, 남성 33.0%로 여성이 29.8%p 더 낮으며, 전년보다 여성은 1.5%p, 남성은 2.4%p 감소함
-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다만 최근 5년간 남성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흡연율은 2016년 4.0%, 2017년 3.5%, 2018년 2.5%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4.7%로 다시 증가하는 등 일정치 않음

〈그림 6-5〉 현재흡연율(2016~2020)



〈표 6-5〉 현재흡연율(2016~2020)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2016	25.3	4.0	46.8	-42.8
2017	22.0	3.5	40.6	-37.1
2018	21.3	2.5	40.2	-37.7
2019	20.0	4.7	35.4	-30.7
2020	18.1	3.2	33.0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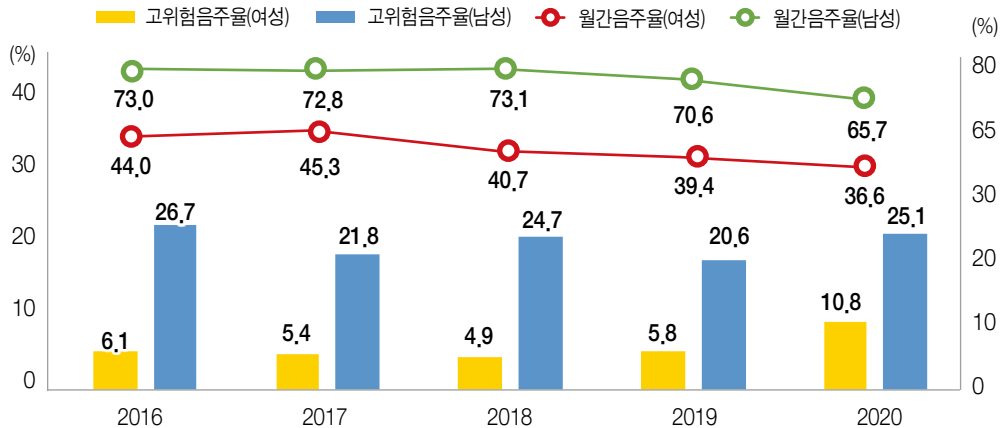
주 : 현재흡연율은 평생(지금까지) 5갑(100개비) 이상 흡연한 사람으로서 현재 흡연하는 사람("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비율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통계」

월간음주율 여성 36.6%, 남성 65.7%, 고위험음주율 여성 10.8%, 남성 25.1%

» 여성의 음주율은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낮음. 다만 전년에 비해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남성보다 더 많이 증가함

- (2020년 기준) 월간음주율은 여성 36.6%, 남성 65.7%로 여성이 남성보다 29.1%p 더 낮고, 전년보다 여성은 2.8%p, 남성은 4.9%p 감소함. 최근 4년간 월간음주율은 남녀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함
- (2020년 기준)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10.8%, 남성 25.1%로 여성이 남성보다 14.3%p 더 낮음. 고위험음주율은 전년보다 여성은 5.0%p, 남성은 4.5%p 증가함

〈그림 6-6〉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6~2020)



〈표 6-6〉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6~2020)

(단위 : %)

구분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전체	여성	남성	여성-남성
2016	58.4	44.0	73.0	-29.0	16.4	6.1	26.7	-20.6
2017	59.0	45.3	72.8	-27.5	13.6	5.4	21.8	-16.4
2018	56.9	40.7	73.1	-32.4	14.8	4.9	24.7	-19.8
2019	55.0	39.4	70.6	-31.2	13.2	5.8	20.6	-14.8
2020	51.1	36.6	65.7	-29.1	19.4	10.8	25.1	-14.3

주 : 1) 월간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고위험음주율: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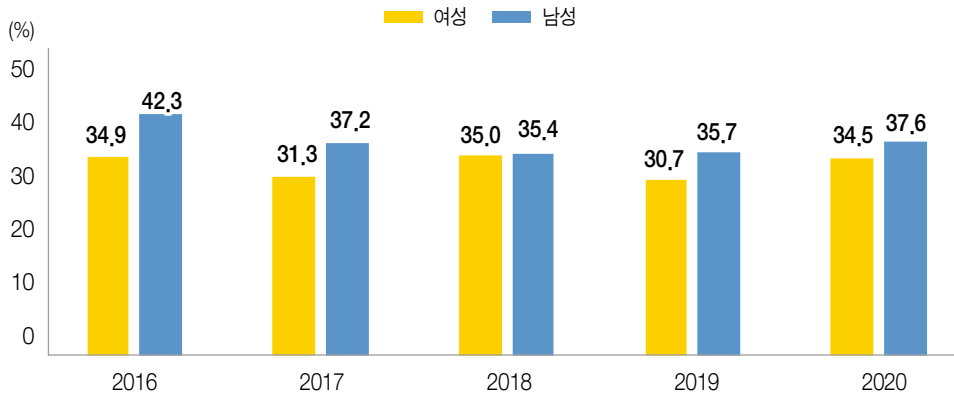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통계」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걷기실천율

» 여성의 걷기실천율은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낮음

- (2020년 기준) 걷기실천율은 여성 34.5%, 남성 37.6%로 여성이 3.1%p 더 낮음. 걷기실천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지속적으로 낮았음
- 걷기실천율은 전년보다 여성은 3.8%p, 남성은 1.9%p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남

〈그림 6-7〉 걷기실천율(2016~2020)



〈표 6-7〉 걷기실천율(2016~2020)

(단위 :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6	38.6	34.9	42.3
2017	34.2	31.3	37.2
2018	35.2	35.0	35.4
2019	33.2	30.7	35.7
2020	36.1	34.5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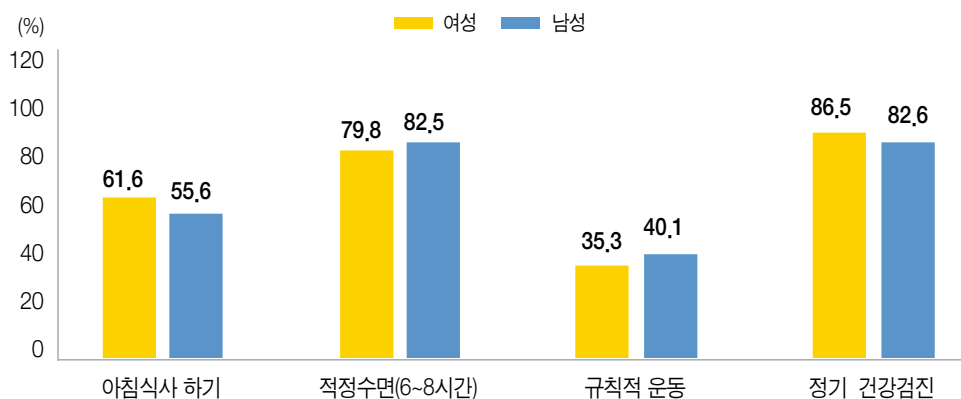
주 : 걷기실천율은 최근 1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1일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건강통계」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 실천 더 필요

»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 실천이 더 필요함

- (2020년 기준) 건강관리를 위한 아침식사 실천은 여성 61.6%, 남성 55.6%, 적정수면 실천은 여성 79.8%, 남성 82.5%,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여성 35.3%, 남성 40.1%, 정기 건강검진 실천은 여성 86.5%, 남성 82.6%로 나타남
- 남녀 모두 정기 건강검진과 적정수면 실천율이 높은 편이나 아침식사하기와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낮음. 특히 여성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35.3%에 그쳐 규칙적인 운동 실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6-8〉 건강관리 실천(2020)



〈표 6-8〉 건강관리 실천(2020)

(단위 : %)

구분	아침식사 하기		적정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실천한다	실천하지 않는다
전체	58.6	41.4	81.1	18.9	37.7	62.3	84.5	15.5
여성	61.6	38.4	79.8	20.2	35.3	64.7	86.5	13.5
남성	55.6	44.4	82.5	17.5	40.1	59.9	82.6	17.4

주 : 건강관리 실천은 '실천한다' 응답률만 표시함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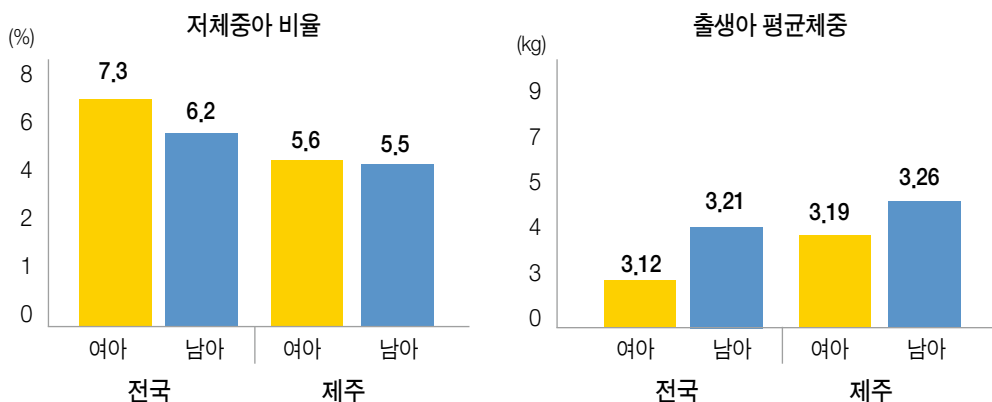
다. 출산, 유병, 사망

**저체중아 비율 여아 5.6%, 남아 5.5%,
출생아 평균체중 여아 3.19kg, 남아 3.26kg**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고, 출생아의 평균체중은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20년 기준) 출생아 중 저체중아 비율은 여아 5.6%, 남아 5.5%로 전국수준보다 여아는 1.7%p, 남아는 0.7%p 더 낮음
- 여아의 평균체중은 여아 3.19kg, 남아 3.26kg으로 여아가 0.07kg 더 적으며, 전국평균보다 여아는 0.07kg, 남아는 0.05kg 더 많음

〈그림 6-9〉 저체중아 비율 및 출생아 평균체중(2020)



〈표 6-9〉 저체중아 비율 및 출생아 평균체중(2016~2020)

(단위 : %, kg)

구분	출생아 중 저체중(2.5kg 미만)아울				출생아 평균체중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남아
2016	6.4	5.4	4.8	5.0	3.15	3.25	3.21	3.28
2017	6.7	5.7	5.9	4.6	3.14	3.24	3.18	3.28
2018	6.7	5.7	6.9	4.9	3.14	3.24	3.18	3.30
2019	7.3	5.9	6.3	4.3	3.13	3.22	3.18	3.27
2020	7.3	6.2	5.6	5.5	3.12	3.21	3.19	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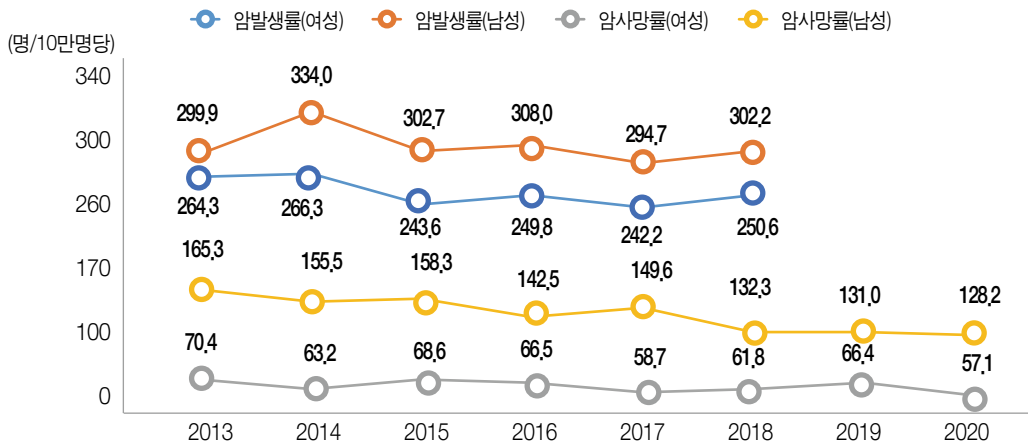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암발생률 여성 250.6명, 남성 302.2명 암사망률 여성 57.1명, 남성 128.2명

» 암발생률과 암사망률은 여성이 더 낮고, 전년대비 암발생률은 증가한 반면 암사망률은 감소함

-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발생률은 여성 250.6명, 남성 302.2명으로 남성의 암발생률이 51.6명 더 많음. 암발생률은 전년보다 여성은 8.4명, 남성은 7.5명 더 증가함
-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암사망률은 여성 57.1명, 남성 128.2명으로 남성이 71.1명 더 많고, 전년보다 여성은 9.3명, 남성은 2.8명 감소함

〈그림 6-10〉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3~2018)과 암사망률(2013~2020)



〈표 6-10〉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3~2018)과 암사망률(2013~2020)

(단위 : 명/인구 10만명당)

구분	암발생률(연령표준화)			암사망률(연령표준화)		
	전체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13	271.8	264.3	299.9	107.4	70.4	165.3
2014	290.6	266.3	334.0	101.7	63.2	155.5
2015	264.8	243.6	302.7	105.2	68.6	158.3
2016	271.6	249.8	308.0	97.8	66.5	142.5
2017	261.4	242.2	294.7	98.6	58.7	149.6
2018	268.6	250.6	302.2	91.3	61.8	132.3
2019	-	-	-	94	66.4	131.0
2020	-	-	-	86.7	57.1	128.2

자료 : 1)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보건복지부, 각년도

2)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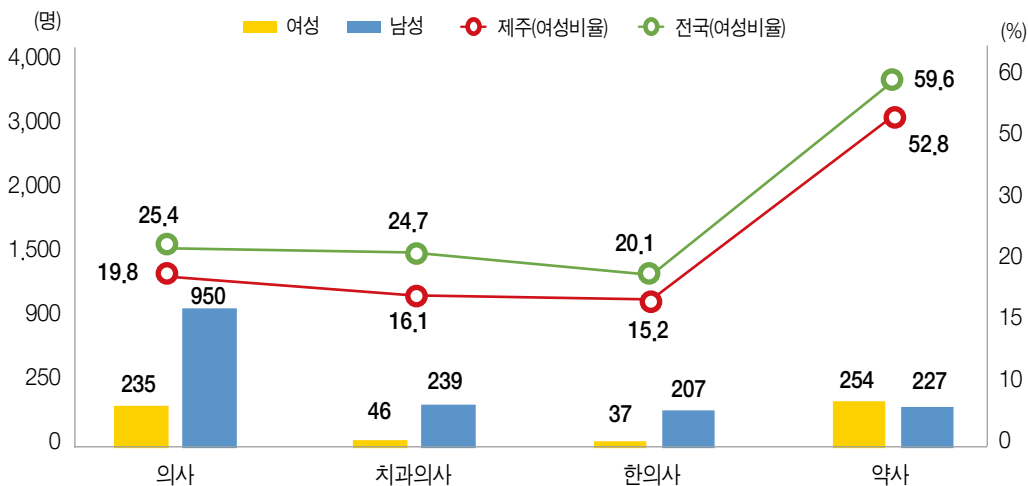
라. 건강증진서비스

**요양기관 여성의료인력 의사 19.8%,
치과의사 16.1%, 한의사 15.2%, 약사 52.8%**

» 요양기관 의료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사(52.8%)를 제외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함

- (2020년 기준)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의료인력은 의사 235명, 치과의사 46명, 한의사 37명, 약사 254명임
- 의료인력 중 여성의 비율은 약사 52.8%, 의사 19.8%, 치과의사 16.1%, 한의사 15.2% 순으로 약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20% 미만으로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국보다도 낮은 수준임

〈그림 6-11〉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20)



〈표 6-11〉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20)

(단위 : 명, %)

구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제주특별 자치도	전체	1,185	285	244	481
	여성	235	46	37	254
	남성	950	239	207	227
	여성비율	19.8	16.1	15.2	52.8
전국 여성비율		25.4	24.7	20.1	5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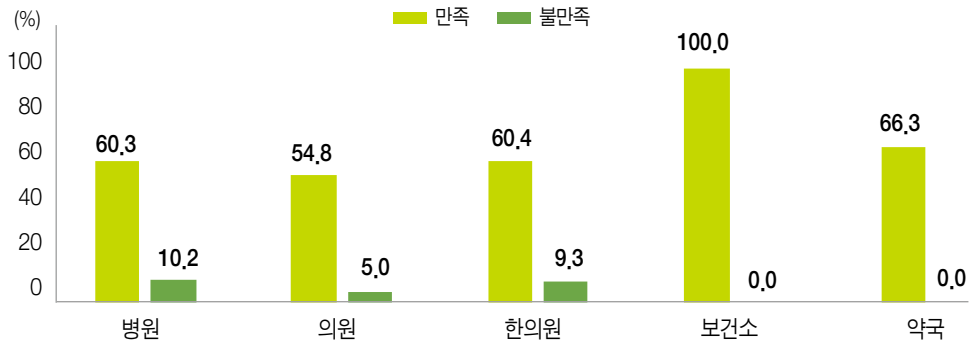
주 :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제주지역 소재 건강보험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임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의료서비스 만족 병원 60.3%, 의원 54.8%

»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가 가장 높고, 의원이 가장 낮음. 다만 불만족은 병원이 10.2%로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 100.0%, 약국 66.3%, 한의원 60.4%, 병원 60.3%, 의원 54.8% 순으로 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
- 불만족은 병원 10.2%, 한의원 9.3%, 의원 5.0% 순으로 병원의 의료서비스 불만족이 가장 높음

〈그림 6-12〉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2020)



〈표 6-12〉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2020)

(단위 : %)

구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만족(매우 만족 + 약간 만족)	불만족(약간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병원	100.0	23.0	37.3	29.5	9.1	1.1	60.3	10.2
의원	100.0	15.9	38.9	40.2	4.9	0.1	54.8	5.0
한의원	100.0	22.6	37.8	30.3	5.4	3.9	60.4	9.3
보건소	100.0	18.4	81.6	0.0	0.0	0.0	100.0	0.0
약국	100.0	18.0	48.3	33.7	0.0	0.0	66.3	0.0

주 :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이며,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률의 합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7

복지 Welfare

07 복지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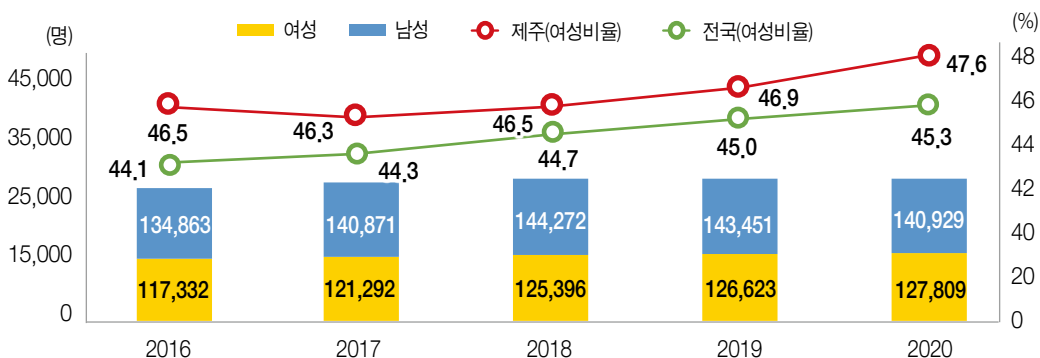
가. 사회보험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비율 47.6%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47.6%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68,738명이며, 이 중 여성은 127,809명으로 가입자의 47.6%를 차지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전국수준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여성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가입자 수는 2019년에는 전년보다 821명 감소, 2020년에는 전년보다 2,522명 감소함

〈그림 7-1〉 국민연금 총 가입자 현황(2016~2020)



〈표 7-1〉 국민연금 총 가입자 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분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전국	2016	21,832,524	9,637,334	12,195,190	44.1
	2017	21,824,172	9,678,833	12,145,339	44.3
	2018	22,313,869	9,966,073	12,347,796	44.7
	2019	22,216,229	10,003,148	12,213,081	45.0
	2020	22,107,028	10,007,565	12,099,463	45.3
제주	2016	252,195	117,332	134,863	46.5
	2017	262,163	121,292	140,871	46.3
	2018	269,668	125,396	144,272	46.5
	2019	270,074	126,623	143,451	46.9
	2020	268,738	127,809	140,929	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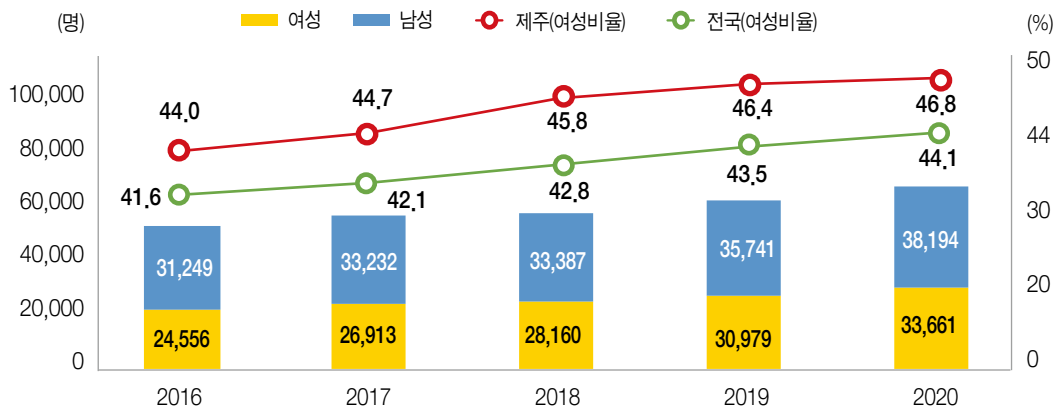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수급자 중 여성비율 46.8%

»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46.8%로 전국수준보다 높음

-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전체 71,855명이며, 이 중 여성은 33,661명으로 가입자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4,533명 더 적음.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전국수준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함. 전년보다 여성은 2,682명, 남성은 2,453명 증가함

〈그림 7-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6~2020)



〈표 7-2〉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분		국민연금 수급자 수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전국	2016	4,384,746	1,826,146	2,558,600	41.6
	2017	4,716,226	1,985,389	2,730,837	42.1
	2018	4,794,376	2,051,712	2,742,664	42.8
	2019	5,190,010	2,256,387	2,933,623	43.5
	2020	5,616,205	2,474,882	3,141,323	44.1
제주	2016	55,805	24,556	31,249	44.0
	2017	60,145	26,913	33,232	44.7
	2018	61,547	28,160	33,387	45.8
	2019	66,720	30,979	35,741	46.4
	2020	71,855	33,661	38,194	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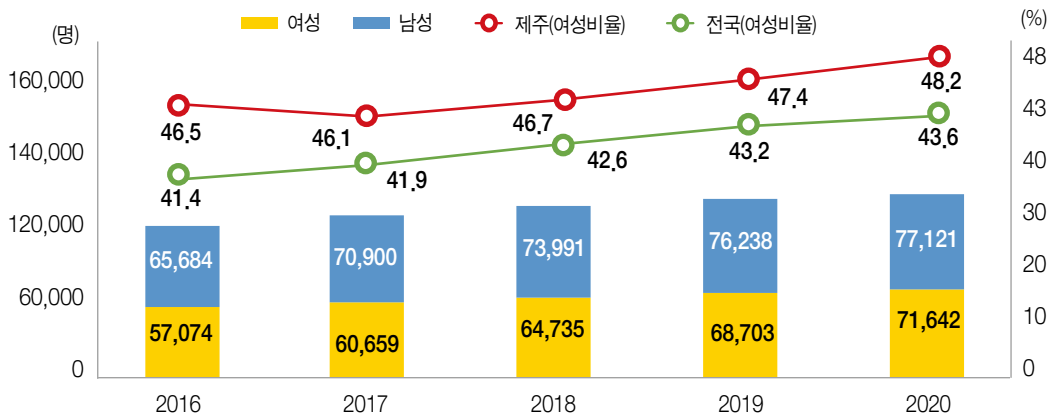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율은 48.2%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율은 48.2%이며, 전국보다 높은 수준임

- (2020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48,763명이며, 이 중 여성은 71,642명, 남성은 77,121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5,479명 더 적음. 전년보다 여성은 2,939명, 남성은 883명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성별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여성비율은 48.2%로 전국(43.6%)보다 4.6%p 더 높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전국보다 4~5%p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7-3〉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6~2020)



〈표 7-3〉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여성비율
		계	여성	남성	
전국	2016	12,655,202	5,244,088	7,411,114	41.4
	2017	12,958,825	5,431,205	7,527,620	41.9
	2018	13,432,497	5,717,676	7,714,821	42.6
	2019	13,864,138	5,989,964	7,874,174	43.2
	2020	14,111,690	6,149,543	7,962,147	43.6
제주	2016	122,758	57,074	65,684	46.5
	2017	131,559	60,659	70,900	46.1
	2018	138,726	64,735	73,991	46.7
	2019	144,941	68,703	76,238	47.4
	2020	148,763	71,642	77,121	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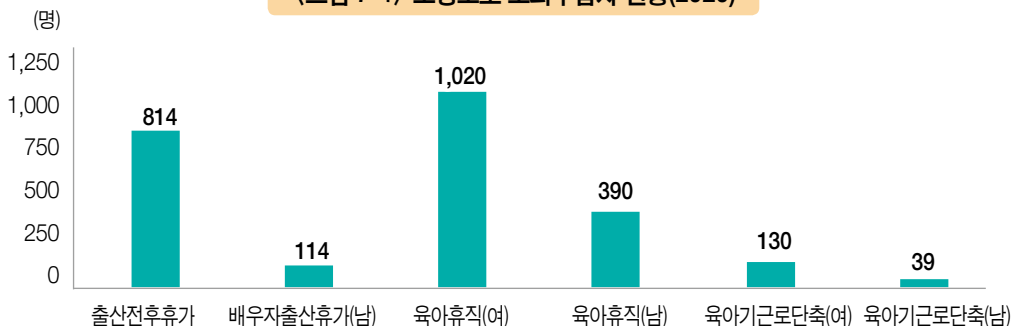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육아휴직 초회수급자 중 남성비율 증가

»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중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급여의 남성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함

- (2020년 기준)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중 임신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814명으로 전년보다 80명 감소하였으며, 남성대상 배우자출산휴가는 114명으로 전년보다 108명 증가함
- (2020년 기준) 육아휴직 초회수급자는 여성 1,020명, 남성 390명으로 남성이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전년보다 44명, 남성은 83명 증가함.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초회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육아기근로단축 초회수급자는 여성 130명, 남성 39명으로 남성이 23.1%를 차지하고 있음. 여성은 전년보다 76명, 남성은 30명 증가하였으며, 남성비율은 전년보다 8.8%p 증가함

〈그림 7-4〉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현황(2020)



〈표 7-4〉 모성보호 초회 수급자 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산전후휴가	전체	1,057	909	907	894	814
	여성	1,057	909	907	894	814
배우자출산휴가	전체	-	-	-	6	114
	남성	-	-	-	6	114
육아휴직	전체	999	909	1,176	1,283	1,410
	여성	917	813	960	976	1,020
	남성	82	96	216	307	390
	남성비율	8.2	10.6	18.4	23.9	27.7
육아기근로단축	전체	30	35	31	63	169
	여성	25	29	27	54	130
	남성	5	6	4	9	39
	남성비율	16.7	17.1	12.9	14.3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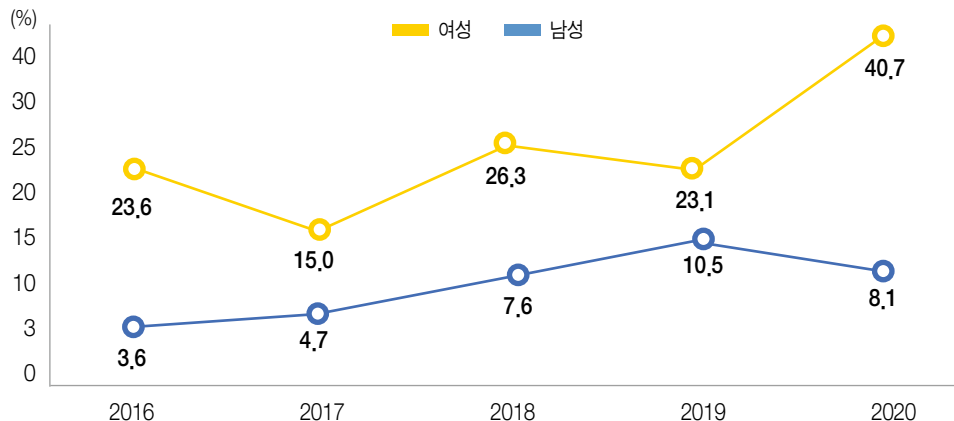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40.7%, 남성 8.1%

»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용률은 여전히 낮음

- (2020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수는 여성 489명, 남성 677명으로 남성이 더 많지만 이용자 수는 여성 199명, 남성 55명으로 여성이 더 많음
- (2020년 기준)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여성 40.7%, 남성 8.1%로 남성이 32.6%p 더 낮음. 다만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지난 2016년에 비해 4.5%p 증가함

〈그림 7-5〉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2016~2020)



〈표 7-5〉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 분	대상자 수			이용자 수			이용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2016	998	339	659	104	80	24	10.4	23.6	3.6
2017	2,197	802	1,395	185	120	65	8.4	15.0	4.7
2018	1,328	353	975	167	93	74	12.6	26.3	7.6
2019	1,345	554	791	211	128	83	15.7	23.1	10.5
2020	1,166	489	677	254	199	55	21.8	40.7	8.1

주 : 이용률 = (이용자수/대상자수) ×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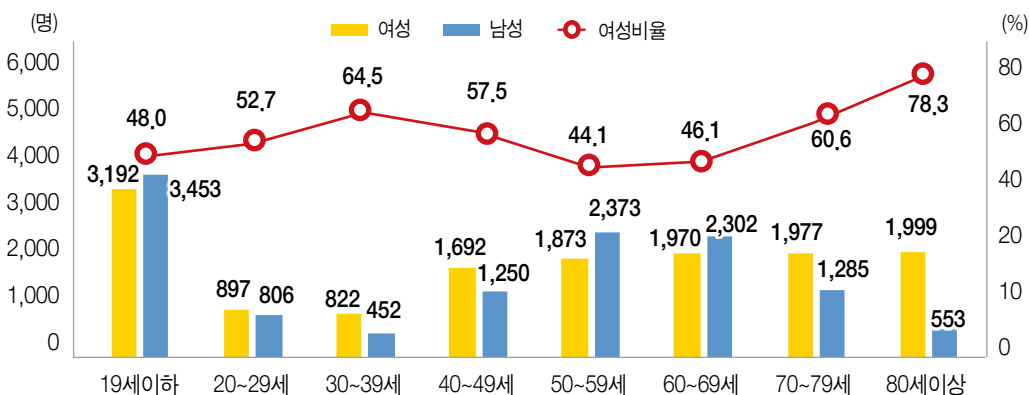
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19세 이하 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19세 이하가 가장 많고, 여성비율은 80세 이상이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는 여성 14,422명, 남성 12,474명으로 여성이 1,948명 더 많고, 여성비율은 53.6%임
-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19세 이하가 가장 많음. 그 다음으로 여성은 80세 이상, 70대, 60대 등의 순으로 높았으나, 남성은 50대, 60대, 70대 등의 순으로 약간 차이가 있음
- 그 중 80세 이상은 여성이 1,446명 더 많아 가장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50대는 남성이 500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7-6〉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2020)



〈표 7-6〉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2020)

(단위 :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계	26,896	14,422	12,474	53.6
19세이하	6,645	3,192	3,453	48.0
20~29세	1,703	897	806	52.7
30~39세	1,274	822	452	64.5
40~49세	2,942	1,692	1,250	57.5
50~59세	4,246	1,873	2,373	44.1
60~69세	4,272	1,970	2,302	46.1
70~79세	3,262	1,977	1,285	60.6
80세이상	2,552	1,999	553	78.3

주 : 일반수급자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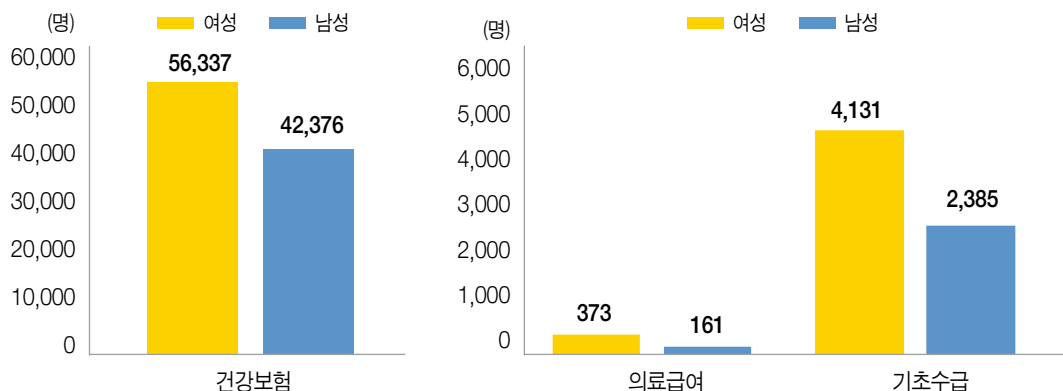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65세 이상 의료급여 여성 69.9%, 기초수급 여성 63.4%

»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인구 및 의료급여자, 기초수급자 모두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 인구는 여성 56,337명, 남성 42,376명으로 여성이 13,961명 더 많고 전체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 인구의 57.1%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자는 여성 373명, 남성 161명으로 여성이 212명 더 많고, 전체 65세 이상 의료급여자의 69.9%를 차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여성 4,131명, 남성 2,385명으로 여성이 1,746명 더 많고, 전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63.4%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7-7〉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2020)



〈표 7-7〉 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 인구(2020)

(단위 : 명, %)

구분	전체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수급	
	계	65세이상	계	65세이상	계	65세이상	계	65세이상
계	689,498	105,763	669,021	98,713	1,048	534	19,429	6,516
여성	342,096	60,841	331,234	56,337	656	373	10,206	4,131
남성	347,402	44,922	337,787	42,376	392	161	9,223	2,385
여성비율	49.6	57.5	49.5	57.1	62.6	69.9	52.5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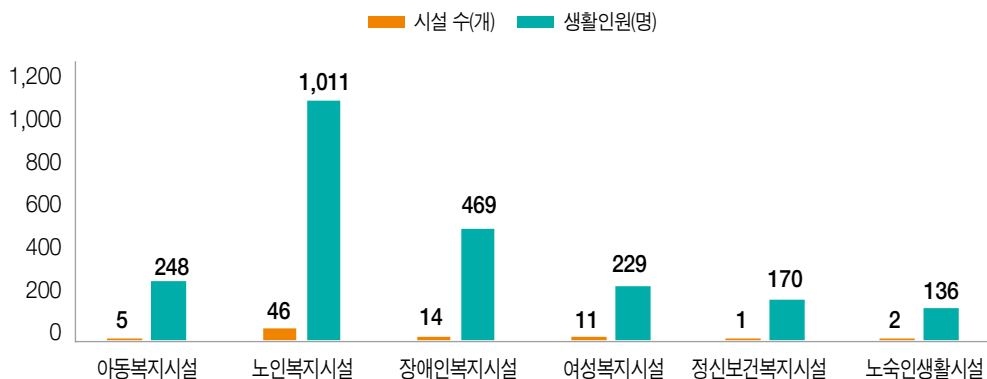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5개소, 노인 46개소, 장애인 14개소, 여성 11개소

- »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시설은 아동 5개, 노인 46개, 장애인 14개, 여성 11개, 정신보건 1개, 노숙인생활시설 2개가 운영 중임
- (2019년 기준)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에 248명이 생활 중이며, 노인복지시설은 46개소 1,011명이 생활 중임.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14개소 469명, 여성복지시설은 11개소 229명, 정신보건시설은 1개소 170명, 노숙인생활시설은 2개소 136명이 생활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전년보다 노인복지시설은 2개소가 감소하였지만 생활인원은 117명 증가함. 장애인 복지시설은 1개소가 증가하였고 생활인원은 7명 감소함

〈그림 7-8〉 사회복지시설 현황(2019)



〈표 7-8 사회복지시설 현황(2018~2019)〉

(단위 : 개소, 명)

구분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보건	노숙인 생활
2018	시설 수	5	48	13	11	1	2
	생활인원	264	894	476	267	173	141
2019	시설 수	5	46	14	11	1	2
	생활인원	248	1,011	469	229	17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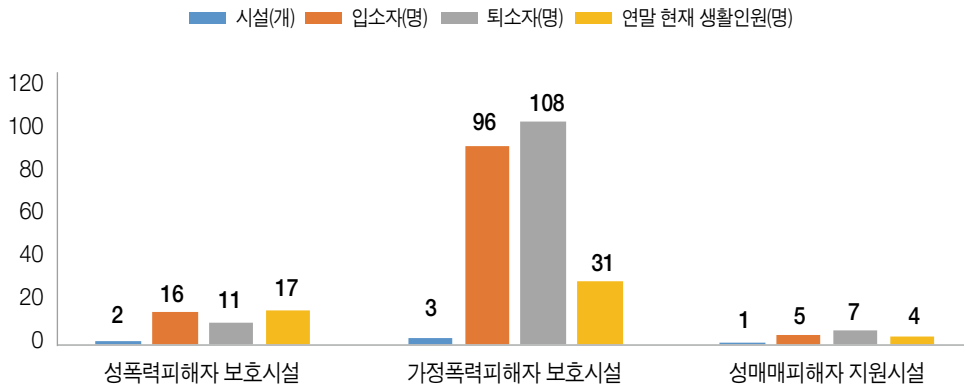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

» 여성복지시설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개가 운영 중임

- (2019년 기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2개가 운영 중이며, 16명이 입소하였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개가 운영 중이며, 96명이 입소함.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1개가 운영 중이며 5명이 입소함
- 연말 생활인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7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31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4명임

〈그림 7-9〉 여성복지시설 현황(2019)



〈표 7-9〉 여성복지시설 현황(2018~2019)

(단위 : 개소, 명)

구분		시설	입소자	퇴소자	연말 현재 생활인원
2018	계	6	122	129	61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6	6	1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109	115	4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	7	8	6
2019	계	6	117	126	5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16	11	1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96	108	3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1	5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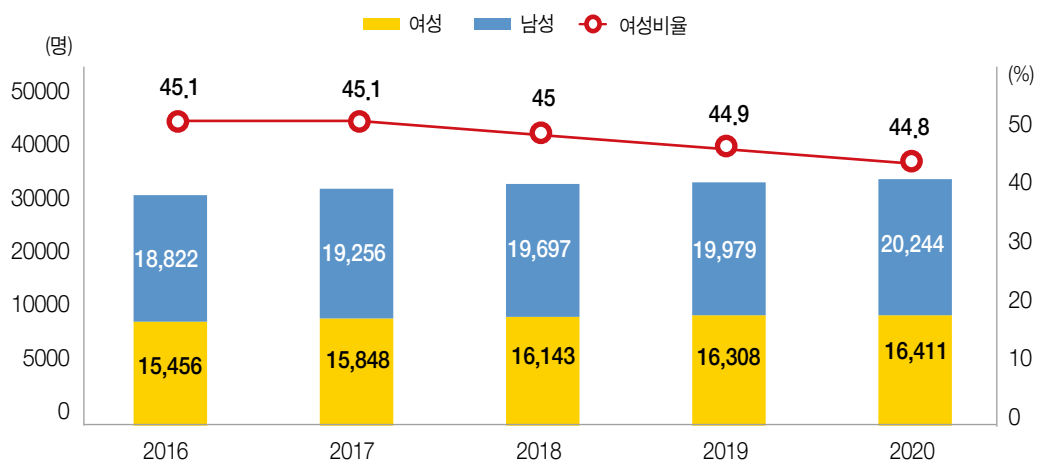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연보」

등록장애인 여성 16,411명, 남성 20,244명

» 등록장애인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성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 성별격차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등록장애인 수는 여성 16,411명, 남성 20,244명으로 총 36,655명이며, 등록장애인 중 여성은 남성보다 3,833명 더 적고, 등록장애인의 44.8%를 차지함
- 등록장애인 수는 전년보다 여성은 103명, 남성은 265명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6년보다 여성 955명, 남성은 1,422명 증가함. 등록장애인 수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으나 남성의 증가폭이 더 커 성별격차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림 7-10〉 등록장애인 현황(2016~2020)



〈표 7-10〉 등록장애인 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분	계	여성	남성	여성비율
2016	34,278	15,456	18,822	45.1
2017	35,104	15,848	19,256	45.1
2018	35,840	16,143	19,697	45.0
2019	36,287	16,308	19,979	44.9
2020	36,655	16,411	20,244	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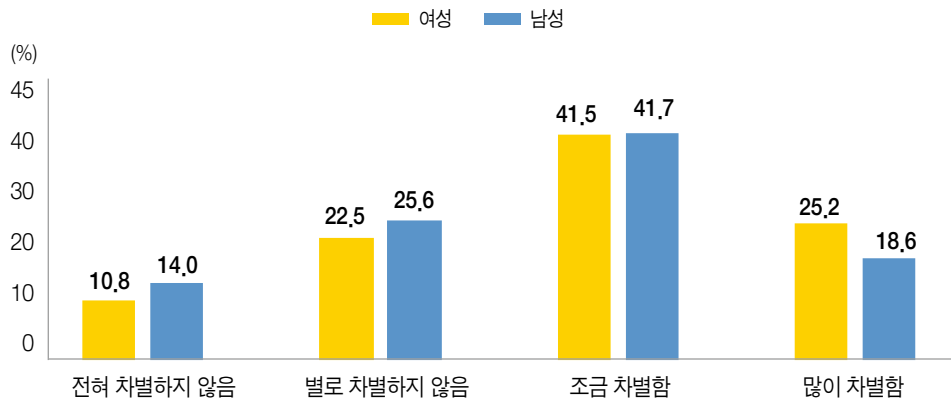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장애인 차별 여성 66.7%, 남성 60.3%

» 장애인 차별인식은 남녀 모두 차별한다는 인식이 더 높았으나 여성이 조금 더 높음

- (2021년 기준) 장애인 차별 인식은 여성 66.7%(조금 차별함 41.5%, 많이 차별함 25.2%), 남성 60.3%(조금 차별함 41.7%, 많이 차별함 18.6%)로 여성의 차별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9년에 비해 차별인식은 여성은 1.0%p 증가한 반면 남성은 2.8%p 감소함

〈그림 7-11〉 장애인 차별(2021)



〈표 7-11〉 장애인 차별(2019, 2021)

(단위 : %)

구 분		전혀 차별하지 않음	별로 차별하지 않음	조금 차별함	많이 차별함	차별함 (조금 차별함+많이 차별함)
2019	전체	8.1	27.6	44.1	20.2	64.3
	여성	7.9	26.5	44.2	21.5	65.7
	남성	8.3	28.7	44.1	19.0	63.1
2021	전체	12.4	24.1	41.6	21.9	63.5
	여성	10.8	22.5	41.5	25.2	66.7
	남성	14.0	25.6	41.7	18.6	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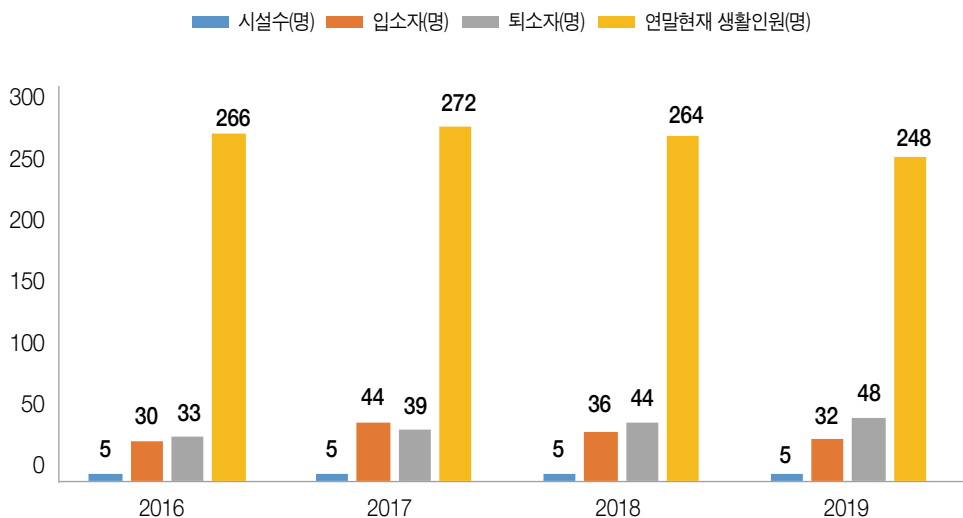
주 : 13세 이상 대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아동양육시설 5개, 생활인원 248명

» 아동양육시설은 5개이며, 연말 생활인원은 248명임

- (2019년 기준) 아동양육시설은 5개가 운영 중이며, 입소 32명, 퇴소 48명을 거쳐 연말 생활인원은 248명임
- 연평균 40명 전후의 입소자와 퇴소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 연말 생활인원은 전년보다 16명 감소함

〈그림 7-12〉 아동양육시설 현황(2016~2019)



〈표 7-12〉 아동양육시설 현황(2016~2019)

(단위 : 개소, 명)

구 분	시설수	입소자	퇴소자	연말현재 생활인원
2016	5	30	33	266
2017	5	44	39	272
2018	5	36	44	264
2019	5	32	48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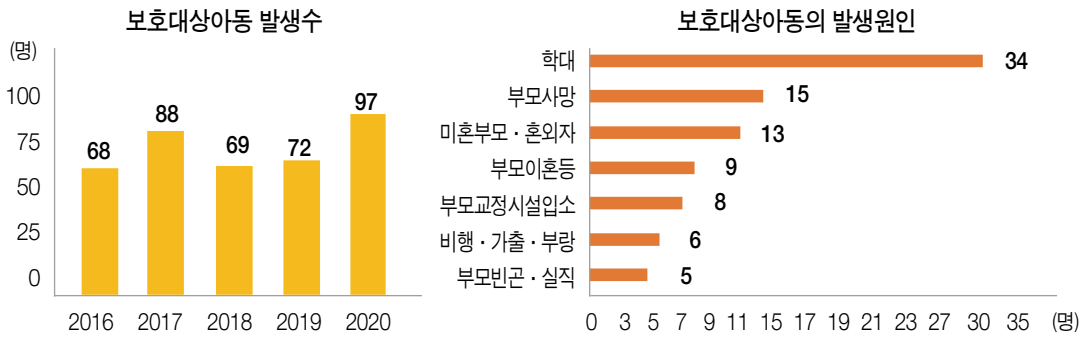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증사자 현황보고」

보호대상아동 97명 발생, 가장 큰 발생원인은 학대

» 보호대상아동은 97명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발생원인은 학대임

- (2020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은 97명이 발생했으며, 전년보다 25명 증가함.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학대 34명, 부모사망 15명, 미혼부모·혼외자 13명, 부모이혼 등 9명, 부모교정시설 입소 8명, 비행·가출·부랑 6명, 부모빈곤·실직 5명의 순으로 학대로 인한 발생이 가장 많음

〈그림 7-13〉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6~2020) 및 발생원인(2020)



〈표 7-13〉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및 발생원인(2016~2020)

(단위: 명)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2016	2017	2018	2019	2020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계	68	88	69	72	97
	남	31	50	32	35	44
	여	37	36	34	27	46
귀가 및 연고자 인도		0	2	3	10	7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68	86	66	62	90
	유기	2	2	0	4	0
	미혼부모·혼외자	6	14	13	7	13
	미아	1	0	0	0	0
	비행·가출·부랑	1	0	0	1	6
	학대	25	35	17	21	34
	부모빈곤·실직	5	7	2	5	5
	부모사망	7	5	2	5	15
	부모질병	1	1	2	3	0
	부모교정시설입소	-	-	-	-	8
	부모이혼등	20	22	30	16	9

주: 1)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유기: 2017년부터 '기아'에서 '유기'로 변경

2)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 부모교정시설입소: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발생원인 항목 추가

자료: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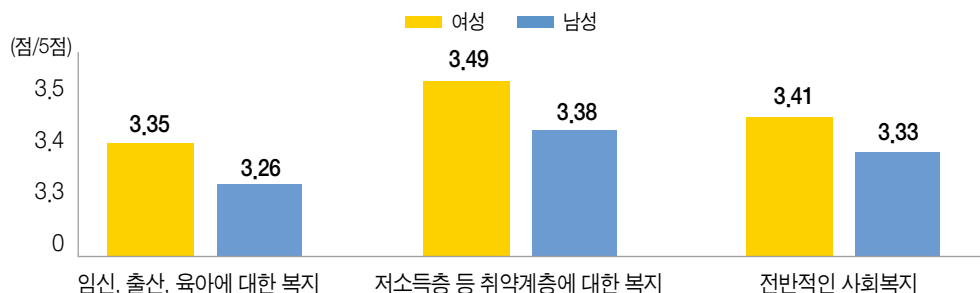
라. 사회복지인식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 3.4점

» 임신·출산·육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모두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3개 분야 모두 여성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음

- (2020년 기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은 평균 3.31점이며, 여성은 3.35점, 남성은 3.26점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음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만족은 평균 3.44점이며, 여성은 3.49점, 남성은 3.38점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음
-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평균 3.38점이며, 여성은 3.41점, 남성은 3.33점으로 여성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음

〈그림 7-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2020)



〈표 7-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2020)

(단위 : %, 점/5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수(5점)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전체	2.1	10.7	47.6	33.0	6.5	3.31
	여성	1.9	10.3	45.7	35.1	6.9	3.35
	남성	2.4	11.2	49.9	30.4	6.0	3.26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전체	2.1	11.5	38.5	36.6	11.4	3.44
	여성	2.1	10.6	36.0	38.9	12.5	3.49
	남성	2.0	12.5	41.4	34.0	10.1	3.38
전반적인 사회복지	전체	2.0	8.7	47.3	33.7	8.3	3.38
	여성	1.7	8.3	45.6	35.8	8.6	3.41
	남성	2.3	9.2	49.3	31.2	7.9	3.33

주 : 1) 만 19세 이상 대상임

2) 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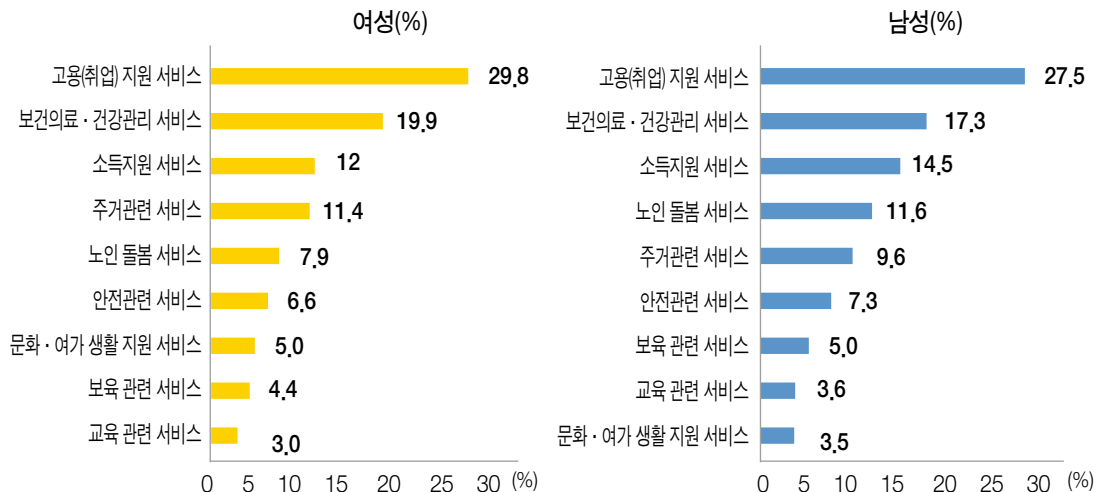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가 최다

» 향후 확대를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고용(취업)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음

- (2021년 기준)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서비스로 여성은 고용(취업)지원 29.8%, 보건의료·건강관리 19.9%, 소득지원 12.0%, 주거관련 11.4% 등의 순이었고, 남성은 고용(취업)지원 27.5%, 보건의료·건강관리 17.3%, 소득지원 14.5%, 노인 돌봄 11.6%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고용(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15〉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서비스(2021)



〈표 7-15〉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서비스(2021)

(단위 : %)

구 분	전체	여성	남성
고용(취업) 지원 서비스	28.6	29.8	27.5
소득지원 서비스	13.3	12.0	14.5
주거관련 서비스	10.5	11.4	9.6
안전관련 서비스	7.0	6.6	7.3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18.6	19.9	17.3
보육 관련 서비스	4.7	4.4	5.0
교육 관련 서비스	3.3	3.0	3.6
노인 돌봄 서비스	9.8	7.9	11.6
문화·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4.2	5.0	3.5
기타	0.1	-	0.1

주 : 만13세 이상 대상이며, '주된 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Part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8

정치와 사회참여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08 정치와 사회참여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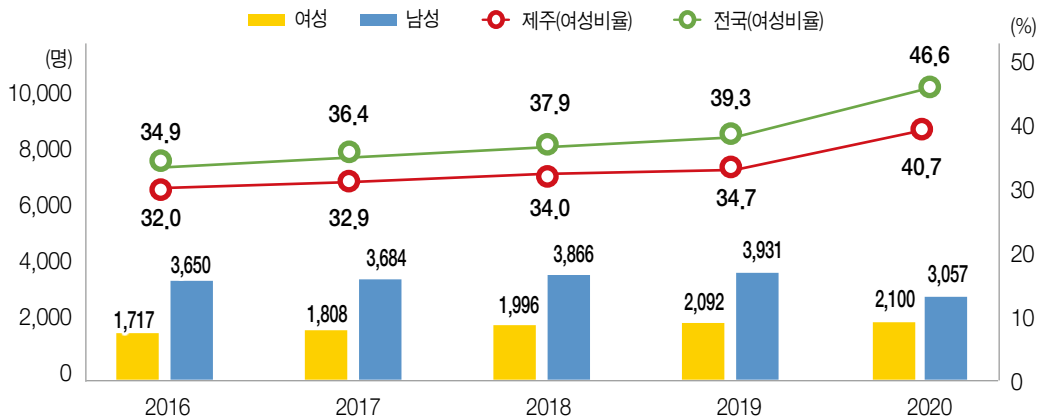
가. 행정참여

증가하는 여성공무원 비율 40.7%(2,100명)

» 여성공무원의 규모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은 여성 2,100명, 남성 3,057명으로 총 5,157명임. 여성공무원 비율은 40.7%로 전국수준보다 낮음
- 여성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여성공무원은 22.3%(383명) 증가한 반면 남성공무원은 16.2%(59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임

〈그림 8-1〉 공무원 현황(2016~2020)



〈표 8-1〉 공무원 현황(2016~2020)

(단위 : 명,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비율
2016	5,367	1,717	3,650	32.0	34.9
2017	5,492	1,808	3,684	32.9	36.4
2018	5,862	1,996	3,866	34.0	37.9
2019	6,023	2,092	3,931	34.7	39.3
2020	5,157	2,100	3,057	40.7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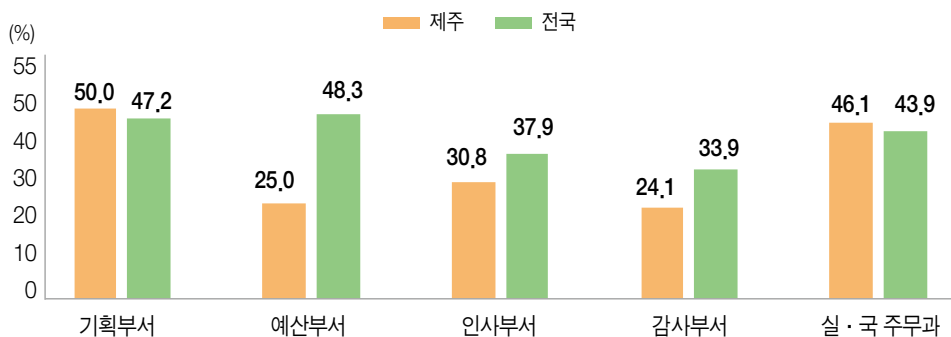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감사부서(24.1%), 예산부서(25.0%) 여성비율 저조

» 여성공무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사 및 예산부서의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음

- (2020년 기준)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은 기획부서 50.0%, 실국주무과 46.1%, 인사부서 30.8%, 예산부서 25.0%, 감사부서 24.1% 순으로 기획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여성공무원이 더 적음. 특히 예산부서와 감사부서의 여성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기획부서와 실국주무과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수준보다 낮음. 전국수준과 비교하여 예산부서는 23.3%p, 감사부서는 9.8%p, 인사부서는 7.1%p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예산부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8-2〉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2020)



〈표 8-2〉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2016~2020)

(단위 : %)

구분		계	기획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감사부서	실·국 주무과
2016	전국	37.4	38.5	38.8	32.1	26.6	38.4
	제주	32.1	35.1	33.3	26.7	14.8	34.5
2017	전국	39.7	41.9	41.2	32.5	28.1	40.7
	제주	31.2	29.8	23.3	19.0	17.7	33.8
2018	전국	40.8	43.6	42.5	35.0	30.1	41.7
	제주	35.0	28.9	16.7	31.6	21.4	37.3
2019	전국	42.0	45.6	45.2	35.8	32.8	42.9
	제주	38.9	40.5	3.0	31.6	20.0	41.0
2020	전국	43.3	47.2	48.3	37.9	33.9	43.9
	제주	43.4	50.0	25.0	30.8	24.1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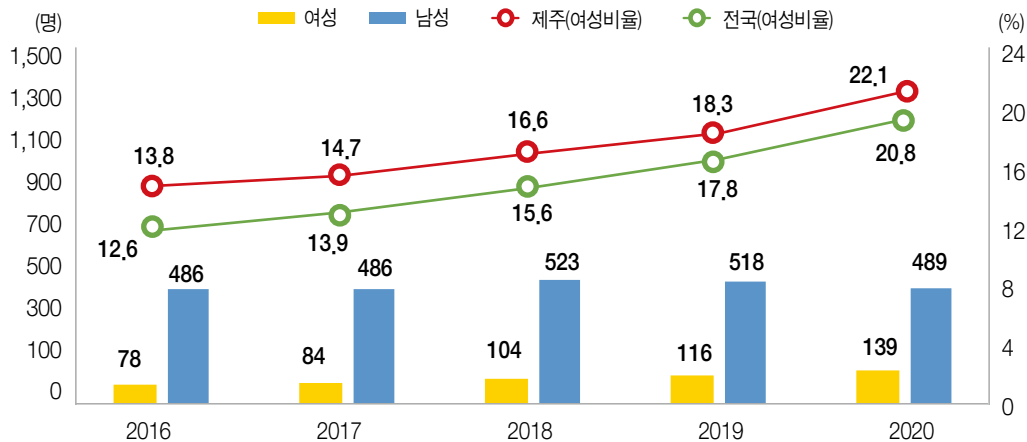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139명(22.1%)

» 제주특별자치도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2.1%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5급 이상 공무원은 여성 139명, 남성 489명으로 총 628명임. 이 중 여성비율은 22.1%로 전국보다 1.3%p 높음
-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전국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8-3〉 5급 이상 관리직 성별 공무원 비율(2016~2020)



〈표 8-3〉 5급 이상 관리직 성별 공무원 비율(2016~2020)

(단위 : 명,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전체	여성	남성	여성비율	여성비율
2016	564	78	486	13.8	12.6
2017	570	84	486	14.7	13.9
2018	627	104	523	16.6	15.6
2019	634	116	518	18.3	17.8
2020	628	139	489	22.1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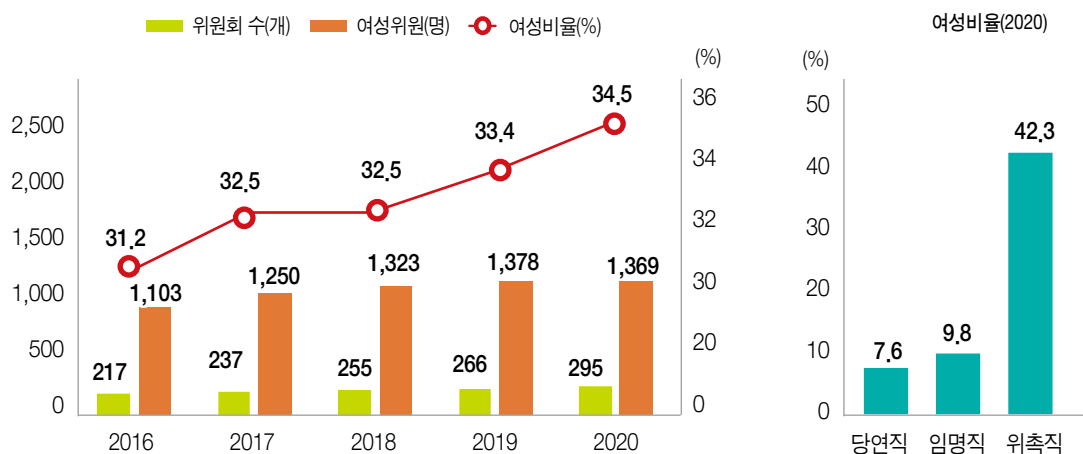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4.5%

»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원회는 295개이며, 위원은 3,969명이 활동하고 있음. 이 중 여성위원은 1,369명으로 34.5%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여성위원 수 및 여성위원 비율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여성위원 수는 2016년 대비 24.1%(266명) 증가하였으며, 여성위원 비율은 3.3%p 증가함
- (2020년 기준) 직위별 여성위원 비율은 당연직 7.6%, 임명직 9.8%, 위촉직 42.3%로 위촉위원의 여성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당연직과 임명직의 여성비율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음

〈표 8-4〉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2016~2020)



〈표 8-4〉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2016~2020)

(단위 : 개, 명)

구분	위원회 수 (개)	위원 수									
		계	당연직			임명직			위촉직		
			소계	여	남	소계	여	남	소계	여	남
2016	217	3,538	729	78	651	101	15	86	2,708	1,010	1,698
2017	237	3,848	751	85	666	129	17	112	2,968	1,148	1,820
2018	255	4,069	770	69	701	143	16	127	3,156	1,238	1,918
2019	266	4,121	810	58	752	80	3	77	3,231	1,317	1,914
2020	295	3,969	789	60	729	112	11	101	3,068	1,298	1,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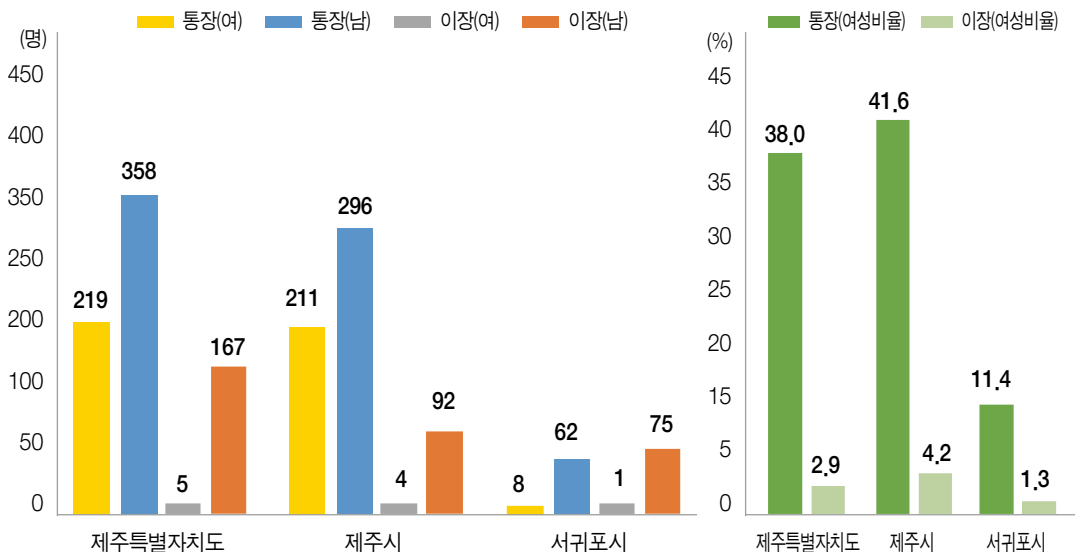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행정총람」

여성통장 219명(38.0%), 여성이장 5명(2.9%)

» 통·이장의 여성비율은 통장이 더 높고,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더 높음

- (2020년 기준) 도내 통장 여성비율은 38.0%로 219명이며, 이장 여성비율은 2.9%로 5명임. 행정시별로는 제주시의 통장 여성비율은 41.6%로 211명이며, 서귀포시는 11.4%로 8명임. 제주시의 이장 여성비율은 4.2%로 4명이며 서귀포시는 1.3%로 1명임
- (2020년 기준) 통장과 이장의 여성비율은 통장이 더 높고,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더 높게 나타남. 반면 서귀포시의 통·이장 여성 참여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

〈그림 8-5〉 통·리장 현황(2020)



〈표 8-5〉 성별 통·리장 현황(2020)

(단위 : 명, %)

구분	전체			통장			이장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계	여성	여성비율
제주특별자치도	749	223	29.8	577	219	38.0	172	5	2.9
제주시	603	214	35.5	507	211	41.6	96	4	4.2
서귀포시	146	9	6.2	70	8	11.4	76	1	1.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내부자료(2021년 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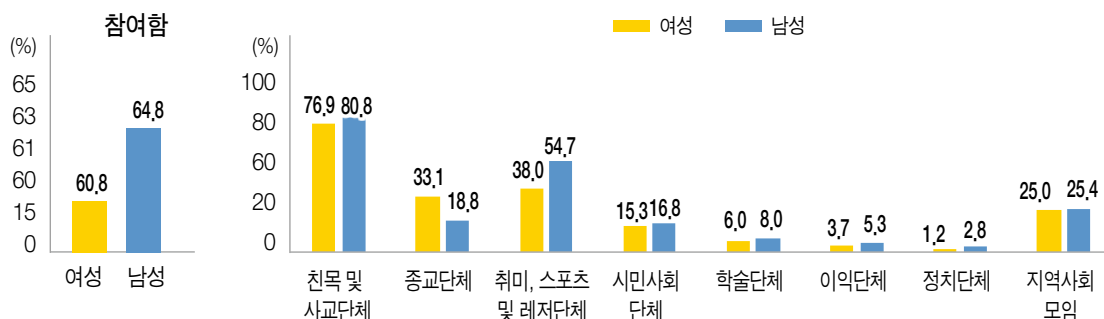
나. 사회참여

단체참여율 여성 60.8%, 남성 64.8%

» 단체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4%p 낮으며, 주된 참여 단체유형은 남녀 모두 친목 및 사교단체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단체참여율은 여성 60.8%, 남성 64.8%로 여성이 4.0%p 더 낮음. 여성의 참여단체 유형은 친목 및 사교단체 76.9%,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38.0%, 종교단체 33.1%, 지역사회모임 25.0%, 시민단체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친목 사교단체 80.8%,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 54.7%, 지역사회 모임 25.4%, 종교단체 18.8%, 시민사회 16.8% 등의 순으로 남녀 모두 친목 및 사교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음
- 참여율의 성별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취미·스포츠 및 레저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6.7%p 더 낮음. 성별격차 중 여성의 참여율이 더 높은 유형은 종교단체로 여성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14.3%p 더 높음

〈그림 8-6〉 단체참여율(2019)



〈표 8-6〉 단체참여 여부 및 참여단체 유형(2015~2019, 2년주기)

(단위 : %)

시점	성별	참여합	분야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2015	전체	45.6	72.1	23.8	36.2	15.6	7.2	2.3	0.6	16.9	0.2
	여성	42.3	70.5	29.0	28.3	17.5	7.3	0.4	0.2	17.5	0.3
	남성	48.9	73.5	19.3	43.3	13.8	7.0	4.0	1.0	16.3	0.1
2017	전체	46.2	76.3	23.0	44.0	14.8	5.7	4.1	1.0	22.5	0.0
	여성	44.4	73.8	25.4	39.1	17.1	4.0	2.0	0.5	20.5	0.0
	남성	48.1	78.6	20.7	48.5	12.8	7.3	6.1	1.5	24.5	0.0
2019	전체	62.8	78.9	25.7	46.6	16.1	7.0	4.5	2.0	25.2	0.0
	여성	60.8	76.9	33.1	38.0	15.3	6.0	3.7	1.2	25.0	0.0
	남성	64.8	80.8	18.8	54.7	16.8	8.0	5.3	2.8	25.4	0.0

주 : 15세 이상 대상, 2019년부터 13세 이상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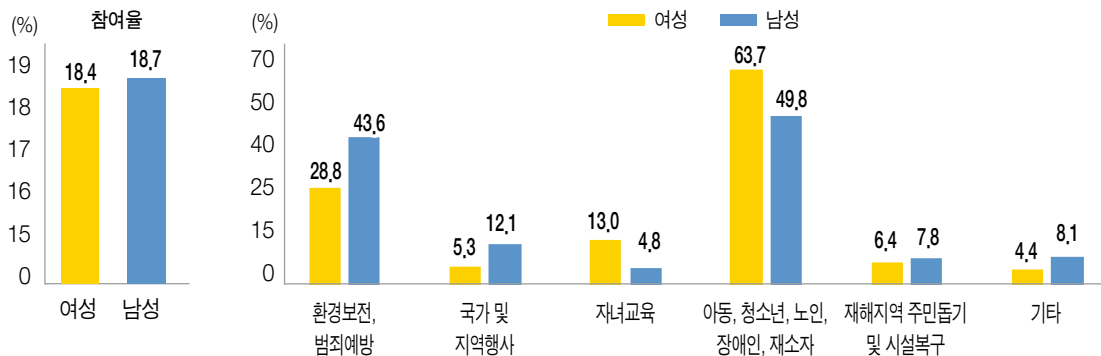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자원봉사 참여율 여성 18.4%, 남성 18.7%

» 자원봉사 참여율은 남녀 모두 18% 수준이며,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대상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음

- (2019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율은 여성 18.4%, 남성 18.7%로 유사한 수준임
- (2019년 기준) 참여율이 가장 높은 자원봉사 유형은 남녀 모두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 대상 봉사 단체(여성 63.7%, 남성 49.8%)이며, 여성의 참여율이 13.9%p 더 높음
- 다음으로 참여율이 높은 유형은 환경보전, 범죄예방 관련 자원봉사이며, 이 유형은 여성의 참여율이 14.8%p 낮고 참여율의 성별차이가 가장 큰 유형으로 나타남

〈그림 8-7〉 자원봉사 참여율(2019)



〈표 8-7〉 자원봉사 참여율(2015~2019, 2년 주기)

(단위: %)

시점	성별	참여율	유형별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 및 지역행사	자녀교육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복구	기타
2015	전체	22.6	21.4	10.1	8.7	66.4	2.8	4.6
	여성	21.8	16.4	8.5	10.9	72.8	1.6	3.2
	남성	23.5	26.1	11.6	6.7	60.3	4.1	5.8
2017	전체	23.8	22.9	14.1	10.5	49.4	4.1	14.7
	여성	25.9	17.6	10.8	15.6	50.9	3.4	15.5
	남성	21.7	29.3	18.2	4.2	47.5	4.8	13.8
2019	전체	18.5	36.3	8.7	8.9	56.7	7.1	6.3
	여성	18.4	28.8	5.3	13.0	63.7	6.4	4.4
	남성	18.7	43.6	12.1	4.8	49.8	7.8	8.1

주: 15세 이상 대상, 2019년부터 13세 이상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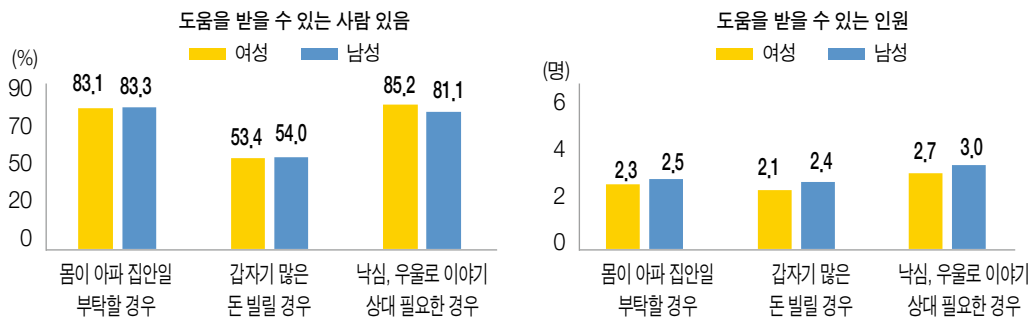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사회관계망 내 신체적·심리적 지지에 비해 경제적 지지 및 범위 다소 약함

» 사회관계망 내에서 신체적, 심리적 문제보다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제공자 존재비율이 낮고 도움제공자 수도 조금 더 적음

- (2019년 기준)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여성 83.1%, 남성 83.3%이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 경우는 여성 85.2%, 남성 81.1%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있는 경우는 여성 53.4%, 남성 54.0%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에 비해 경제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남. 이로써 사회관계망 내에 신체적·심리적 지지에 비해 경제적 지지가 다소 약함을 알 수 있음
- (2019년 기준)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여성 2.3명, 남성 2.5명이며,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여성 2.7명, 남성 3.0명임.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여성 2.1명, 남성 2.4명으로 경제적 지지가 약간 더 낮지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의 범위는 모두 2~3명 이내 수준임

〈그림 8-8〉 사회적 관계망(2019)



〈표 8-8〉 사회적 관계망(2015-2019, 2년 주기)

(단위 : %, 명)

구분		몸이 아파 집안일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 빌릴 경우			낙심, 우울로 이야기 상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
2015	전체	74.7	25.3	2.6	50.1	49.9	2.7	78.5	21.5	3.1
	여성	73.7	26.3	2.5	50.1	49.9	2.6	79.5	20.5	3.1
	남성	75.8	24.2	2.6	50.0	50.0	2.8	77.5	22.5	3.2
2017	전체	83.2	16.8	2.5	58.0	42.0	2.5	82.4	17.6	3.1
	여성	83.5	16.5	2.5	56.6	43.4	2.5	84.1	15.9	3.2
	남성	82.8	17.2	2.6	59.4	40.6	2.5	80.7	19.3	3.1
2019	전체	83.2	16.8	2.4	53.7	46.3	2.3	83.2	16.8	2.8
	여성	83.1	16.9	2.3	53.4	46.6	2.1	85.2	14.8	2.7
	남성	83.3	16.7	2.5	54.0	46.0	2.4	81.1	18.9	3.0

주 : 13세 이상 대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9

문화 Culture

09 문화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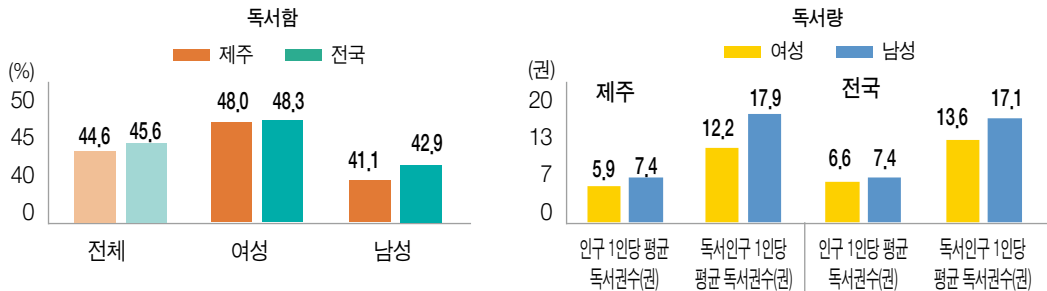
가. 문화 및 여가활동

인구 1인당 독서량 여성 5.9권, 남성 7.4권

» 지난 1년 간의 인구 1인당 및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량은 남성이 더 많음

- (2019년 기준) 지난 1년 간 독서를 한 비율은 여성 48.0%, 남성 41.1%로 평균 44.6%이며 여성의 독서비율이 6.9%p 더 높음. 그러나 지난 1년 간 인구 1인당 평균 독서량은 여성 5.9권, 남성 7.4권으로 여성이 1.5권 더 적고,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량은 여성 12.2권, 남성 17.9권으로 여성이 5.7권 더 적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의 평균 독서량은 인구 1인당 및 독서인구 1인당 독서량이 모두 전국보다 더 적음

〈그림 9-1〉 평균 독서량(2021)



〈표 9-1〉 평균 독서량(2017~2021, 2년주기)

(단위 : 권, %)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독서함(%)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권)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권)	독서함(%)	인구 1인당 평균 독서 권수(권)	독서인구 1인당 평균 독서권수(권)
2017	전체	9.5	53.3	17.8	9.5	54.9	17.3
	여성	8.1	56.1	14.5	8.5	56.5	15.1
	남성	10.9	50.5	21.6	10.5	53.3	19.8
2019	전체	6.3	50.7	12.5	7.3	50.6	14.4
	여성	6.1	51.7	11.8	6.9	52.7	13.0
	남성	6.6	49.7	13.3	7.7	48.5	15.9
2021	전체	6.6	44.6	14.8	7.0	45.6	15.2
	여성	5.9	48.0	12.2	6.6	48.3	13.6
	남성	7.4	41.1	17.9	7.4	42.9	17.1

주 : 13세 이상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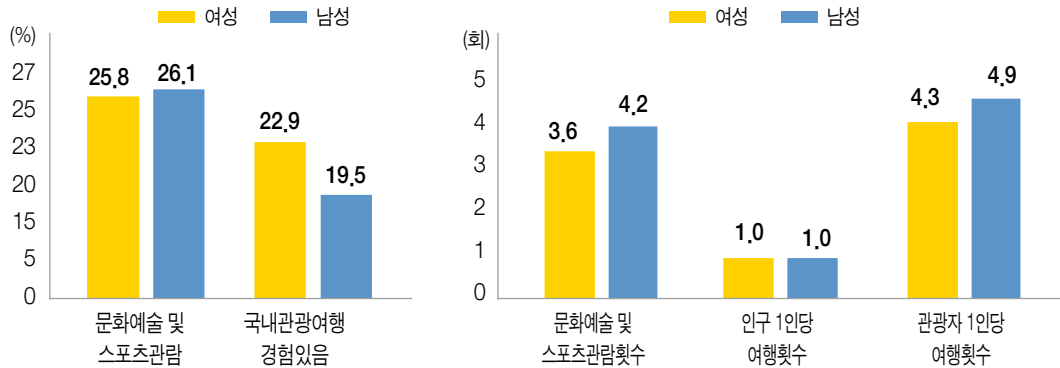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경험 여성 25.8%, 남성 26.1% 국내 관광여행 경험 여성 22.9%, 남성 19.5%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경험은 남성이 더 많고, 국내 관광여행 경험은 여성이 더 많음

- (2021년 기준)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은 여성 25.8%, 남성 26.1%로 여성이 0.3%p 더 낮고 관람횟수 평균은 여성 3.6회, 남성 4.2회로 여성이 0.6회 더 적음
- (2021년 기준) 국내관광여행 경험은 여성 22.9%, 남성 19.5%로 여성이 3.4%p 더 높고, 인구 1인당 여행횟수는 남녀 모두 1회로 같고, 관광객 1인당 여행횟수는 여성 4.3회, 남성 4.9회로 국내 관광여행 경험은 여성이 더 많았지만 관광객 1인당 여행횟수는 남성이 더 많음

〈그림 9-2〉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2021)



〈표 9-2〉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2017~2021, 2년주기)

(단위 : %, 회)

구분		문화예술 및 스포츠관람		국내관광여행		
		관람함	평균 관람횟수	여행 경험있음	인구 1인당 여행횟수	관광객 1인당 여행횟수
2017	전체	63.9	8.6	55.8	1.6	2.8
	여성	64.6	9.3	58.2	1.5	2.6
	남성	63.1	7.9	53.4	1.6	3.0
2019	전체	64.1	8.3	56.3	2.0	3.6
	여성	64.2	8.1	57.5	2.1	3.6
	남성	64.1	8.4	55.0	2.0	3.6
2021	전체	25.9	3.9	21.2	1.0	4.6
	여성	25.8	3.6	22.9	1.0	4.3
	남성	26.1	4.2	19.5	1.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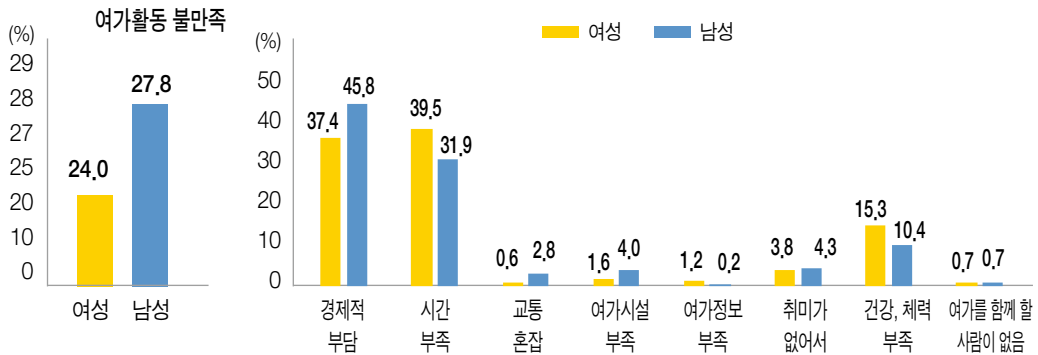
주 : 13세 이상 대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여가활동 불만족 여성 24.0%, 남성 27.8%

» 여가활동 불만족도는 남성이 더 높고, 불만족 이유로 여성은 시간 부족, 남성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여가활동 불만족은 여성 24.0%, 남성 27.8%로 남성의 불만족이 3.8%p 더 높음
- (2019년 기준)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 여성은 시간부족 39.5%, 경제적 부담 37.4%, 건강·체력 부족 15.3% 등의 순이며, 남성은 경제적 부담 45.8%, 시간부족 31.9%, 건강·체력 부족 10.4% 등의 순으로 여성은 시간부족, 남성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나타남

〈그림 9-3〉 여가활동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2019)



〈표 9-3〉 여가활동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2015~2019, 2년주기)

(단위 : %)

구 분	2015			2017			2019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만족	28.8	26.2	31.3	29.0	27.5	30.6	29.1	27.5	30.7
불만족	21.9	22.5	21.2	18.2	18.6	17.9	25.9	24.0	27.8
경제적 부담	47.0	45.2	48.9	44.9	46.5	43.1	41.9	37.4	45.8
시간부족	21.9	23.2	20.5	31.9	33.3	30.3	35.4	39.5	31.9
교통 혼잡	1.0	0.6	1.5	0.3	0.6	0.0	1.8	0.6	2.8
여가시설부족	1.7	0.7	2.9	2.8	3.1	2.5	2.9	1.6	4.0
여가정보부족	3.0	2.9	3.1	0.3	0.0	0.6	0.7	1.2	0.2
취미가 없어서	6.6	5.5	7.9	6.5	5.9	7.1	4.1	3.8	4.3
건강, 체력 부족	15.7	19.9	11.2	11.0	8.4	13.7	12.7	15.3	10.4
여가를 함께 할 사람이 없음	1.8	1.5	2.1	2.4	2.2	2.7	0.7	0.7	0.7
기타	1.3	0.6	2.0	0.0	0.0	0.0	0.0	0.0	0.0

주 : 1) 불만족은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응답률의 합임

2) 2015년은 15세 이상 대상이며, 2019년부터는 13세 이상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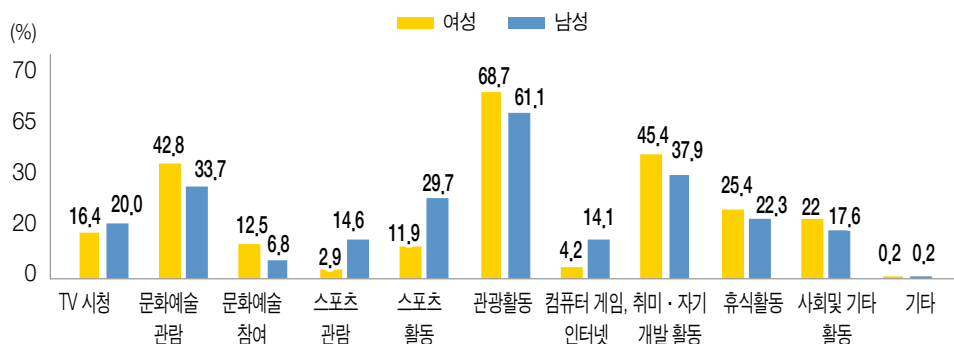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재인용)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관광활동 여성 68.7%, 남성 61.1%

»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남녀 모두 관광활동이 가장 많음

- (2019년 기준)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남녀 모두 관광활동(여성 68.7%, 남성 61.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취미·자기개발 활동(여성 45.4%, 남성 37.9%), 문화예술 관람(여성 42.8%, 남성 3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 선호 차이가 가장 큰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관람으로 각각 남성이 여성보다 17.8%p, 11.7%p 더 높아 남성이 더 선호하는 여가활동이며, 문화예술관람은 여성이 9.1%p 더 높아 여성이 더 선호하는 여가활동으로 나타남

〈그림 9-4〉 하고 싶은 여가활동(2019)



〈표 9-4〉 하고 싶은 여가활동(2015~2019, 2년주기)

(단위 : %)

구 분	2015			2017			2019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TV 시청	18.6	17.2	20.1	20.9	19.8	22.1	18.2	16.4	20.0
문화예술 관람	30.5	33.9	27.1	33.7	40.5	26.8	38.3	42.8	33.7
문화예술 참여	9.8	9.9	9.6	9.6	11.4	7.9	9.6	12.5	6.8
스포츠관람	8.3	4.0	12.7	8.5	3.2	13.9	8.8	2.9	14.6
스포츠활동	24.2	17.2	31.5	25.1	18.8	31.5	20.8	11.9	29.7
관광활동	53.5	56.0	51.0	70.6	73.9	67.2	64.9	68.7	61.1
컴퓨터 게임, 인터넷	5.3	2.3	8.5	7.1	3.5	10.8	9.2	4.2	14.1
취미·자기개발 활동	35.0	39.3	30.5	46.6	49.7	43.5	41.6	45.4	37.9
휴식활동	22.4	24.8	20.1	31.0	31.1	30.9	23.8	25.4	22.3
사회및 기타 활동	16.9	18.7	15.2	23.0	23.1	23.0	19.8	22.0	17.6
기타	0.2	0.2	0.2	0.2	0.2	0.3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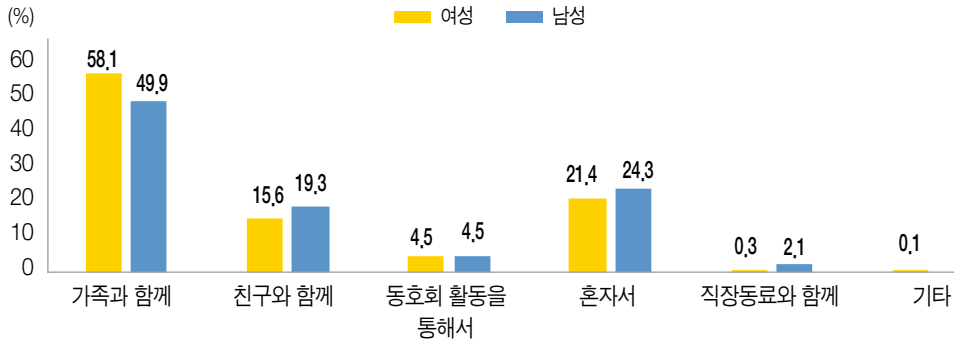
주 : 13세 이상 대상이며, 복수응답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과 주말·휴일 여가활동 여성 58.1%, 남성 49.9%

»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 남녀 모두 가족이 가장 많음

- (2021년 기준)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은 남녀 모두 가족, 혼자서, 친구, 동호회, 직장동료, 기타 순으로 나타남
- 주말이나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는 여성 58.1%, 남성 49.9%로 여성이 8.2%p 더 높은 반면 친구와 함께 보내는 경우는 여성 15.6%, 남성 19.3%로 남성이 3.7%p 더 높고, 혼자서 보내는 경우는 여성 21.4%, 남성 24.3%로 남성이 2.9%p 더 높음. 주말이나 휴일 여가활동을 가족과 보내는 경우는 여성이 더 많고, 혼자 또는 친구와 보내는 경우는 남성이 더 많음

〈그림 9-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2021)



〈표 9-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2017~2021, 2년주기)

(단위 : %)

구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혼자서	직장동료와 함께	기타
2017	전체	48.5	21.7	9.2	18.3	2.1	0.2
	여성	49.4	23.8	7.8	17.7	1.3	0.1
	남성	47.6	19.7	10.7	18.9	2.9	0.3
2019	전체	43.9	20.2	8.2	26.3	1.4	-
	여성	47.6	20.7	6.3	24.6	0.8	-
	남성	40.2	19.7	10.0	28.0	2	-
2021	전체	54.0	17.4	4.5	22.8	1.2	0
	여성	58.1	15.6	4.5	21.4	0.3	0.1
	남성	49.9	19.3	4.5	24.3	2.1	-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직장동료와 함께' 항목은 2017년 신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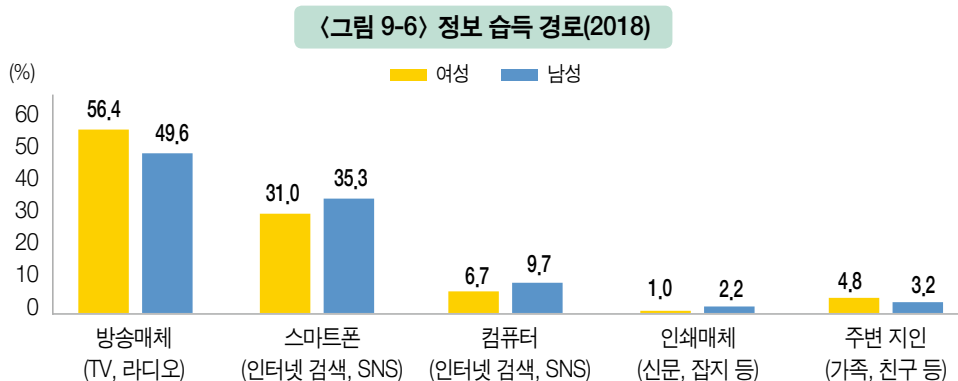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나. 정보화

TV,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여성 56.1%, 남성 49.6%)

» 정보습득 경로는 TV, 라디오와 같은 방송매체 이용이 가장 많음

- (2018년 기준) 정보습득 경로로는 방송매체(TV, 라디오), 스마트폰(인터넷 검색, SNS), 컴퓨터(인터넷 검색, SNS)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한 정보습득은 여성 56.4%, 남성 49.6%로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6.8%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스마트폰(인터넷 검색, SNS)은 여성 31.0%, 남성 35.3%로 남성이 4.3%p 더 높고, 컴퓨터(인터넷 검색, SNS)는 여성 6.7%, 남성 9.7%로 남성이 3.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9-6〉 정보 습득 경로(2016~2018, 2년주기)

(단위 : %)

구 분	2016			2018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송매체(TV, 라디오)	58.6	61.1	56.1	53.0	56.4	49.6
스마트폰(인터넷 검색, SNS)	29.0	27.2	30.8	33.2	31.0	35.3
컴퓨터(인터넷 검색, SNS)	8.5	7.4	9.6	8.2	6.7	9.7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2.5	2.4	2.5	1.6	1.0	2.2
주변 지인(가족, 친구 등)	1.4	1.9	1.0	4.0	4.8	3.2
기타	0.0	0.1	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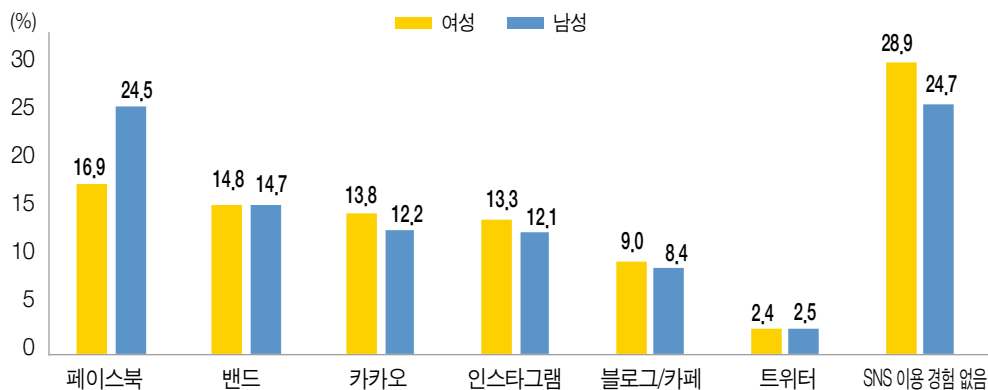
주 : 제주지역 일반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가장 선호율이 높은 SNS 페이스북 여성 16.9%, 남성 24.5%

» 가장 선호율이 높은 SNS는 페이스북으로 나타남. SNS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여성이 더 높음

- (2018년 기준) 가장 선호하는 SNS는 페이스북(여성 16.9%, 남성 24.5%), 밴드(여성 14.8%, 남성 14.7%), 카카오톡(여성 13.8%, 남성 12.2%), 인스타그램(여성 13.3%, 남성 12.1%) 등의 순으로 페이스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SNS 이용경험이 없는 비율은 여성 28.9%, 남성 24.7%로 여성이 4.2%p 더 높음

〈그림 9-7〉 선호하는 SNS 종류 1순위(2018)



〈표 9-7〉 선호하는 SNS 종류 1순위(2018)

(단위 : %)

구분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스토리	인스타그램	블로그/카페	트위터	SNS 이용 경험 없음
계	20.7	14.7	13.0	12.7	8.7	2.5	26.8
여성	16.9	14.8	13.8	13.3	9.0	2.4	28.9
남성	24.5	14.7	12.2	12.1	8.4	2.5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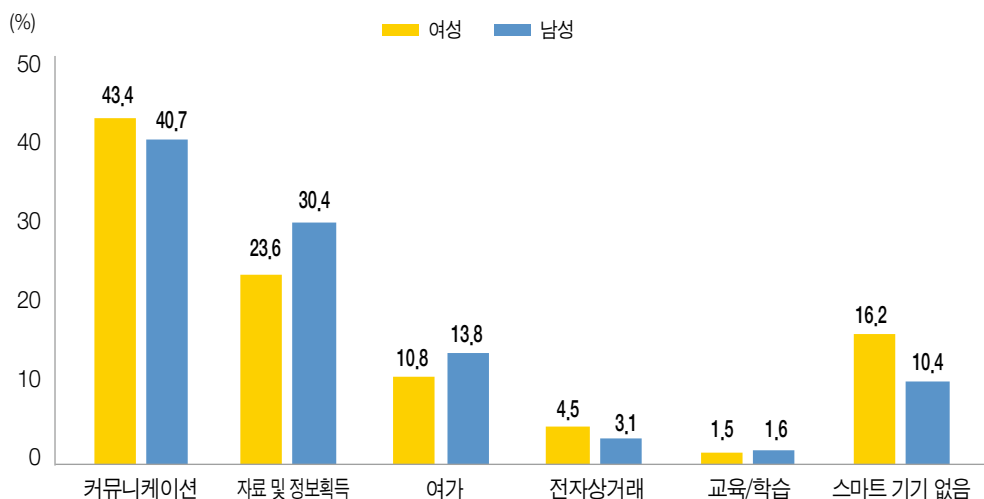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스마트기기 주용도는 커뮤니케이션 여성 43.4%, 남성 40.7%

» 스마트기기의 용도는 커뮤니케이션, 정보획득, 여가 등의 순이었으며, 용도별로는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상거래에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스마트기기의 활용 용도는 커뮤니케이션(여성 43.4%, 남성 40.7%), 자료 및 정보획득(여성 23.6%, 남성 30.4%), 여가(여성 10.8%, 남성은 13.8%) 등의 순으로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활용용도별 성별차이를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과 전자상거래 용도는 여성의 활용률이 더 높고,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교육 및 학습 용도는 남성의 활용률이 더 높음

〈그림 9-8〉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표 9-8〉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	전자상거래	교육/학습	스마트 기기 없음
전체	42.1	27.0	12.3	3.8	1.5	13.3
여성	43.4	23.6	10.8	4.5	1.5	16.2
남성	40.7	30.4	13.8	3.1	1.6	10.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10

안전과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10 안전과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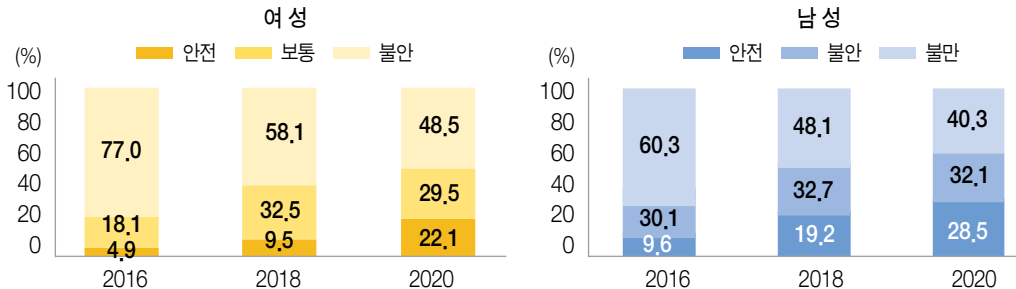
가. 안전인식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 여성 48.5%, 남성 40.3%

▶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은 2016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안전’보다는 ‘불안’ 인식이 더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불안 인식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범죄위험에 대한 여성의 인식은 안전 22.1%, 보통 29.5%, 불안 48.5%였으며, 남성의 인식은 안전 28.5%, 보통 31.2%, 불안 40.3%로 남녀 모두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하다는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범죄위험에 대한 불안 인식은 지난 2016년보다 여성은 28.5%p 감소하였고, 남성은 20%p 감소하여 여성의 불안인식이 조금 더 많이 감소함.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불안인식은 남성보다 높은 수준임

〈그림 10-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6~2020, 2년주기)



〈표 10-1〉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여성				남성			
	계	안전	보통	불안	계	안전	보통	불안
2016	100.0	4.9	18.1	77.0	100.0	9.6	30.1	60.3
2018	100.0	9.5	32.5	58.1	100.0	19.2	32.7	48.1
2020	100.0	22.1	29.5	48.5	100.0	28.5	31.2	40.3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안전은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 응답률의 합이며, 불안은 '비교적 불안'과 '매우 불안'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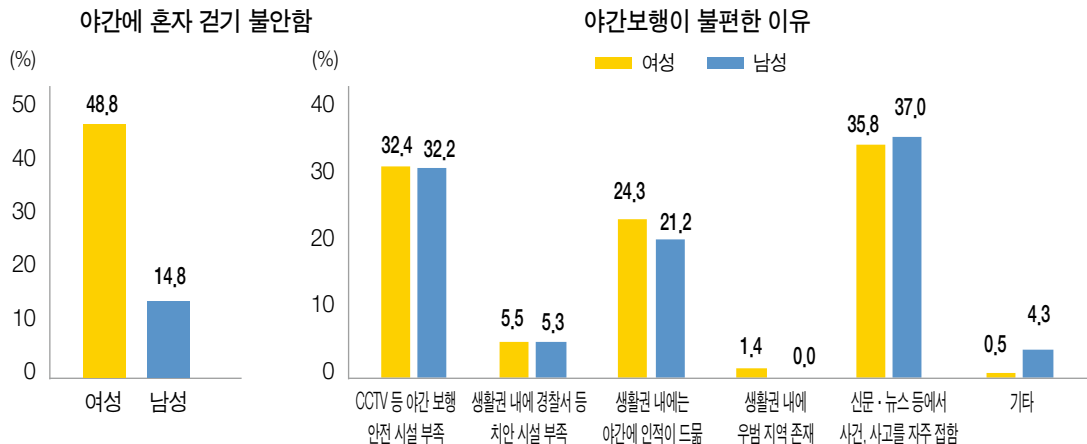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야간보행 불안 여성 48.8%, 남성 14.8%

» 야간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크고, 구조적 특성과 실질적인 보행환경 측면에서 기인함

- (2020년 기준) 야간보행 불안은 여성 48.8%, 남성 14.8%로 여성의 불안인식이 34.0%p 더 높음
- (2020년 기준) 야간보행 불안이유는 신문, 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해서(여성 35.8%, 남성 37.0%), CCTV 등 야간보행 안전시설 부족(여성 32.4%, 남성 32.2%), 생활권 내에 인적이 드물어서(여성 24.3%, 남성 2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야간 보행에 대한 두려움은 구조적인 특성과 실질적인 보행환경 측면에 기인함. 즉 사건·사고에 대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보행환경 내 보행시설 및 인적이 드문 곳을 걸어야 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음

〈그림 10-2〉 야간보행 불안 및 불안이유(2020)



〈표 10-2〉 야간보행 불안 및 불안이유(2020)

(단위 : %)

구분		야간에 혼자 걷기 불안함	불안이유					
			CCTV 등 야간 보행 안전 시설 부족	생활권 내에 경찰서 등 치안 시설 부족	생활권 내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	생활권 내에 우범 지역 존재	신문·뉴스 등에서 사건, 사고를 자주 접함	기타
2020	전체	31.8	32.4	5.5	23.6	1.1	36.1	1.4
	여성	48.8	32.4	5.5	24.3	1.4	35.8	0.5
	남성	14.8	32.2	5.3	21.2	0.0	37.0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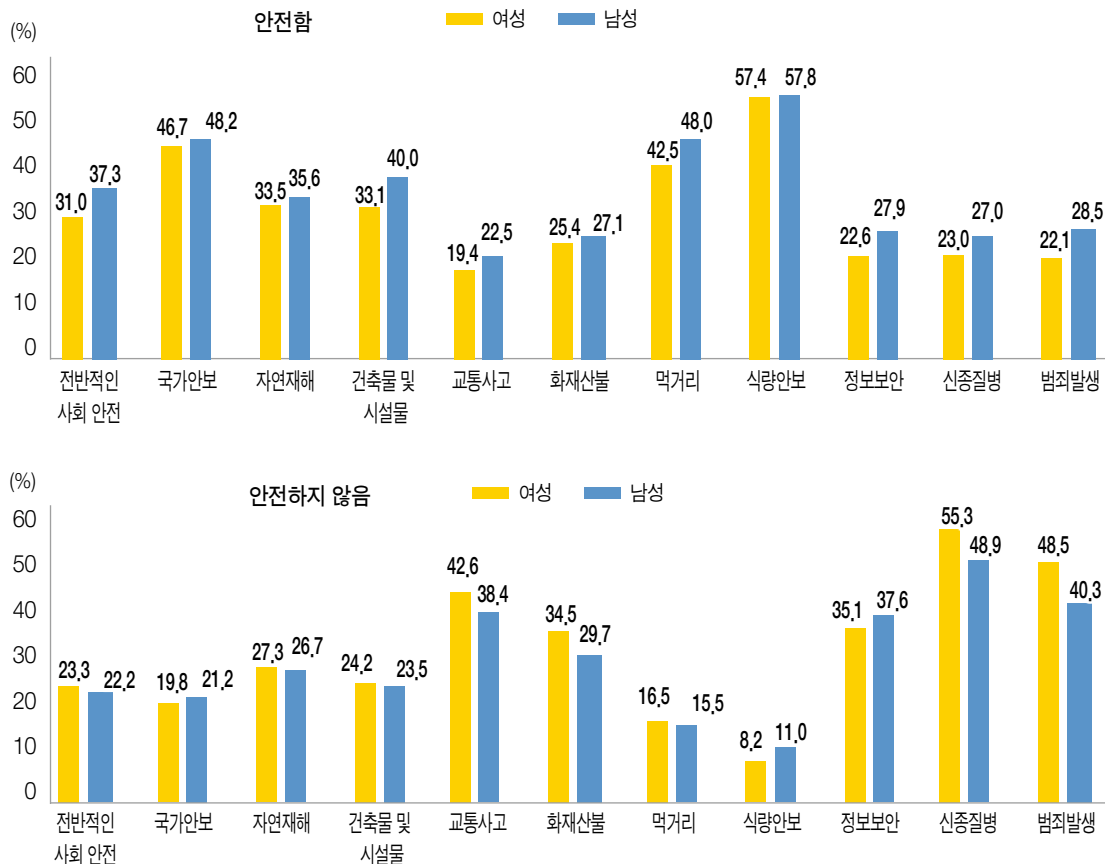
주 : 13세 이상 대상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전반적인 사회안전 ‘안전’ 여성 31.0%, 남성 37.3%

» 전반적인 사회안전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안전인식이 더 낮음

- (2020년 기준) 분야별 안전인식은 식량안보(여성 57.4%, 남성 57.8%), 국가안보(여성 46.7%, 남성 48.2%), 먹거리(여성 42.5%, 남성 48.0%) 등의 순으로 식량안보 분야가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분야별 불안전(안전하지 않음)인식은 신종질병(여성 55.3%, 남성 48.9%), 범죄발생(여성 48.5%, 남성 40.3%), 교통사고(여성 42.6%, 남성 38.4%) 등의 순으로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인식이 가장 높음

〈그림 10-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20)



〈표 10-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20)

(단위 : %)

구분		안전	보통	안전하지 않음
전반적인 사회 안전	전체	34.2	43.1	22.8
	여성	31.0	45.7	23.3
	남성	37.3	40.5	22.2
국가안보	전체	47.5	32.0	20.5
	여성	46.7	33.4	19.8
	남성	48.2	30.6	21.2
자연재해	전체	34.6	38.4	27.0
	여성	33.5	39.2	27.3
	남성	35.6	37.6	26.7
건축물 및 시설물	전체	36.6	39.6	23.8
	여성	33.1	42.7	24.2
	남성	40.0	36.5	23.5
교통사고	전체	21.0	38.5	40.5
	여성	19.4	37.9	42.6
	남성	22.5	39.1	38.4
화재산불	전체	26.3	41.7	32.1
	여성	25.4	40.1	34.5
	남성	27.1	43.3	29.7
먹거리	전체	45.3	38.8	15.9
	여성	42.5	41.0	16.5
	남성	48.0	36.5	15.5
식량안보	전체	57.7	32.8	9.6
	여성	57.4	34.4	8.2
	남성	57.8	31.2	11.0
정보보안	전체	25.2	38.4	36.4
	여성	22.6	42.3	35.1
	남성	27.9	34.5	37.6
신종질병	전체	25.0	23.0	52.1
	여성	23.0	21.7	55.3
	남성	27.0	24.2	48.9
범죄발생	전체	25.3	30.4	44.4
	여성	22.1	29.5	48.5
	남성	28.5	31.2	40.3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안전 =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안전하지 않음 =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 + 매우 안전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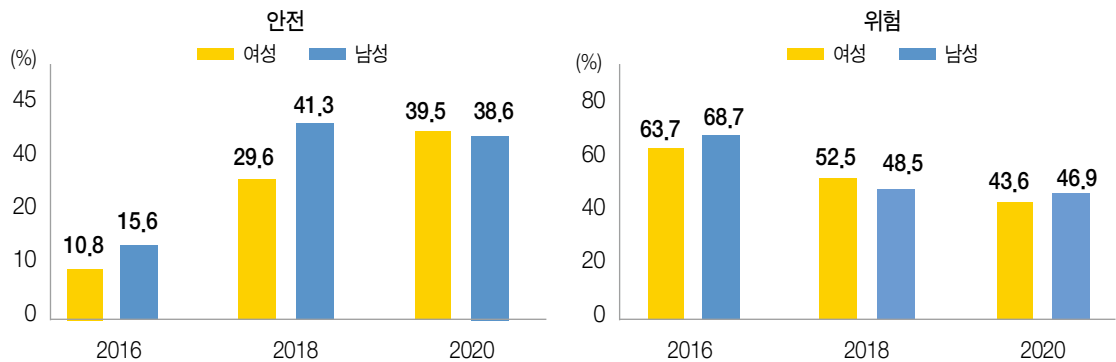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향후 사회 안전 기대 증가

» 향후 사회 안전 기대는 2016년보다 여성 28.7%p, 남성 23.0%p 증가함

- (2020년 기준) 향후 사회에 대한 '안전' 평가는 여성 39.5%, 남성 38.6%인 반면 '위험' 평가는 여성 43.6%, 남성 46.9%로 남녀 모두 '안전' 보다는 '위험' 평가가 더 높음
- 그러나 2016년보다 '안전' 평가는 여성 28.7%p, 남성 23.0%p 증가한 반면 '위험' 평가는 여성 20.1%p, 남성 21.8%p 감소하여 향후 사회에 대한 안전 기대가 증가하고 위험 걱정이 감소함

〈그림 10-4〉 향후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2016~2020, 2년주기)



〈표 10-4〉 향후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안전	변화 없음	위험	모르겠음
2016	전체	13.2	47.0	66.2	40.5
	여성	10.8	40.6	63.7	45.4
	남성	15.6	53.3	68.7	35.8
2018	전체	35.5	62.7	50.5	23.6
	여성	29.6	60.2	52.5	25.0
	남성	41.3	65.2	48.5	22.2
2020	전체	39.0	58.7	45.2	21.1
	여성	39.5	59.2	43.6	20.7
	남성	38.6	58.4	46.9	21.5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안전= 매우 안전+비교적 안전, 안전하지 않음=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매우 안전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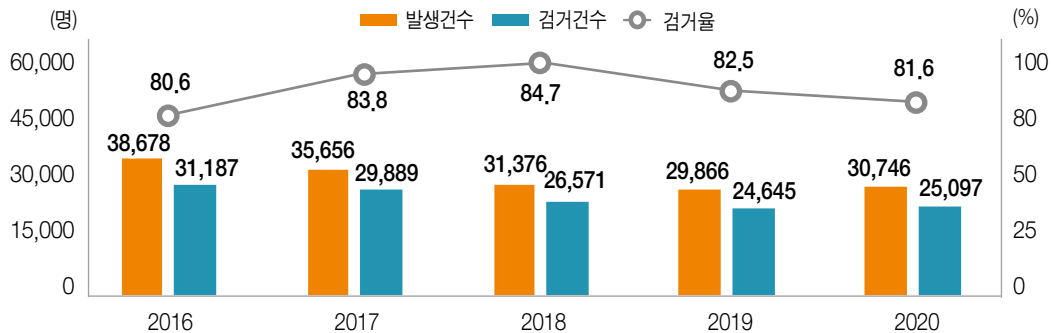
나. 안전실태

검거율 81.6%(발생 30,746건, 검거 25,097건)

» 2016년 이후 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하다가 2020년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검거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범죄 발생건수는 30,746건, 검거건수는 25,097건으로 81.6% 검거율을 보임
- 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전년보다 880건 증가함. 검거건수도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20년에 이르러 전년보다 452건 증가함. 검거율은 2018년 84.7%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10-5〉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2016~2019)



〈표 10-5〉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2016~2020)

(단위 :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소계	여성	남성	미상
2016	총계	38,678	31,187	80.6	34,218	6,684	27,036	498
	형법범	18,198	14,644	80.5	17,129	3,173	13,617	339
	특별법범	20,480	16,543	80.8	17,089	3,511	13,419	159
2017	총계	35,656	29,889	83.8	33,114	6,553	26,081	480
	형법범	17,382	14,011	80.6	16,365	3,039	13,031	295
	특별법범	18,274	15,878	86.9	16,749	3,514	13,050	185
2018	총계	31,376	26,571	84.7	29,934	6,005	23,571	358
	형법범	18,156	14,131	77.8	16,697	3,178	13,208	311
	특별법범	13,220	12,440	94.1	13,237	2,827	10,363	47
2019	총계	29,866	24,645	82.5	27,741	6,165	21,188	388
	형법범	17,729	13,077	73.8	16,082	3,301	12,441	340
	특별법범	12,137	11,568	95.3	11,659	2,864	8,747	48
2020	총계	30,746	25,097	81.6	27,910	6,605	20,900	405
	형법범	19,032	13,949	73.3	16,434	3,494	12,581	359
	특별법범	11,714	11,148	95.2	11,476	3,111	8,319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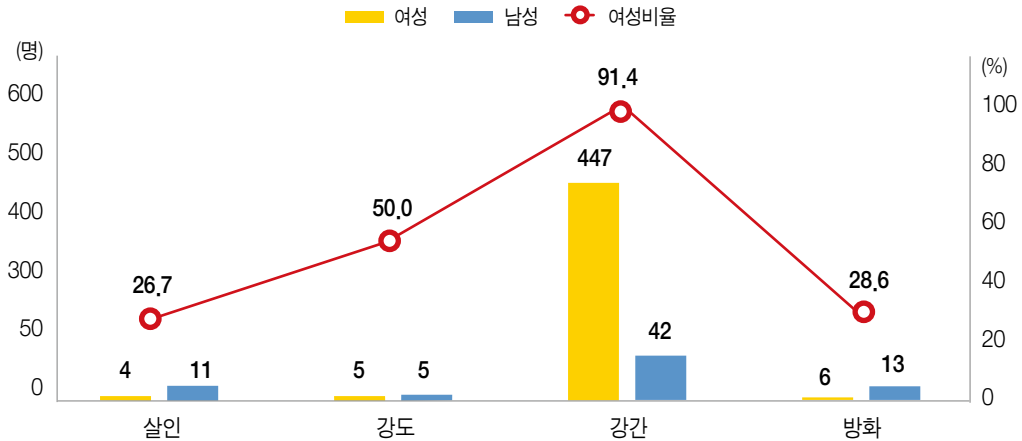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 86.4%

» 강력범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은 86.4%로 여성 피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함

- (2018년 기준) 강력범죄 피해자 535명 중 여성이 462명으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86.4%를 차지하고 있음
-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91.4%, 강도 50.0%, 방화 28.6%, 살인 26.7% 순으로 나타나 강간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

〈그림 10-6〉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2018)



〈표 10-6〉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2018)

(단위 : 명, %)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전체	535	15	10	489	21
여성	462	4	5	447	6
남성	71	11	5	42	13
불상	2	0	0	0	2
여성비율	86.4	26.7	50.0	91.4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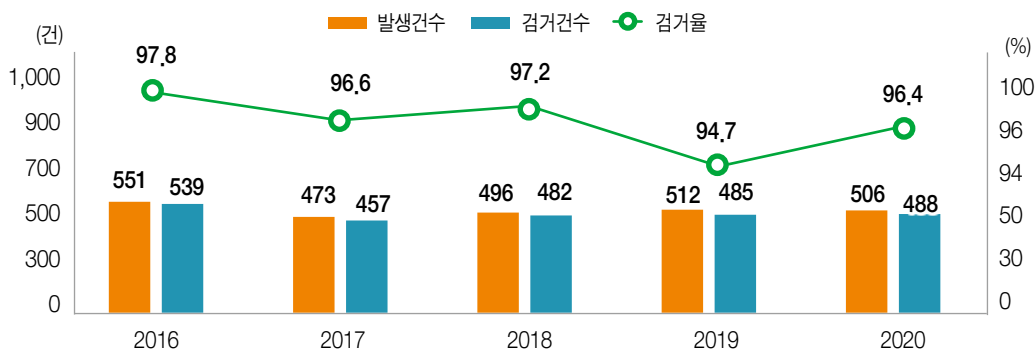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성폭력 범죄 검거율 96.4%(발생 506건, 검거 488건)

»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 전후로 발생하고 있고 검거율은 94%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성폭력 범죄는 506건이 발생하고 488건을 검거하여 96.4% 검거율을 보임
-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이후 증가하다가 2020년에 이르러 전년보다 6명 감소함. 검거건수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검거율은 2016년 97.8%에서 2019년 94.7%로 감소했다가 2020년에 96.4%로 다시 증가함

〈그림 10-7〉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2020)



〈표 10-7〉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2020)

(단위 :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여성	남성	미상
2016	551	539	97.8	424	13	411	-
2017	473	457	96.6	440	10	423	7
2018	496	482	97.2	480	18	462	0
2019	512	485	94.7	522	16	504	2
2020	506	488	96.4	531	513	17	1

주 : 발생 및 검거건수는 검찰 직수+인지 건수와 제주지방경찰청 관할 신고 및 검거건수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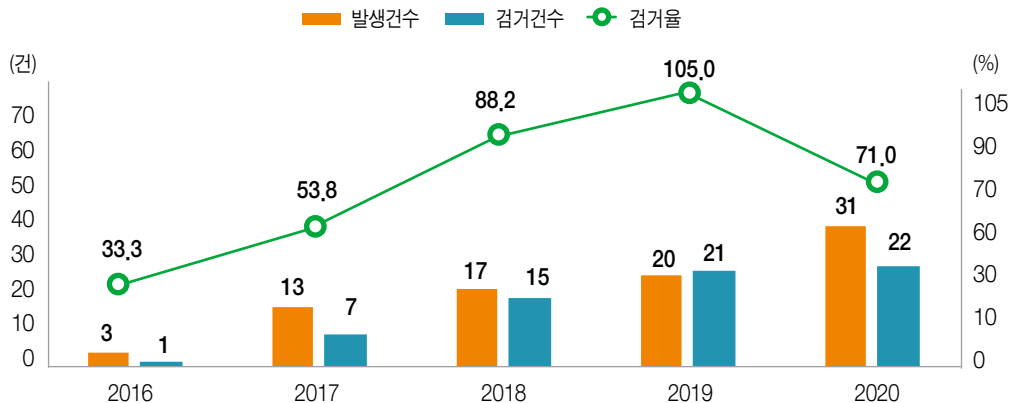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 검거율 71.0%(발생 31건, 검거 22건)

»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발생과 검거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증가하던 검거율이 2020년에 이르러 34.0%p 감소함

-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 발생건수는 31건, 검거건수는 22건으로 71.0%의 검거율을 보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건수와 검거건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함. 검거율은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34.0%p 감소함

〈그림 10-8〉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발생건수와 검거 현황(2016~2020)



〈표 10-8〉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발생건수와 검거 현황(2016~2020)

(단위 : 건, %,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계	여성	남성
2016	3	1	33.3	1	-	1
2017	13	7	53.8	5	-	5
2018	17	15	88.2	19	3	16
2019	20	21	105.0	22	-	22
2020	31	22	71.0	37	34	3

주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등, 음란물 등, 성착취물 등) 위반 범죄 현황임

2) 발생 및 검거건수는 검찰 직수+인지 건수와 제주지방경찰청 관할 신고 및 검거건수를 합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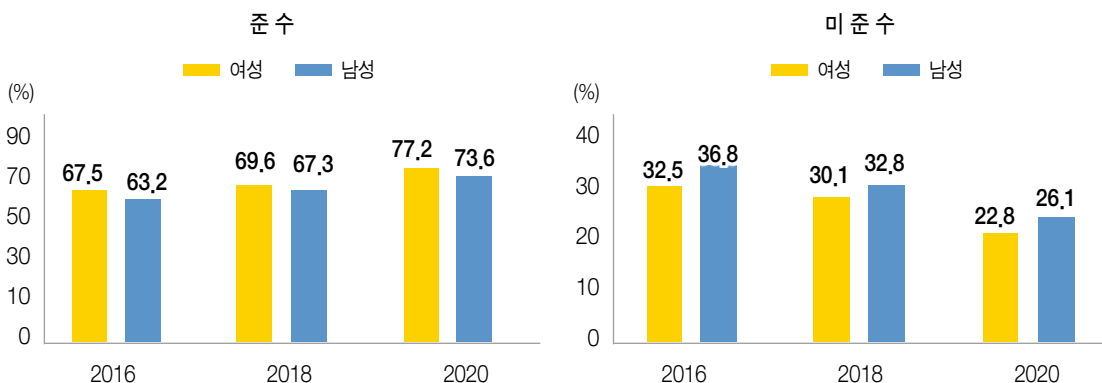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준법 준수 여성 77.2%, 남성 73.6%,미준수 여성 22.8%, 남성 26.1%

» 준법 준수에 대한 자기평가는 '준수' 인식이 2배 이상 높고, '준수' 평가는 여성이, '미준수' 평가는 남성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준법 '준수' 평가는 여성 77.2%, 남성 73.6%로 여성이 3.6%p 더 높고 '미준수' 평가는 여성 22.8%, 남성 26.1%로 여성이 3.3%p 더 낮아 '준수' 평가가 '미준수' 평가보다 2배가량 더 높고, '준수' 평가는 여성이, '미준수' 평가는 남성이 더 높음
- '준수' 평가는 2016년 이후 남녀 모두 증가한 반면 '미준수' 평가는 남녀 모두 감소함

〈그림 10-9〉 준법정신에 대한 자기평가(2016~2020, 2년주기)



〈표 10-9〉 준법정신에 대한 자기평가(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준수	보통	미준수
2016	전체	65.3	86.2	34.7
	여성	67.5	84.8	32.5
	남성	63.2	87.5	36.8
2018	전체	68.5	85.7	31.4
	여성	69.6	85.9	30.1
	남성	67.3	85.5	32.8
2020	전체	75.4	83.5	24.4
	여성	77.2	82.7	22.8
	남성	73.6	84.3	26.1

주 1 : 13세 이상 인구임

주 2 : 준수= 아주 잘 지킴+비교적 잘 지킴, 미준수= 비교적 지키지 않음+전혀 지키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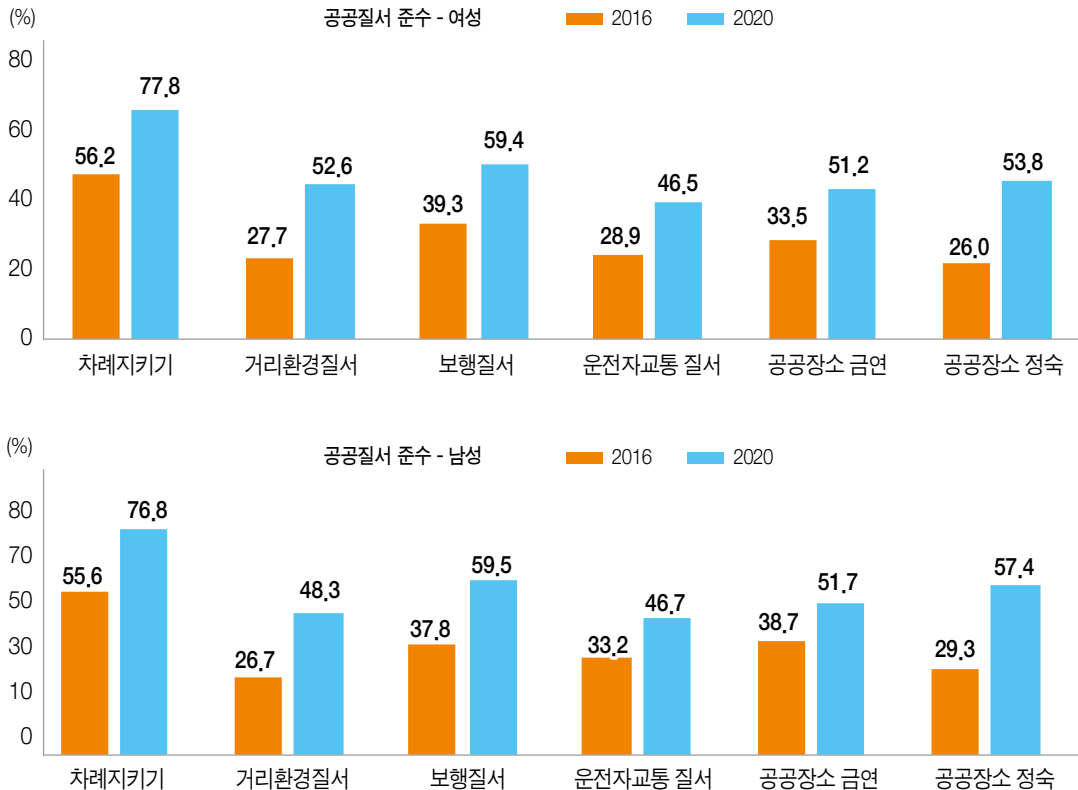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차레지키기 여성 77.8%, 남성 76.8%

» 전반적인 공공질서 준수 수준은 2016년 보다 모두 높아짐

- (2020년 기준) 여성은 차레지키기 77.8%, 보행질서 59.4%, 공공장소 정숙 53.8%, 거리환경질서 52.6% 등의 순으로 준수 수준이 높고, 남성은 차레지키기 76.8%, 보행질서 59.5%, 공공장소 정숙 57.4%, 금연구역 준수 51.7% 등의 순으로 준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차레지키기 준수 수준이 가장 높음
- (2020년 기준) 차레지키기와 거리환경질서는 여성의 준수수준이 조금 더 높고 나머지 항목은 남성이 높음. 또한 차레지키기를 비롯한 6개 항목 모두 2016년 보다 준수 수준이 높아짐

〈그림 10-10〉 공공질서 준수 수준(2016, 2020)



〈표 10-10〉 공공질서 준수 수준(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2016			2018			2020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차례지킴이	지킴	55.9	56.2	55.6	63.4	62.3	64.7	77.2	77.8	76.8
	보통	29.9	28.6	31.2	28.0	29.3	26.6	19.6	20.0	19.3
	안지킴	14.1	15.1	13.2	8.6	8.4	8.7	3.1	2.2	3.9
거리환경질서	지킴	27.2	27.7	26.7	35.1	35.3	34.8	50.4	52.6	48.3
	보통	33.4	30.5	36.2	34.0	32.4	35.6	28.5	26.4	30.5
	안지킴	39.4	41.9	37.1	30.9	32.2	29.7	21.1	21.0	21.2
보행질서	지킴	38.5	39.3	37.8	40.8	40.9	40.7	59.5	59.4	59.5
	보통	33.9	31.8	35.9	40.9	40.2	41.5	30.4	30.5	30.3
	안지킴	27.6	29.0	26.3	18.4	18.9	17.7	10.1	10.1	10.2
운전자 교통 질서	지킴	31.1	28.9	33.2	29.4	27.4	31.4	46.6	46.5	46.7
	보통	38.5	37.6	39.5	40.4	41.3	39.5	35.2	36.4	34.0
	안지킴	30.4	33.5	27.2	30.2	31.3	29.1	18.1	17.0	19.3
공공장소금연	지킴	36.1	33.5	38.7	46.0	41.1	50.9	51.5	51.2	51.7
	보통	34.2	35.2	33.2	31.8	35.1	28.6	29.3	29.2	29.4
	안지킴	29.7	31.4	28.2	22.2	23.9	20.6	19.2	19.6	18.9
공공장소정숙	지킴	27.6	26.0	29.3	37.1	34.7	39.6	55.6	53.8	57.4
	보통	38.4	34.5	42.2	38.3	39.2	37.4	31.9	32.6	31.2
	안지킴	34.0	39.4	28.5	24.5	26.1	23.0	12.5	13.6	11.3

주 : 1) 13세 이상 인구임

2) 공공질서 준수 수준 중 '지킴' 응답률만 표시함

3) 2020년부터 '공공장소 흡연' → '금연 구역 준수'로 조사표 명칭 변경

4) 공공질서 준수 수준 중 지킴이라 체크한 분율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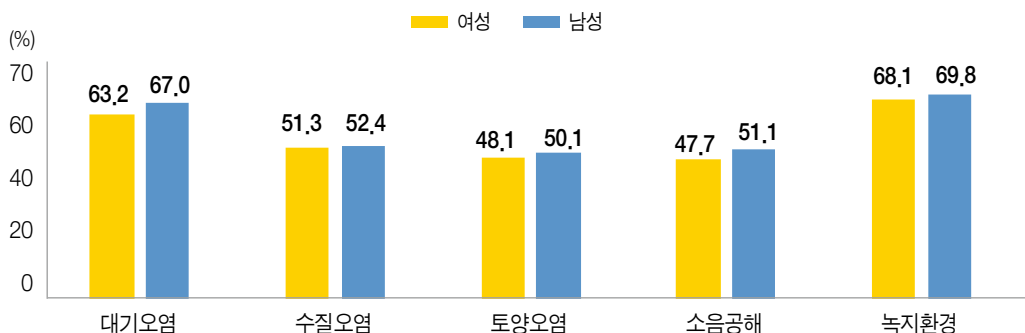
다. 환경

토양오염 및 소음공해 환경체감 만족도 낮음

» 현재 체감하는 환경만족 수준은 녹지환경이 가장 높고, 토양오염과 소음공해가 가장 낮음

- (2020년 기준) 환경체감 만족 수준은 녹지환경(여성 68.1%, 남성 69.8%), 대기오염(여성 63.2%, 남성 67.0%), 수질오염(여성 51.3%, 남성 52.4%) 등의 순으로 녹지환경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음
- 토양오염(여성 48.1%, 남성 50.1%)과 소음공해(여성 47.7%, 남성 51.1%)는 다른 영역보다 체감 만족수준이 낮음
- 녹지환경을 비롯한 5개 영역의 환경체감 만족도는 모두 여성이 더 낮음

〈그림 10-11〉 환경체감 만족도(2020)



〈표 10-11〉 환경체감 만족도(2020)

(단위 : %)

구분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공해	녹지환경
계	65.1	51.8	49.1	49.4	68.9
여성	63.2	51.3	48.1	47.7	68.1
남성	67.0	52.4	50.1	51.1	69.8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환경체감 만족도는 “매우 좋다”와 “약간 좋다”의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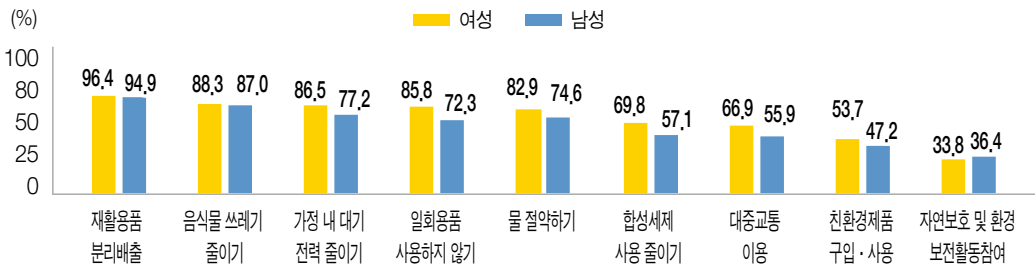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재활용품 분리 배출 실천 여성 96.4%, 남성 94.9%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95.7%(여성 96.4%, 남성 9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지난 2018년에 비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대부분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1.4%p, 친환경제품 구입·사용이 0.4%p 감소하였고, 남성은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6.3%p, 친환경제품 구입·사용이 4.7%p,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가 4.1%p 감소함
-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더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12〉 환경오염 방지 노력(2020)



〈표 10-12〉 환경오염 방지 노력(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친환경 제품 구입·사용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 활동 참여	물 절약하기	가정 내 대기전력 줄이기
2016									
계	58.2	90.1	86.6	66.0	73.5	46.9	34.4	75.4	80.8
여성	66.8	95.4	91.1	71.9	80.8	52.6	35.3	79.6	88.5
남성	49.7	84.8	82.2	60.1	66.4	41.4	33.5	71.2	73.2
2018									
계	61.2	93.2	86.3	65.6	71.9	53.0	39.6	74.0	80.0
여자	68.3	95.1	87.4	67.7	76.9	54.1	28.3	79.3	83.2
남자	54.2	91.3	85.2	63.4	67.0	51.9	40.5	68.7	76.6
2020									
계	61.3	95.7	87.7	63.5	79.0	50.4	35.2	78.7	81.8
여자	66.9	96.4	88.3	69.8	85.8	53.7	33.8	82.9	86.5
남자	55.9	94.9	87.0	57.1	72.3	47.2	36.4	74.6	77.2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환경오염 방지 노력은 '매우 노력한다'와 '약간 노력한다'의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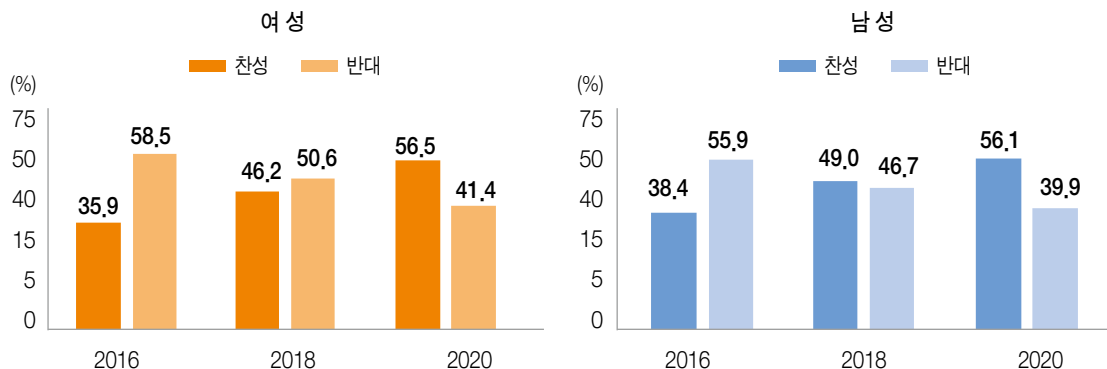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환경보호 비용부담 찬성 여성 56.5%, 남성 56.1%

» 지난 2016년에는 남녀 모두 환경보호 비용부담을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녀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음

- (2020년 기준) 여성은 환경보호 비용부담 찬성이 56.5%, 반대 41.4%로 찬성비율이 15.1%p 더 높고, 남성 역시 찬성 56.1%, 반대 39.9%로 찬성비율이 16.2%p 더 높음
- 2016년에는 남녀 모두 환경보호 비용부담을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녀 모두 환경보호 비용부담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아짐

〈그림 10-13〉 환경보호 비용 부담(2016~2020, 2년주기)



〈표 10-13〉 환경보호 비용 부담(2016~2020, 2년주기)

(단위 : %)

구분		찬성	보통	반대
2016	전체	37.2	70.3	57.3
	여성	35.9	70.3	58.5
	남성	38.4	70.1	55.9
2018	전체	47.6	74.0	48.7
	여성	46.2	76.3	50.6
	남성	49.0	71.7	46.7
2020	전체	56.3	68.4	40.7
	여성	56.5	69.9	41.4
	남성	56.1	66.7	39.9

주 : 1) 13세 이상 인구임

2) 환경보호 비용 부담 '찬성'은 '매우 찬성'과 '약간 찬성' 응답률의 합이며, '반대'는 '매우 반대'와 '매약간 반대'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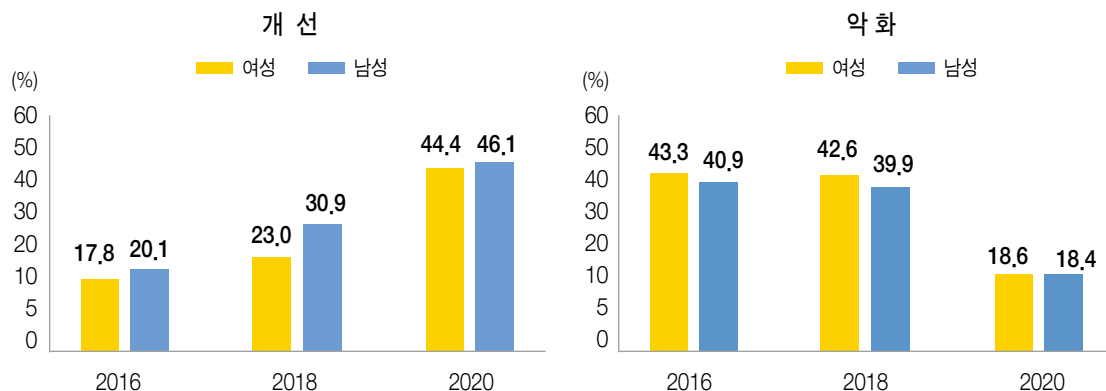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향후 환경 상황 개선 인식 증가

» 2016년 이후 향후 환경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한 반면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은 감소함

- (2020년 기준) 향후 환경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여성 44.4%, 남성 46.1%로 남성이 조금 더 높고,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여성 18.6%, 남성 18.4%로 여성이 조금 더 높음
- 지난 2016년 이후 개선의견은 증가한 반면 악화의견은 감소함

〈그림 10-14〉 향후 환경 상황에 대한 인식(2016~2020, 2년주기)



〈표 10-14〉 향후 환경 상황에 대한 인식(2016~2020, 2년주기)

(단위: %)

구분		개선	현재와 비슷	악화	모르겠음
2016	전체	19.0	31.8	42.1	7.1
	여성	17.8	30.6	43.3	8.3
	남성	20.1	33.0	40.9	6.0
2018	전체	27.0	26.3	41.3	5.4
	여성	23.0	27.0	42.6	7.2
	남성	30.9	25.6	39.9	3.5
2020	전체	45.2	29.9	18.5	6.4
	여성	44.4	30.1	18.6	6.9
	남성	46.1	29.7	18.4	5.9

주: 1) 13세 이상 인구임

2) 5년 후 인식임

3) 개선 = 매우 개선될 것임 + 다소 개선될 것임, 악화될 것임 = 다소 악화될 것임 + 매우 악화될 것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II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11

시도 비교

Regional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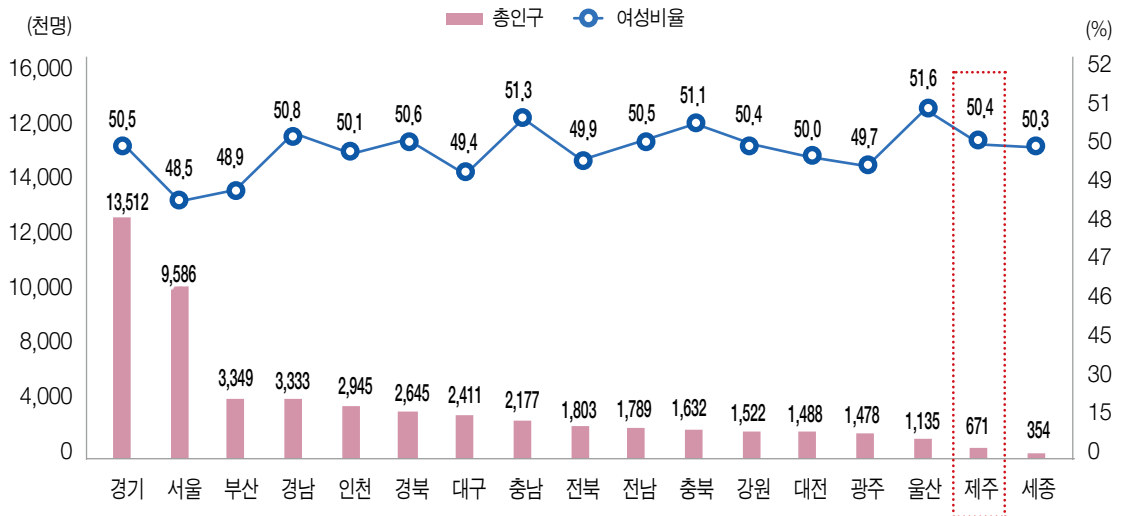
11 시도 비교 Regional Comparison

제주 총인구 중 여성비율 50.4%(9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671천명이며, 총인구 중 여성은 50.4%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671천명이며, 여성은 50.4%로 17개시도 중 9번째로 높고 전국수준보다 0.4%p 더 높음
- 총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3,512천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354천명임
- 총인구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51.6%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48.5%임

〈그림 11-1〉 총인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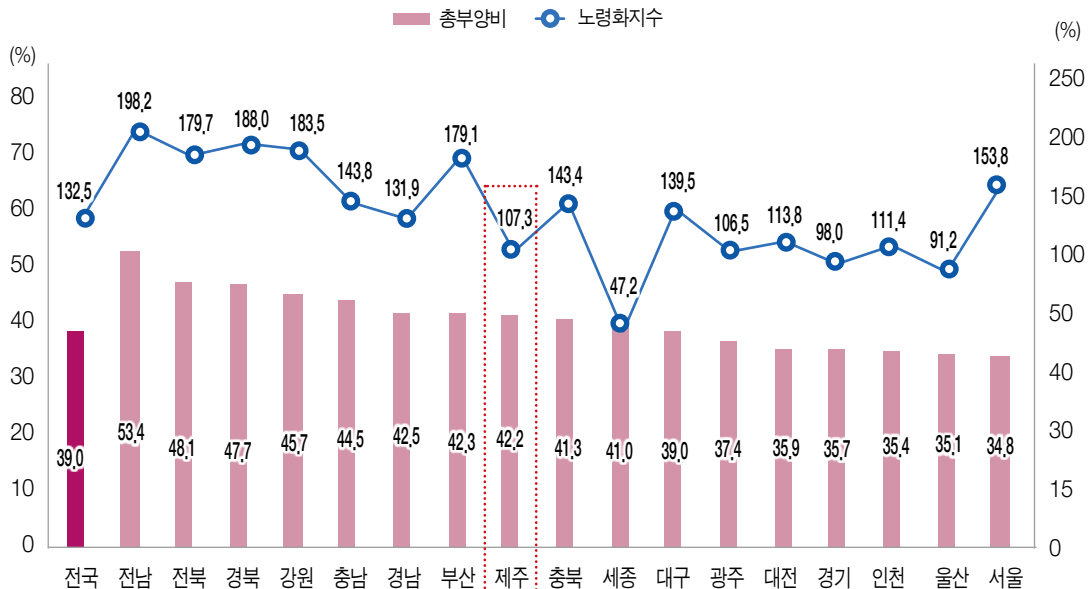
주 : 총인구는 외국인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총부양비 42.2%(8위), 노령화지수 107.3%(13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부양비는 42.2%, 노령화지수 107.3%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총부양비는 42.2%로 17개시도 중 8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3.2%p 더 높음. 노령화지수는 107.3%로 17개시도 중 13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15.2%p 낮음
- (2020년 기준)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53.4%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34.8%임.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총부양비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로 198.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7.2%임

〈그림 11-2〉 총부양비와 노령화지수(2020)



주 : 1) 총부양비 = $\{ (0\sim14\text{세인구}) + (65\text{세이상인구}) \} / (15\sim64\text{세인구}) \times 100$

2) 노령화지수 = $(65\text{세이상인구}) / (0\sim14\text{세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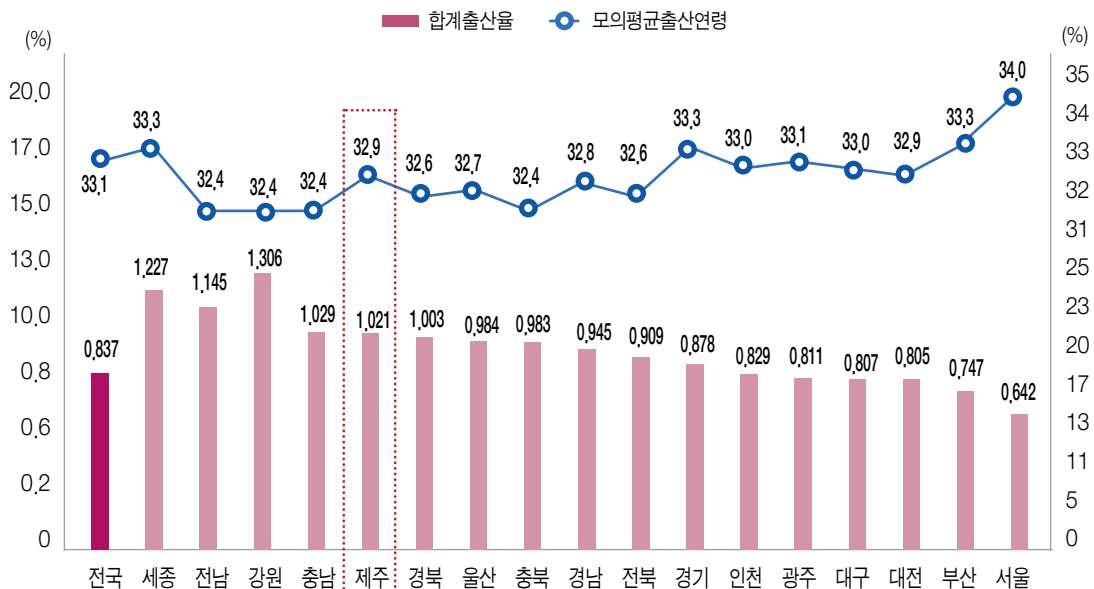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합계출산율 1.021명(5위), 모의 평균출산연령 32.9세(9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은 1.021명, 모의 평균출산연령은 32.9세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021명으로 17개시도 중 5번째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전국수준보다 0.184명 더 많음, 모의 평균출산연령은 32.9세로 9번째로 낮으며 전국수준보다 0.2세 더 적음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가임여성 1명당 1.227명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가임여성 1명당 0.642명임
- (2020년 기준)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 충북으로 32.4세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4.0세임

〈그림 11-3〉 합계출산율 및 모의 평균 출산연령(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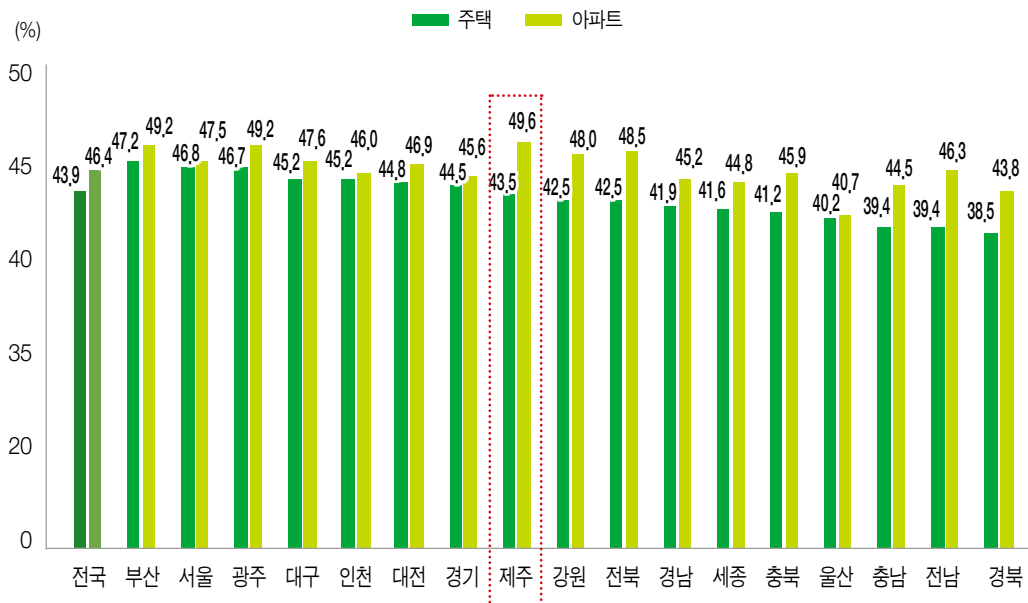
주 : 합계출산율 :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택소유자 중 여성비율 43.5%(8위), 아파트소유자 여성비율 49.6%(1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소유자 중 여성은 43.5%이며, 아파트소유자 중 여성은 49.6%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택소유자 중 여성은 43.5%로 17개시도 중 8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0.4%p 낮음. 아파트소유자 중 여성은 49.6%로 17개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수준보다 3.2%p 높음
- 주택소유자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47.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38.5%임
- 아파트소유자 중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40.7%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보다 8.9%p 더 낮음

〈그림 11-4〉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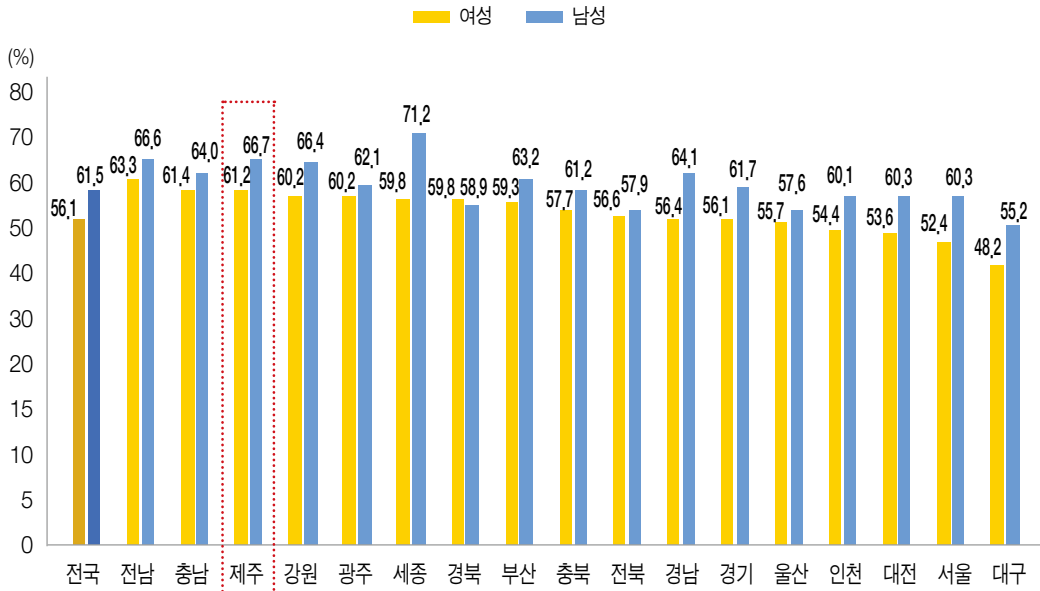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가족관계 '만족' 여성 61.2%(3위), 남성 66.7%(2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은 여성 61.2%, 남성 66.7%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은 여성 61.2%, 남성 66.7%로 여성이 5.5%p 더 낮고, 전국수준에 비해 여성은 5.1%p, 남성은 5.2%p 더 높음. 제주특별자치도의 만족수준은 17개 시도 중 여성은 3번째, 남성은 2번째로 비교적 높은 편임
-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수준은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모두 여성이 더 낮음. 여성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63.3%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48.2%임. 남성의 만족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71.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55.2%임

〈그림 11-5〉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2020)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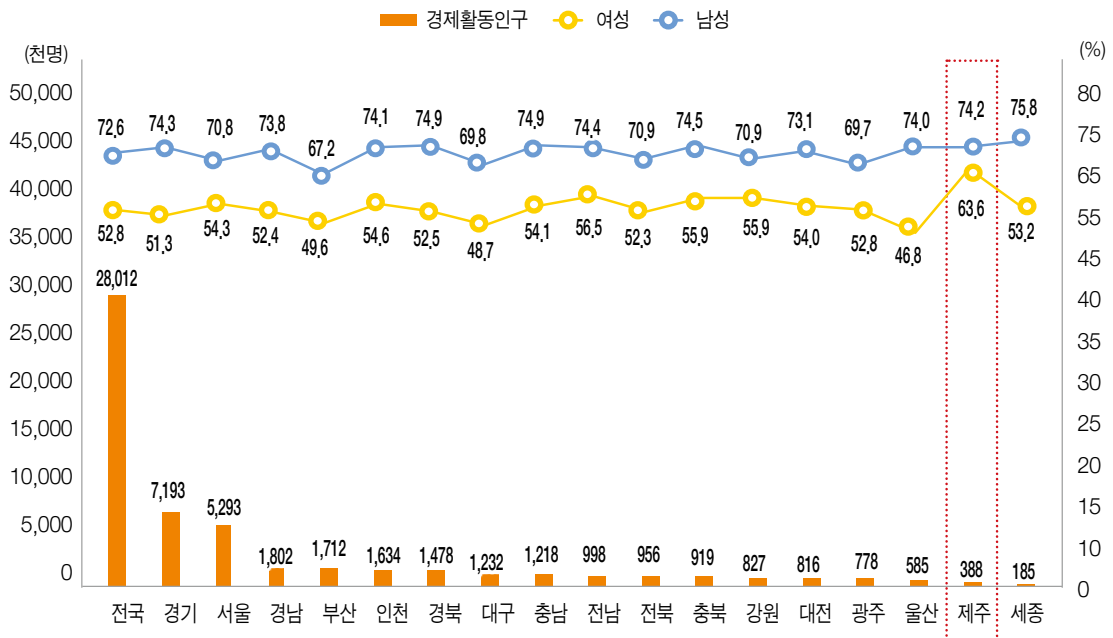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경제활동참가율 여성 63.6%(1위), 남성 74.2%(7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동인구는 388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63.6%, 남성 74.2%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동인구는 388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63.6%, 남성 74.2%로 여성이 10.6%p 더 낮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개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국수준보다 10.8%p 높음.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개시도 중 7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1.6%p 높은 수준임
-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7,193천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85천명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46.8%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75.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67.2%임

〈그림 11-6〉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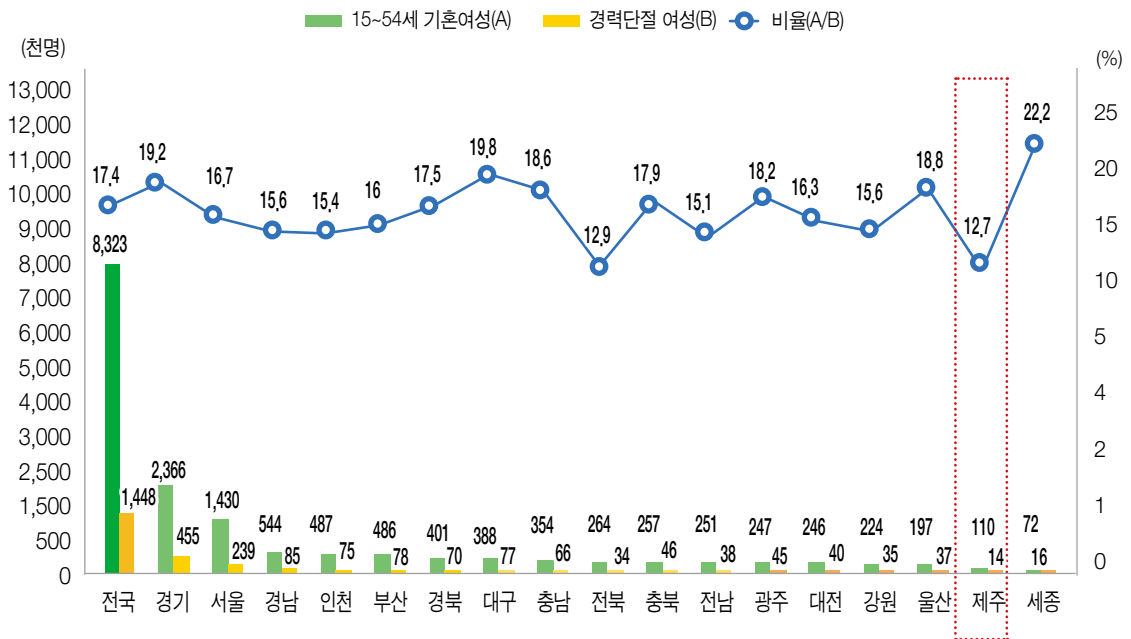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비율 12.7%(17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력단절여성 인구는 14천명이며, 기혼여성(1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비율은 12.7%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혼여성(15~54세) 인구는 110천명이며,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14천명으로 기혼여성의 12.7%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비율은 17개시도 중 17번째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전국수준보다 4.7%p 낮음

〈그림 11-7〉 경력단절여성 인구(202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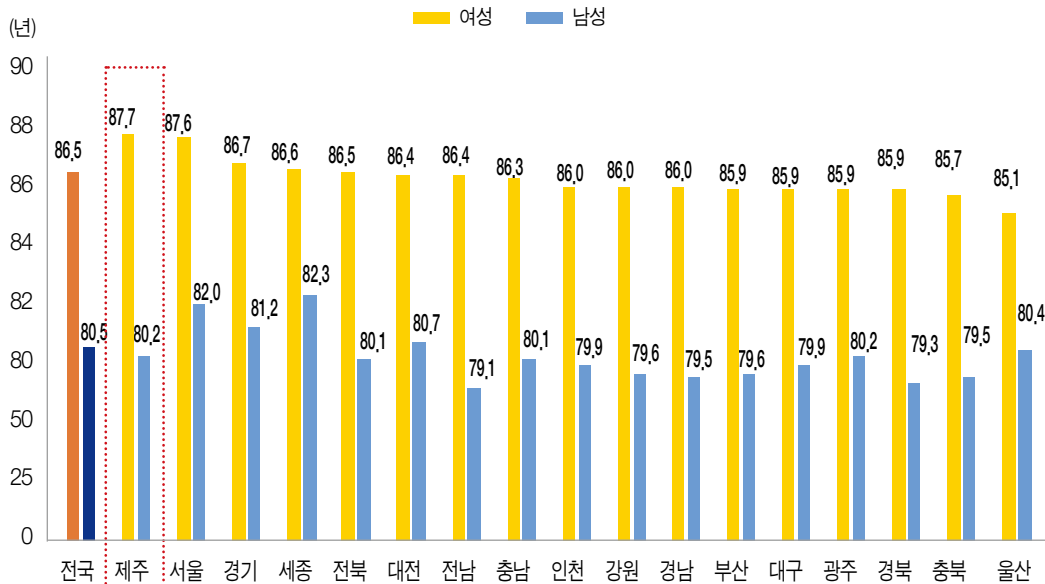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기대수명 여성 87.7년(1위), 남성 80.2년(6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대수명은 여성 87.7년, 남성 80.2년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기대수명은 87.7년으로 17개시도 중 가장 길고 여성의 전체 평균기대수명보다 1.2년 더 김. 남성은 80.2년으로 17개시도 중 6번째로 길고 전체 평균기대수명보다 0.3년 더 짧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울산으로 85.1년임. 남성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82.3년이며 가장 짧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79.1년임

〈그림 11-8〉 기대수명(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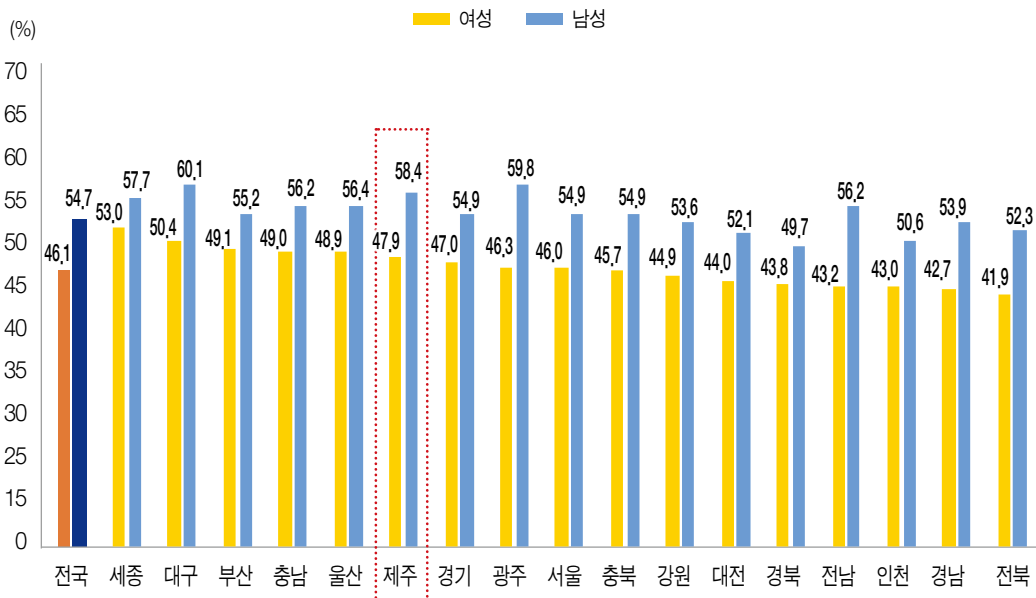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생명표」

건강상태평가 ' 좋음' 여성 47.9%(6위), 남성 58.4%(3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상태 ' 좋음' 평가는 여성 47.9%, 남성 58.4%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건강상태 ' 좋음' 평가는 여성 47.9%, 남성 58.4%로 자신이 건강하다는 인식은 남성이 10.5%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건강상태 ' 좋음' 평가는 17개시도 중 6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1.8%p 더 높음. 남성은 17개시도 중 3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3.7%p 더 높음
- 건강상태 ' 좋음' 평가는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수준임. 여성의 건강상태 ' 좋음' 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53.0%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41.9%임. 남성의 건강상태 ' 좋음' 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60.1%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49.7%임

〈그림 11-9〉 건강상태평가 - 좋음(2020)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건강상태평가는 ' 좋음(매우 좋음 + 좋음)만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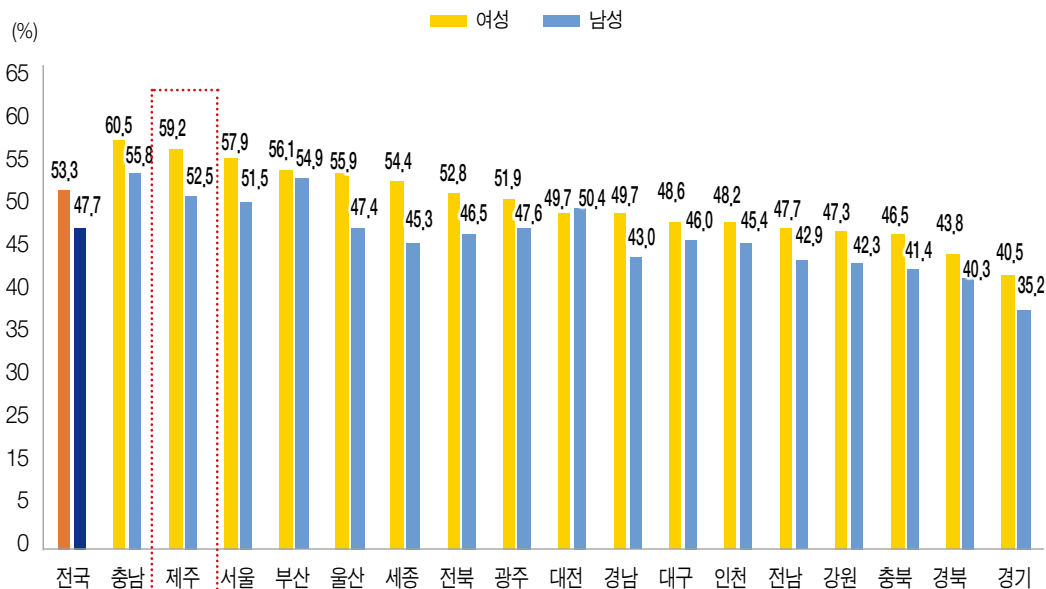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스트레스 인지수준 여성 59.2%(2위), 남성 52.5%(3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여성 59.2%, 남성 52.5%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여성이 59.2%로 17개시도 중 2번째로 높고, 남성은 52.5%로 17개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남성보다 6.7%p 더 높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은 전국수준보다 여성은 5.9%p, 남성은 4.8%p 더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녀모두 충청남도로 각각 60.5%, 55.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남녀 모두 경기도로 각각 40.5%, 35.2%임

〈그림 11-10〉 스트레스 인지 정도(2020)



주 : 1) 13세 이상 인구 대상임

2) 지난 2주일 동안 느낀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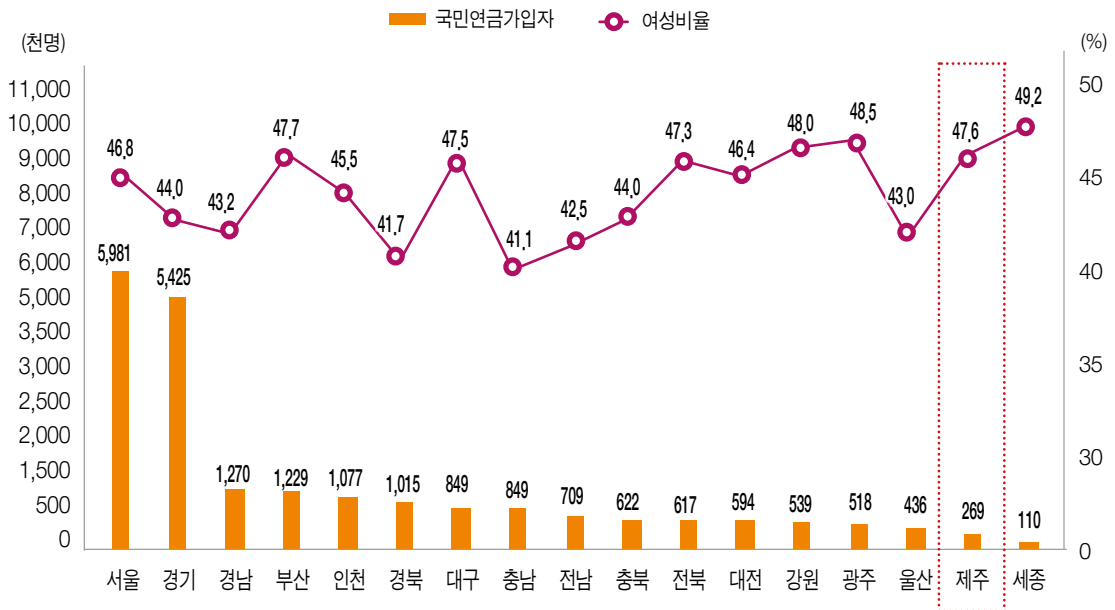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국민연금가입자 269천명, 여성비율 47.6%(5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연금가입자는 269천명이며, 이 중 여성은 47.6%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민연금가입자는 269천명이며, 이 중 여성은 47.6%임.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비율은 17개시도 중 5번째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전국수준보다 2.3%p 더 높음
- 국민연금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5,981천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10천명임
- 국민연금가입자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49.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41.1%임

〈그림 11-11〉 국민연금가입자 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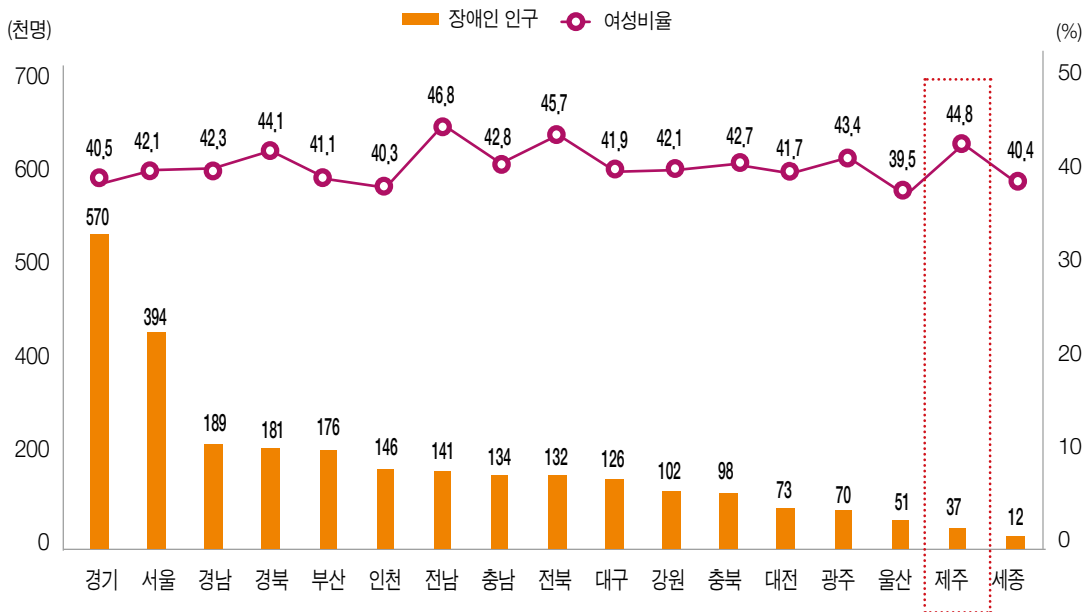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장애인 인구 37천명, 여성비율 44.8%(3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인구는 37천명이며, 이 중 여성은 44.8%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인구는 37천명이며, 이 중 여성은 44.8%로 17개시도 중 3번째로 높고 전국수준보다 2.5%p 더 높음
-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70천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2천명임
- 장애인 인구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도 46.8%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39.5%임

〈그림 11-12〉 장애인 인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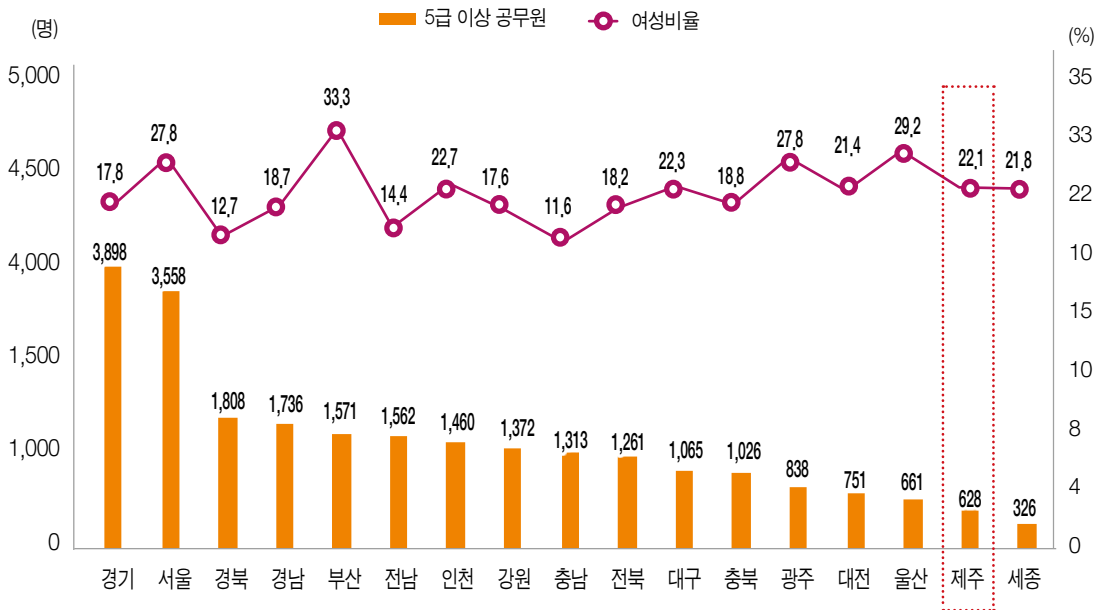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22.1%(7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5급 이상 공무원은 628명이며, 이 중 여성은 22.1%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5급 이상 공무원은 628명이며, 이 중 여성비율은 22.1%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고 전국수준보다 1.3%p 더 높음
- 5급 이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898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326명임
-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33.3%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 11.6%임

〈그림 11-13〉 5급 이상 공무원 수(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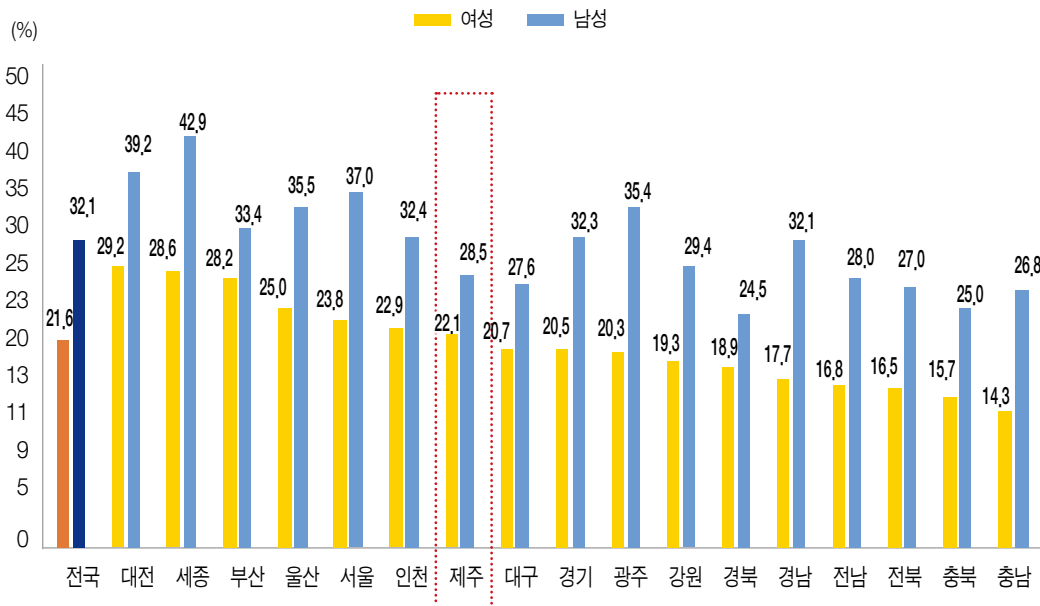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통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 여성 22.1%(7위), 남성 28.5%(11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은 여성 22.1%, 남성 28.5%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은 여성 22.1%, 남성 28.5%이며, 여성의 안전인식이 6.4%p 더 낮음.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은 17개시도 중 여성은 7번째로 높고 전국수준보다 0.5%p 높은 반면 남성은 11번째로 전국수준보다 3.6%p 낮음
- 여성의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29.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남도로 14.3%임. 남성은 가장 높은 지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42.9%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24.5%임
-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14〉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2020)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안전'은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 응답률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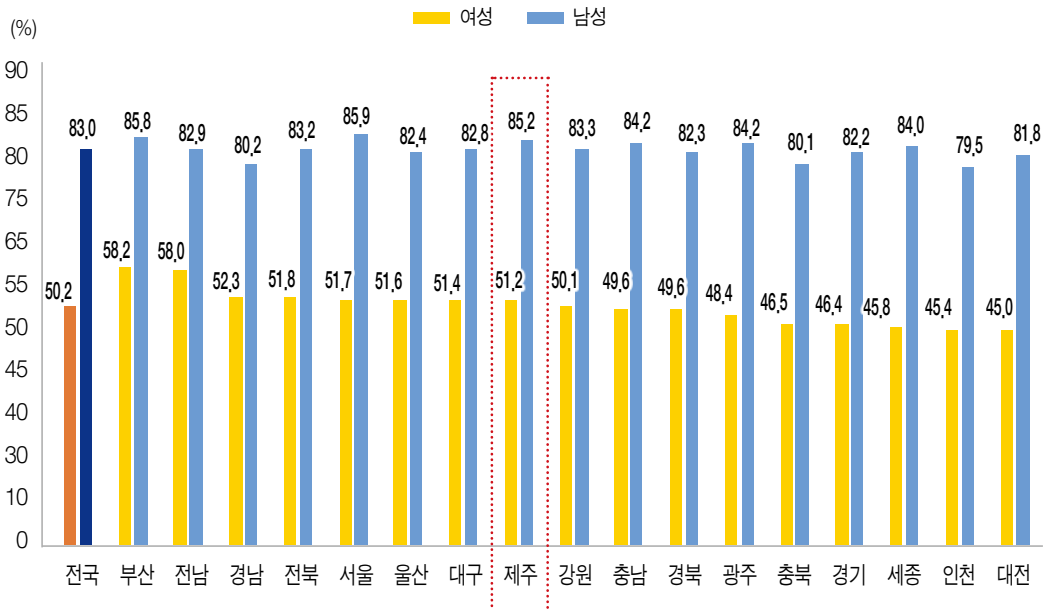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 여성 51.2%(8위), 남성 85.2%(3위)

» 제주특별자치도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은 여성 51.2%, 남성 85.2%임

- (2020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은 여성 51.2%, 남성 85.2%로 여성의 안전하다는 인식이 34.0%p 더 낮음.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은 17개 시도 중 여성은 8번째이며 전국수준보다 1.0%p 더 높고, 남성은 3번째로 높고 전국수준보다 2.2%p 더 높음
- 여성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58.2%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45.0%임. 남성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특별시로 85.9%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79.5%임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30%p 가량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1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2020)



주 : 1) 13세 이상 대상임

2) '안전'은 '매우 안전'과 '비교적 안전' 응답률의 합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5급 이상 관리직 성별 공무원 비율(2016~2020)	146	미혼부모 및 미혼부모의 자녀(2017~2020)	46
65세 이상 의료보장적용 인구(2020)	132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2016~2020)	169
65세 이상 인구(2016~2020)	26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6~2020, 2년주기)	164
가구주 가구(2016~2020)	42	보육료 지원 현황(2016~2020)	70
가구주의 성별 귀농가구(2016~2020)	38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및 발생원인(2016~2020)	138
가족관계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58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2020)	85
가족형태별 가구(2016~2020)	45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4~2020, 2년주기)	62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2018)	170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건강관리 실천(2020)	119	여성 종사자 비율(2015~2019)	107
건기실천율(2016~2020)	118	사회복지서비스 만족(2020)	139
결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2016~2020, 2년주기)	60	사회복지시설 현황(2018~2019)	133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6~2020)	94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20)	167
경제활동참가율(2016~2020)	92	사회적 관계망(2015~2019, 2년주기)	151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6~2020)	128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2019)	109
공공질서 준수 수준(2016~2020, 2년주기)	175	선호하는 SNS 종류 1순위(2018)	160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현황(2016~2020)	130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20)	67
공무원 현황(2016~2020)	144	성별 1인 가구(2016~2020)	47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6~2020, 2년주기)	84	성별 결혼이민자(2016~2020)	54
교육효과 인식(2016~2020, 2년주기)	88	성별 통·리장 현황(2020)	148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6~2020)	127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2020)	171
국민연금 총 가입자 현황(2016~2020)	126	세대구성별 가구(2016~2020)	43
근로조건 만족도(2021)	106	순이동 인구(2016~2020)	36
기대여명(2014~2020, 3년주기)	112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161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2016~2020, 2년주기)	63	스트레스 인지(2016~2020, 2년주기)	115
농가 및 어가 인구(2015~2019)	3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발생건수와	
다문화학생 현황(2017~2020)	79	검거 현황(2016~2020)	172
단체참여여부 및 참여단체 유형(2015~2019, 2년주기)	149	아동양육시설 현황(2016~2019)	137
대학교 진학률(2017~2021)	77	야간보행 불안 및 불안이유(2020)	165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2016~2020)	37	여가활동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	
등록장애인 현황(2016~2020)	135	(2015~2019, 2년주기)	156
모성보호 초회 수급자 현황(2016~2020)	129	여성 석·박사과정 졸업자 현황(2017~2020)	78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6~2020)	34	여성복지시설 현황(2018~2019)	134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	95
(2017~2021, 2년주기)	155	여성취업 장애요인(2021)	103
		연령 3계층별 인구(2016, 2020)	27

연령 3계층별 인구비율,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16~2020)	28
연령별 1인 가구(2020)	48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20)	9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2020) ·	131
연령별 인구(2020)	25
연령별 취업자(2020)	96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3~2018)과 암사망률 (2013~2020)	121
영유아(0~5세) 인구(2016~2020)	66
외국인 인구 및 비율(2016~2020)	30
외국인과의 이혼(2016~2020)	57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6~2020)	53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20)	122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6~2020)	117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2020)	12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2016~2020)	55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4~2020, 2년주기) ·	61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2015~2019)	114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6~2020)	104
자격유형별 보육료 지원 현황(2016~2020)	71
자원봉사 참여율(2015~2019, 2년주기)	150
장애인 차별(2019, 2021)	136
저체중아 비율 및 출생아 평균체중(2016~2020) ·	120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6~2020, 2년주기) ·	89
정보 습득 경로(2016~2018, 2년주기)	159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2016~2020)	147
제주형 육아 및 돌봄공동체 현황(2016~2020) ·	69
주관적 건강인지율(2020)	113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 (2017~2021, 2년주기)	158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2016~2020)	145
준법정신에 대한 자기평가(2016~2020, 2년주기) ·	173
직업선택요인(2021)	102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6~2021) ·	76

초 · 중 · 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2021) ·	83
총인구(2016~2020)	22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요(2020)	35
출생과 사망(2016~2020)	3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6~2020)	33
취업자의 종사산업(2020)	98
취업자의 종사상지위(2020)	100
취업자의 종사직업(2020)	99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20)	68
평균 교육년수(2000~2015, 5년주기)	74
평균 독서량(2017~2021, 2년주기)	154
평균 재혼연령(2016~2020)	52
평균 초혼연령(2016~2020)	51
평생교육 기관 현황(2020)	81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유(2019)	82
하고 싶은 여가활동(2015~2019, 2년주기) ·	157
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	87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2016~2020, 2년주기)	86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목적(2016~2020, 2년주기) ·	75
해녀인구 (2016~2020)	101
행정시, 읍면동별 총인구(2020)	24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서비스(2021)	140
향후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2016~2020, 2년주기) ·	168
향후 환경 상황에 대한 인식(2016~2020, 2년주기) ·	179
현재흡연율(2016~2020)	116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2016~2020)	50
혼인상태별 1인 가구(2020)	49
혼인상태별 인구(2020)	29
혼인지속(동거) 기간별 이혼(2016~2020)	56
환경보호 비용 부담(2016~2020, 2년주기) ·	178
환경오염 방지 노력(2016~2020, 2년주기) ·	177
환경체감 만족도(2020)	176

5급 이상 공무원 수(2020)	194
5급 이상 관리직 성별 공무원 비율(2016~2020)	146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2020)	132
65세 이상 인구(2016~2020)	26
가구주 가구(2016~2020)	42
가구주의 성별 귀농가구(2016~2020)	38
가족관계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58
가족형태별 가구(2016~2020)	44
강력범죄 피해자의 여성비율(2018)	170
건강관리 실천(2020)	119
건강상태평가 - 좋음(2020)	190
건기실천율(2016~2020)	118
결혼 및 재혼에 대한 견해(2016~2020, 2년주기)	59
경력단절 여성 규모(2016~2020)	94
경력단절여성 인구(2021 1/2)	188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2020)	187
경제활동참가율(2016~2020)	92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2016~2020)	128
공공질서 준수 수준(2016, 2020)	174
공무원 육아휴직 이용률(2016~2020)	130
공무원 현황(2016~2020)	144
교육비 부담인식과 부담요인(2016~2020, 2년주기) ·	84
교육효과 인식(2016~2020, 2년주기)	88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6~2020)	127
국민연금 총 가입자 현황(2016~2020)	126
국민연금가입자 수(2020)	192
근로조건 만족도(2021)	105
기대수명(2020)	189
기대여명(2014~2020, 3년주기)	112
노후 준비 여부 및 방법(2020)	63
농가 및 어가 인구(2015~2019)	31
다문화학생 현황(2017~2020)	79
단체참여율(2019)	149
대학교 진학률(2017~2021)	77
도내 이주민 증가에 대한 인식(2016~2020)	37
등록장애인 현황(2016~2020)	135
모성보호 초회수급자 현황(2020)	129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6~2020)	34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및 국내관광 경험(2021)	155
미혼모 · 미혼부 및 미혼모 · 미혼부의 자녀 (2017~2020)	46
범죄발생 및 검거 현황(2016~2019)	169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2016~2020, 2년주기) ·	164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2020)	195
보육료 지원 현황(2016~2020)	70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16~2020) 및 발생원인 (2020)	138
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도(2020)	85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2016~2020)	28
부양책임에 대한 인식(2016~2020, 2년주기) ·	62
사업체의 여성 대표자 및 여성 종사자 비율 (2015~2019)	106
사회복지서비스 만족(2020)	139
사회복지시설 현황(2019)	133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2020)	166
사회적 관계망(2019)	151
산업별 사업체의 여성대표자 비율(2019)	107
선호하는 SNS 종류 1순위(2018)	160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현황(2020)	67
성별 1인 가구(2016~2020)	47
성별 결혼이민자(2016~2020)	54
성폭력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16~2020) ·	171
세대구성별 가구(2016~2020)	43
순이동 인구(2016~2020)	36
스마트기기 활용 용도(2018)	161
스트레스 인지 정도(2020)	191
스트레스 인지(2016~2020, 2년주기)	115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범죄발생건수와 검거 현황(2016~2020)	172
아동양육시설 현황(2016~2019)	137
야간보행 불안 및 불안이유(2020)	165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인식(2020)	196
여가활용 만족 여부 및 불만족 이유(2019) ·	156
여성 석 · 박사과장 졸업자 현황(2017~2021) ·	78
여성복지시설 현황(2019)	134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2020)	95

여성취업 장애요인(2021)	103
연령 3계층별 인구(2016, 2020)	27
연령별 1인 가구(2020)	48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2020)	9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2020) ..	131
연령별 인구(2020)	25
연령별 취업자(2020)	96
연령표준화 암발생률(2013~2018)과 암사망률(2013~2020)	121
영유아(0~5세) 인구(2016~2020)	66
외국인 인구 및 비율(2016~2020)	30
외국인과의 이혼(2016~2020)	57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비율(2016~2020)	53
요양기관 의료인력 현황(2020)	122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2016~2020)	117
의료기관별 의료서비스 만족(2020)	123
이혼건수와 조이혼률(2016~2020)	55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2016~2020, 2년주기) ...	61
일반건강검진 판정결과(2015~2019)	114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2016~2020)	104
자격유형별 보육료 지원 현황(2020)	71
자원봉사 참여율(2019)	150
장애인 인구(2020)	193
장애인 차별(2021)	136
저체중아 비율 및 출생아 평균체중(2020)	120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2016~2020, 2년주기)	89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2020)	186
정보 습득 경로(2018)	159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 현황(2016~2020)	147
제주형 육아 및 돌봄공동체 현황(2016~2020) ..	69
주관적 건강인지율(2020)	113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함께하는 사람(2021)	158
주요부서 여성 공무원 비율(2020)	145
주택 및 아파트 소유자 여성비율	185
준법정신에 대한 자기평가(2016~2020, 2년주기) ·	173
직업선택요인(2021)	102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2019~2021)	76
초·중·고등학교의 직위별 여성교원 비율(2021) ·	83

충부양비와 노령화지수(2020)	183
총인구(2016~2020)	22
총인구(2020)	182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요(2020)	35
출생과 사망(2016~2020)	32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2016~2020)	33
취업자의 종사산업 10순위(2020)	97
취업자의 종사상지위(2020)	100
취업자의 종사직업(2020)	99
통·리장 현황(2020)	148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20)	68
평균 교육년수(2015)	74
평균 독서량(2021)	154
평균 재혼연령(2016~2020)	52
평균 초혼연령(2016~2020)	51
평생교육 기관 현황(2020)	80
평생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유(2019)	82
하고 싶은 여가활동(2019)	157
학생의 교육내용 만족도(2016~2020, 2년주기) ..	87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 (2016~2020, 2년주기)	86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목적(2020)	75
합계출산율 및 모의 평균 출산연령(2020)	184
해녀인구(2016~2020)	101
행정시, 읍면동별 총인구(2020)	23
향후 늘려야 하는 복지서비스(2021)	140
향후 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2016~2020, 2년주기) ·	168
향후 환경 상황에 대한 인식(2016~2020, 2년주기) ·	179
현재흡연율(2016~2020)	116
혼인상태별 1인 가구(2020)	49
혼인상태별 1인 가구(2020)	50
혼인상태별 인구(2020)	29
혼인지속(동거)기간별 이혼(2016~2020)	56
환경보호 비용 부담(2016~2020, 2년주기)	178
환경오염 방지 노력(2020)	177
환경체감 만족도(2020)	176

연구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책임자 신승배(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민선(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연구원)
연구보조원 김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보조원)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민 무 속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

Tel. 064)720-4915 Fax. 064)711-2350 www.jewfri.kr

인쇄처 참디자인

ISBN 979-11-87026-80-8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in Jeju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오로 89(연동), 3층
Tel. 064)720-4915, Fax. 064)711-2350
www.jewfri.kr



9 791187 026808
ISBN 979-11-87026-80-8